ISSN 1738-8058

ISSN 1738-8058

Vol. 40 No. 1 Serial No. 48

40

제40권 1호 2020. 12. 31

韓國生活科學研究

한국생활과학연구

JKLSR

학술논문

도시한옥 안마당의 '제3의 공간' 특성 분석 연구
: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중심으로
/ 함정식, 노이경

몽골 전통 씨름 복식의 특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 어유나, 이연희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으로 본 대형마트 실내공간 분석
/ 우채영, 문자영

공유홈오피스의 사례분석을 통한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 문승현, 노이경

노인특성에 따른 시니어 셰어하우스의 공간특성 연구
: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수복, 문자영

2020. 12. 31. 통권 48

JKLSR

The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Research
Seoul 04763 城東區 往十里路 222 韓國生活科學研究所
Tel. 82-2-2220-1500
http://kls.hanyang.ac.kr h5eaha@hanyang.ac.kr

The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Research
http://kls.hanyang.ac.kr h5eaha@hanyang.ac.kr
2020년 12 월 31일 발 행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Vol.40

2020년 12월

JKLSR

목 차

학술논문

3 도시한옥 안마당의 '제3의 공간' 특성 연구: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중심으로
함정식 · 노이경

13 몽골 전통 씨름 복식의 특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어유나 · 이연희

23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으로 본 대형마트 실내공간 분석
우채영 · 문자영

32 공유홈오피스의 사례분석을 통한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문승현 · 노이경

42 노인특성에 따른 시니어 셰어하우스의 공간특성 연구: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수복 · 문자영

발행인 / 김우승(한양대학교 총장)
편집인 / 황연숙(한국생활과학연구소 소장)
자문위원 / 박명자(한양대) 남경숙(한양대)
이현규(한양대) 엄애선(한양대)
감 사 / 박용순(한양대)
운영위원장 / 신원선(한양대)
운영위원 / 이규혜(한양대) 배지현(한양대)
현경훈(한양대) 이지연(한양대)
어미경(한양대) 차승현(한양대)
편집위원장 / 이연희(한양대)
편집위원 / 남경숙(한양대) 이현규(한양대)
장순각(한양대) 신원선(한양대)
장순각(한양대) 고광웅(한양대)
Hyun Sook Kim(한양대)
민아람(한양대)

제 호 / 제40권 1호
발행처 / 한양대학교 출판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전 화 / 02-2220-1432~4
전 송 / 02-2220-1435
발행년월일 / 2020년 12월 31일

이 책은 2020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음.

KLSR

2020. 12. 31

CONTENTS

3 A Study on the 'Third Space' Characteristics of Inner Court in Urban Hanok : Focus on the Guest House and Cafe
Ham, Chong-Sik, Noh, Yi-kyung

13 Fashion Design Applied to Mongolian Traditional Wrestling Uniform
Dembee Oyunsuren, Lee, Yeon-Hee

23 An Analysis of interior Space of Large-scale Mart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Design
Woo, Chae-young, Moon, ja-young

32 A Study on the Space Characteristics of Shared-Home Office through Case Analysis
Moon, Sung-hyun, Noh, Yi-kyung

42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enior Share Hous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 Focusing on Japanese and Korean Cases
Lee, Su-Bok, Moon, ja-young

Publisher/ Woo-seung Kim
Editor/ Yeon-Sook Hwang
Operator Board/ Weon-Sun Shin
Editor Board/ Yeon-Hee Lee

Printing No. / Vol. 40 No. 1
Publishing Office /
Hanyang University Press
Address /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Korea
Tel / 82-2-2220-1432~4
Fax / 82-2-2220-1435
http://www.press.hanyang.ac.kr
Date / Dec. 31, 2020

한국생활과학연구
제40권 pp.3-12 (2020)

도시한옥 안마당의 '제3의 공간' 특성 연구

: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hird Space' Characteristics of Inner Court in Urban Hanok :Focus on the Guest House and Cafe

함 정 식, 노 이 경*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실내건축디자인학과
Ham, Chong sik, Noh, Yi kyung*
Department. of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revision of the hanok policy in 2016 and the expansion of support, a number of cases for regenerating hanok as commercial spaces are being used as space marketing. Moreover as social network services develops, the urban hanok owners utilize the inner court for marketing as advertisement means. However research marketing perspective on inner court in urban hanok is insufficient. For case study, this research selects two types of urban hanok that regenerated as a guest house and cafe respectively for analyzing the inner court, and use the third place concept as an analyze tool, which is represented by sociological and marketing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convergen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he thir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inner court. Convergence is related to designing with modern elements in Korean traditional form ,which is a main factor in attracting customers. Convergence is a design element that stimulates new emotions of customers and maninly shared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The lowest score factor was storytelling. This is because the main focusing is on the tangible form rather than the intangible form of the inner court and such result in case study is noticeable in cafes.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be a successful strategic if the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the research is applied to space planning and the differentiation of inner court in urban hanok is gradually becoming an element for promoting sales and marketing.

Key words : Urban Hanok, inner Court, The Third Place, Guest House, Cafe
주제어 : 도시한옥, 안마당, 제3의 공간, 게스트하우스, 카페

Ⅰ. 서론

개항 이후 한옥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 수요의 폭증으로 단시간에 대량 공급이 가능한 유형으로 변형이 요구되었다(강영환, 2004). 이에 한옥은 전통성을 답습하거나 근대화를 받아들이면서 현재의 도시한옥으로 발전하였다. 도시한옥은 2008년 서울시의 한옥 선언을 기점으로 한옥지원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용 도시한옥의 재생과 보수 사례가 증가하였다. 2016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점됨에 따라 한옥 재생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확대되면서 주거용 도시한옥의 재생에 집중되었던 관심이 최근 도시한옥의 원형은 유지하면서 공간의 감성적 요소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비주거용 공간으로 재생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상업 용도에 따라서 도시한옥의 공간적 특성을 강조하여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도시한옥의 안마당은 도심의 주택에서 경험하기 힘든 한옥 고유의 어메니티를 제공하고 있다. 안마당은 지붕의 채와 채가 얽히면서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정원이나 테라스와 같은 다양한 감성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권미선 외, 2009). 또한, 최근 현대의 소비자들은 서비스나 식음료의 맛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성을 경험하기 위해 '제3의 공간'을 찾아 방문하고 있다. '제3의 공간'은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의도된 연출로써 체험 공간과 정서적 부가가치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마케팅적 관점의 '제3의 공간'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제3의 공간'의 관점에서 도시한옥 안마당은 아파트나 1인 공동주택 등의 콘크리트 모듈 환경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새로운 공간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된 도시한옥의 공간을 '제3의 공간'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재생된 도시

* Corresponding Author ; Noh Yi kyung
Tel : 82-10-2286-1846, E-mail : noh2k@hanyang.ac.kr

한옥 안마당을 '제3의 공간' 관점으로 현장 사례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공간 연출 전략을 찾아 분석한다. 그리고 추후 '제 3의 공간' 관점에서 도시한옥의 재생과 공간 연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시한옥의 재생을 통해 상업공간에 나타나는 공간, 경험, 정서적 가치를 '제3의 공간'의 관점으로 사례분석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도시한옥의 재생이 활발히 도입되기 시작한 2016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대한 조례」개정 이후 상업 시설로 재생된 도시한옥 게스트하우스 2곳과 카페 3곳을 사례조사의 대상 범위로 선정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한옥의 재생 경향과 도시한옥의 안마당과 '제3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였다. 또한, 분석의 틀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안마당과 제3의 공간의 특성을 추출하여 사례분석의 틀을 작성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현장 사례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사례조사를 위해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방문하여 안마당의 사진 촬영과 함께 사례조사 분석의 틀을 통해 평가하였다. 조사 대상의 평가 내용은 안마당의 공간 재생 특성, 자연적 요소, 공간 배치 특성, 디자인 요소, 체험적 요소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종합하고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재생된 도시한옥에서 안마당이 가지고 있는 '제3의 공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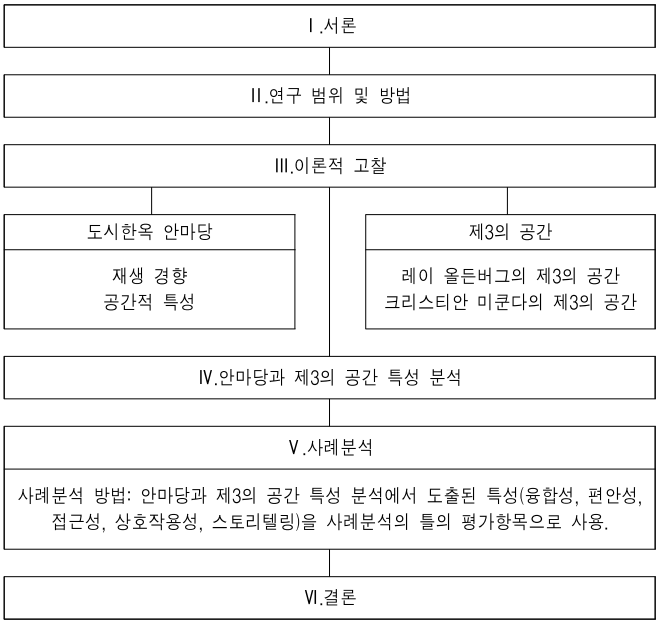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III. 이론적 고찰

1. 도시한옥 안마당의 재생

최근 도시한옥의 재생 경향은 보존을 통해 형태와 명맥을 유지·보존하여야 하는 전통한옥과는 다르게 공간의 활용 용도와 기능에 따라 현대적인 요소를 적용하여 반영시키고 있으며 안마당 또한 이와 같은 경향을 따르고 있다.

도시한옥의 공통적인 재생 경향에는 오래된 공간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뉴트로(New-tro)가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정예솜, 2020), 새로움과 복고의 합성을 통해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고 과거의 환경을 모르는 밀레니엄 세대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였다(김난도 외, 2018). 즉, 누적된 세월의 흔적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마감재, 콘텐츠 등으로 새로운 감성으로 공간을 재생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한옥의 안마당은 독립된 공간으로서 용도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뉴트로를 바탕으로 감성, 체험 디자인 같은 공간의 기획 의도에 따라 공간 재생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카페로 재생된 도시한옥 안마당의 재생에 대해 이진형(2013)은 외관은 한옥과 현대적 소재인 유리나 철, 타일 등의 마감재가 어우러진 구조와 기둥은 나무, 지붕은 한옥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생시키고 있으며, 지붕의 끝과 대면하고 있는 안마당은 매개공간으로서 주로 처마 밑 공간을 활용하여 중정 정원의 테라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현(2016)의 연구에서는 안마당은 상업공간의 정체성에 따라 분위기를 연출하는 오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감성적인 요소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면 유리창 등을 설치하여 안마당의 오브제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게스트하우스로 재생된 안마당에 대해 박지혜(2014)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개방형 구조의 재생과 중정형의 넓은 마당과 마루의 조성을 통해 자연스러운 문화접촉을 할 수 있는 공간 재생을 한다고 하였다. 문진이(2015)는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게 개조한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대부분의 안마당과 대청을 라운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홍식(2011)은 게스트하우스 각 실의 창호가 안마당을 향해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사계절에 따른 자연의 다양한 변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시각적 확장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도시한옥의 상업용도 별 재생 경향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도시한옥 안마당은 카페, 게스트하우스 같은 용도에 따라 발생하는 재생 경향과 공간 기획 의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뉴트로 감성은 최대한 유지 시키며 현대적 콘텐츠, 마감재 등을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Table 1. 선행연구를 통한 상업 용도별 도시한옥의 재생 경향

상업용도	저자(년도)	내용
공통	정예솜(2020)	뉴트로(New-tro)
	김난도 외(2018)	뉴트로를 통해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
	이진형(2013)	도시한옥의 본 마감재와 현대적 마감재의 조화 안마당을 중정의 정원 테라스로 활용
카페	이상현(2016)	안마당을 분위기 연출을 위한 오브제로 사용 창호대신 전면 유리창을 설치
	문진희(2015)	안마당의 개방성을 높이고 라운지로 활용
게스트 하우스	박지혜(2014)	중정형의 넓은 마당 조성
	김홍식(2011)	안마당에 한국식 정원을 조성 각 실의 창호가 안마당을 향해 열리도록 재생

3. 도시한옥 안마당의 공간적 특성

선행연구를 통해 도시한옥의 안마당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조성진(2006)은 현대 도시한옥에서 안마당은 주택 내 시각적 확장과 개방적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손세관(1994)은 안마당이 매개공간으로서 가지는 특징에 대해 회랑, 툇마루 등 서로 다른 공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연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현옥 외(2006)는 확장성을 가진 생활공간으로서 외부이지만 실내생활이 연장되는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다른 의미에서 확장성은 자연적 요소와의 융합을 통해 거주자들은 생물학적 쾌적성으로 인해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광호(2003)는 도시한옥의 공간적 이원성에 대해 가사작업이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마당을 이용하며 부족한 실내공간을 보완하고 있다고 하였다.

도시한옥 안마당의 특성에 대해 도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빈도수 결과 확장성이 6회로 가장 많았고 상징성과 쾌적성이 5회, 연결성이 4회의 순서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중심성과 융통성, 이원성은 각 3회로 가장 낮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한옥은 도시의 근대화 정책을 거치며 건축물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도시한옥으로 개량되었고, 안마당 또한 사회의 인구 구조와 가구, 상업 유행의 변화에 대응하며 본래의 상징적인 형태는 유지하면서 용도에 따른 요구와 기호에 따라 기능적 확장과 쾌적성을 위한 공간 연출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도시한옥 안마당의 특성

연구자(년도)	상징성	중심성	확장성	연결성	쾌적성	융통성	이원성
정다훈(2018)	●	●	●				●
정기황(2015)	●			●	●		●
이나리(2014)		●	●	●	●	●	
김석우(2010)	●				●		
박현옥 외(2006)	●	●	●		●	●	
조성진(2006)			●	●	●		
신광호(2003)	●		●				●
손세관(1994)			●	●		●	

4. 제3의 공간의 이해

'제3의 공간(The third space)'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레이 올든버그(Ray Oldenburg)에 의해 대중적인 시설을 개인의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으로 연출하는 개념과 이후 크리스티안 미쿤다(Christian Mikunda)에 의해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는 '제3의 공간' 개념이 자리 잡았다.

'제3의 공간'이란 용어는 미국 웨스트 플로리다 주립대학 명예교수이자 사회학자인 레이 올든버그가 1989년 「The Great Good Place」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3의 공간'은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마음에 드는 공간을 말한다(박성신, 2007). 또한, 올든버그는 제3의 장소로서 매력적인 장소가 되기 위한 조건을 다음 [Table 3]과 같이 명시하였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장소들이 갖는 특징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휴식과 재충전을, 심리적 안정감으로 삶의 균형, 만남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문근이, 2014).

Table 3. 레이 올덴버그가 제시한 제3의 공간의 조건

조건	내용	Personal benefit
중립성과 평등성	학벌이나 직업, 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한 차별이 없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장소	
활동성	소통을 통한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	새로운 경험 (Novelty)
접근성과 적합성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접근이나 사회적 모임의 규모를 선택 조절할 수 있는 장소	삶의 균형 (Perspective)
수용성	공통의 관심사나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친분을 쌓거나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	정신적 휴식과 재충전 (Spiritual Tonic)
유희성	끊임없이 유희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을 이끌어내는 장소	즐거운 만남 (Friends by the Set)
다차원성	집과 같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소	

크리스티안 미쿤다는 올든버그의 제3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제3의 공간의 필수적인 요소는 체험이며, 체험을 제공하는 감각적인 장소들이 가져야 하는 요건으로 마케팅 관점에서의 체험과 관련된 전략적 연출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쿤다의 제3의 공간이 지녀야 하는 개념은 랜드마크(Land Mark), 몰링(Malling), 컨셉트라인(Concept Line), 코어어트랙션(Core Attraction)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크리스티안 미쿤다 외, 2004).

이와 같이 미쿤다는 상업공간은 소비를 통한 상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장으로서 상품의 소비가 이루어지며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해석에 의한 '공간 자체의 소비'를 동반한다고 하였다(박성신, 2007).

Table 4. 크리스티안 미쿤다의 제3의 공간

요소	내용	Personal benefit
랜드마크 (Land Mark)	공간의 상징물은 사용자에게 주목성을 이끌어 냄 상징물은 이야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함	
몰링 (Malling)	공간 내부에 중심축을 강조함으로써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장소를 다닐 수 있어야 함	
컨셉트라인 (Concept Line)	공간이 하나로 인식되려면 일관된 중심 콘셉트가 필요함 과거의 재료와 건축물들은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현대적인 것들이 장소에 동화되도록 함	새로운 경험 공간의 분위기 소비
코어어트랙션 (Core Attraction)	극적인 자극을 주는 공간 연출로 방문객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신체적 감각을 자극하여 다양한 자극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제3의 공간은 방문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조건 또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3의 공간이 제공하는 경험은 개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친숙한 공간이지만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아 새로움 속에서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끼게 만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문자가 공간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제3의 공간은 공간과 방문자 사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함으로써 일상의 경험에서 벗어난 또 다른 감성을 자극하여 극적인 경험 효과를 끌어내는 공간이다. 이것은 공간과 방문자, 방문자와 방문자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고 공간을 방문하는 목적과 가치를 형성시켜 공간에 대한 충성도를 높인다. 이러한 제3의 공간은 최근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잠재해 있는 공통의 감각을 판단하고 공동의 가치로 묶이고 표현될 수 있도록 공간으로 만들어 최대한 많이 공유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Ⅳ. 제3의 공간 특성 분석

1. 제3의 공간 특성

본 연구는 앞선 이론에서 살펴본 제3의 공간의 개념을 대입하여 상업공간으로 재생된 도시한옥의 안마당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올든버그와 미쿤다가 설명하고 있는 제3의 공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Table 5]와 같이 특성을 도출하였고 안마당의 공간적 특성과 도출된 제3의 공간의 관점을 종합하여 사례분석을 위한 사례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제3의 공간의 특성을 키워드로 추출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이정미(2012)는 올든버그의 사회적 관점에서 공간의 특성을 평등성, 접근성, 유희성, 편안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윤정(2008)과 문근이(2014)는 올든버그의 사회적 관점에 접근성, 개방성 그리고 미쿤다의 마케팅적 관점 중 체험적 요소인 스토리텔링과 상징성을 더해 제3의 공간의 특성을 정의하고 있었다. Pak Natalia(2018)는 제3의 공간은 새로운 경험(Leveler)을 제공하고 이용객을 단골손님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김운걸(2015)은 오래된 건물이 도시의 융합(융합성)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제3의 공간을 다양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김재학(2018)은 제3의 공간의 다양성에 마케팅적인 요소를 더해 이용객의 체험과 감성적 공감을 통한 상호작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연구의 대부분이 올든버그의 사회적 관점인 편안함, 평등성, 상호작용성, 다양성, 유희성을 제3의 공간의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었고 체험 위주의 공간 설계와 기획으로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경험과 감성 소비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쿤다의 제3의 공간의 마케팅 관점 또한 다루고 있었다.

Table 5. 제3의 공간의 특성 선행연구

연구자(년도)	제3의 공간의 특성
김운걸(2015)	융합성, 다양성
이아로(2019)	편안성, 상호작용성, 다양성
이정미(2012)	평등성, 접근성, 유희성, 편안성
문근이(2014)	편안성, 개방성, 상호작용성, 유희성, 다양성, 접근성, 스토리텔링, 상징성
Pak Natalia(2018)	개방성, 소통성, 접근성, 편안성, 유희성, 안전성, Leveler 단골손님
김재학(2018)	상호작용성, 다양성
이윤정(2008)	편안성, 유희성, 다양성, 개방성, 접근성, 스토리텔링, 상징성

2. 제3의 공간 특성 도출

본 연구에서는 [Table 2]의 도시한옥 안마당의 특성 중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확장성, 상징성, 쾌적성, 연결성을 [Table 5]에서 도출된 편안성, 융합성, 접근성, 상징성, 상호작용성, 다양성, 스토리텔링, 유희성과 종합하여 도시한옥 안마당의 제3의 공간의 특성을 도출하였고 이것은 [그림 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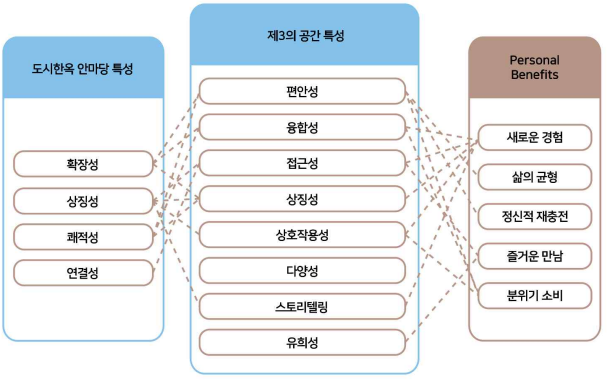


그림 2. 재정의 된 제3의 공간

안마당의 확장성은 공간의 시각적 확장과 기능의 확장을 의미하여 이러한 특징은 올든버그의 제3의 공간의 관점에서 편안성, 융합성, 다양성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상징성은 공간 전체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특성으로서 안마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3의 공간에 대한 미쿤다의 상징성, 상호작용성, 스토리텔링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쾌적성은 안마당의 자연적 요소 또는 이질적 공간을 감상 및 경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신적 안정과 기분의 전환 등을 의미하며 올든버그의 편안성, 스토리텔링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연결성은 제3의 공간의 접근성과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례분석과 사례분석의 틀 작성을 위해 도출된 도시한옥 안마당의 제3의 공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융합성

제3의 공간은 다양성을 가진 공간이다.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도시이론 속의 제3의 공간에 대해 도시의 다양성은 오래된 건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제인 제이콥스 외, 2010), 오래된 건물은 인간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 원료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되고 있으며, 이것은 도시의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박주현, 2017). 또한, 안마당이 가지는 특유의 형태, 물성, 색채 등은 현대의 새로운 재료, 마감재와 만나 공간에 다양한 성격을 부여한다고 하였다(김지현 외, 2017).

2) 편안성

제3의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이용자들이 집과 같이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문근이, 2014). 올든버그는 제3의 공간에 대해 인위적 연출이 없는 편안한 공간으로 구분을 했고 오랜 시간 머물러도 편안한 곳으로 정의한다(Pak Natalia, 2018). 미쿤다 또한 올든버그의 개념을 발전시켜 인위적 공간 설계를 통해 상업공간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3의 공간과 도시한옥의 안마당은 편안성과 쾌적성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안마당의 자연 친화적 요소는 삭막한 도심에서 쾌적한 공간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3) 접근성

접근성은 방문객의 거주지로부터 가까워야 지속적인 방문이 가능하며 먼 거리의 경우 다른 손님들과 교류의 가능성이 낮다(김재한, 2018). 이정미(2012)는 제3의 공간에 대한 접근성의 거리를 설명함과 동시에 장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으며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한 장소라고 하였다. 미쿤다는 제3의 공간의 중심축을 강조함으로써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크리스티안 미쿤다 외, 2004).

따라서 도시한옥 안마당의 개방적 구조는 도시한옥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공간들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장소를 돌아다닐 수 있게 공간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4)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은 상업공간과 소비자 사이의 감정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 디자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것은 고객의 경험적, 미학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문근이, 2013). 이에 도시한옥의 안마당은 공간의 중심축으로서 공간 전체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용객은 이러한 첫인상이 제공하는 분위기를 소비하며 공간과 상호작용한다.

5) 스토리텔링

제3의 공간에 대한 올든버그와 미쿤다의 공통적인 Personal Benefit은 새로움(Novelty)이다. 특히 미쿤다는 새로운 공간에서 이용자가 경험하는 새로운 분위기의 소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김인호(2016)는 건축물 내부에 남아있는 오랜 흔적들은 공간 디자인의 스토리텔링 요소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최근 도시한옥의 안마당을 상업공간의 목적과 재생 방식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달리하여 여러 형태의 디자인으로 재생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

도시한옥의 안마당의 제3의 공간 특성에 대한 항목과 세부내용은 다음의 [Table 8]과 같다.

Table 8. 도시한옥 안마당의 제3의 공간 특성 및 세부내용

특성		세부내용
1	융합성	·공간의 재생 ·시간의 흔적으로 인한 비일상적 및 비형식적 경험의 확장 ·현대적 마감재의 사용(유리, 타일, 특수창호 등)
2	편안성	·신체적 편안함(의자, 벤치의 사용 등) ·자연 친화적 요소
3	접근성	·도시한옥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성(대중교통, 주차장 등) ·공간에 대한 공통의 사용성 ·공간의 시각적 개방감 ·중심축(유기적 형태의 동선 사용)
4	상호작용성	·공간(상징 구조물 및 상징 오브제) 디자인 ·방문객에게 체험의 기회 제공
5	스토리텔링	·공간의 형상화(아이덴티티, 브랜딩 등)

3. 사례분석의 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도시한옥 안마당의 제3의 공간 특성은 융합성, 편안성, 접근성, 상호작용성, 스토리텔링이다. [Table 8]에서 도출된 세부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위한 평가 내용으로 확장 시켰으며 평가방법은 안마당에 나타나는 제3의 공간의 특성을 빈도로 정량화하여 100~71%를 나타내면 ●(충족: 5점), 70~31%를 나타내면 ◐(보통: 3점), 30~0%를 나타내면 ○(미비: 1점)으로 평가하였다.

사례분석의 틀을 작성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9]와 같다.

Table 9. 도시한옥 안마당의 공간 특성 사례분석의 틀

특성		평가 내용
융합성	F1	안마당에서 해당 도시한옥에 대한 세월의 흔적을 인지할 수 있는가?
	F2	재생 및 수선 과정에서 현대적 마감재가 사용되었는가?
편안성	C1	안마당에 자연적 오브제가 존재하는가?
	C2	안마당에 자연적 오브제 외에 정신적 휴식과 재충전의 역할을 하는 오브제 또는 시설이 존재하는가?
	C3	안마당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툇마루 또는 의자 등이 존재하는가?
접근성	A1	해당 도시한옥은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이용이 가능한가?
	A2	안마당은 공간의 중심축이며 유기적 형태의 동선을 사용하는가?
	A3	동선에 장애물이 존재하는가?
상호작용성	I1	안마당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상징적 공간, 디자인 또는 오브제가 존재하는가?
	I2	체험을 통한 공간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가?
스토리텔링	S1	공간과 연관된 스토리텔링이 존재하는가?
	S2	이것은 이용객의 경험 또는 체험으로 확장되는가?

Ⅴ. 사례분석

1. 조사대상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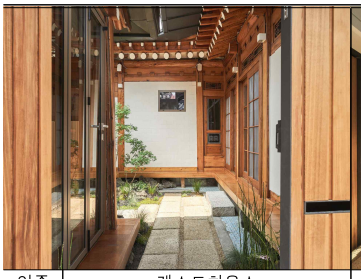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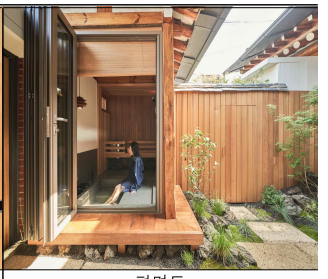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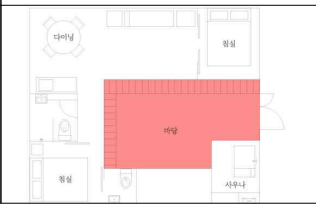
본 연구는 기존 주거 중심의 도시한옥을 재생하여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운영 중인 도시한옥 안마당에서 나타나는 제3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지는 2016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후 비용지원을 받아 도시한옥을 재생하였으며 서울시 종로구 한옥밀집지역에 위치하는 사례로 선정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지에 대한 개요는 다음의 [Table 10]과 같다. 조사사례에 대한 평가는 현장 방문을 통해 2020년 05월 22일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되었다.

Table 10. 사례분석 대상지 개요

용도	분석대상	위치	재생년도	연면적
게스트하우스	A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2020	42.98㎡
게스트하우스	B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019	37.27㎡
카페	C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2019	68.82㎡
카페	D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2018	56.20㎡
카페	E	서울시 종로구 계동	2017	485.84㎡

2. 사례분석

Table 11. 사례A

사례A		
		
업종	게스트하우스	평면도
개요	폐업 신고된 도시한옥을 매입하여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부분 재생과 수선 과정을 거쳐 2020년 6월 본 형태로 개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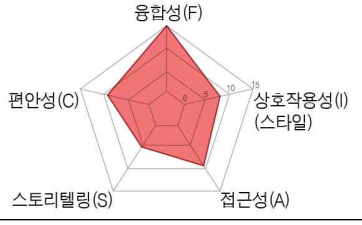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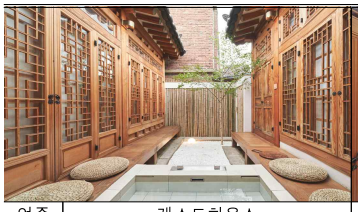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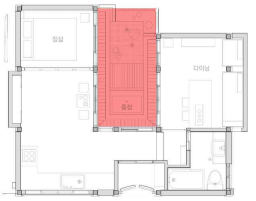
구분	평가	안마당의 제3의 특성 평가 내용
F1	●	툇마루와 본 채의 창호, 기둥에서 한옥 특유의 시간 누적에 대한 무늬와 구조체의 변형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마당 바닥은 재생과정에서 추출된 대리석을 재사용하여 공간의 역사성을 유지하고 있다.
F2	●	본 채의 벽면 마감재로 현대식 타일을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특수창호를 사용하여 전통적 마감재와 현대적 마감재의 융합에서 발생하는 비일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C1	●	안마당의 정원을 다양한 식생 및 현무암으로 조성하고 있다.
C2	●	기존 안마당의 공간에 사우나실을 별채로 기획하여 안마당의 정원과 한옥의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C3	●	툇마루가 안마당을 ㄱ자로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처마의 끝을 연장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툇마루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A1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도보로 약 210m 떨어져 있으며, 약 3여분이 소요된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다. 전용 주차공간이 없어 신교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주차장에 본 게스트하우스까지 865m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 12분이 소요되어 자차 이용 시 접근성이 좋지 않다.
A2	●	재생을 통한 별채의 신축으로 ㅁ자 형태로 변형된 안마당은 중정의 형태로서 중심축과 유기적 동선을 사용하고 있다.
A3	○	안마당으로 향하는 대문의 문지방을 없애 접근성을 높이고 있지만, 바닥과 툇마루, 주춧돌과 툇마루의 높이 편차로 인하여 고령자 또는 영유아, 임산부 등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예상된다.
I1	●	안마당 정원의 자연 오브제가 안마당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I2	●	사우나와 족욕탕을 이용함과 동시에 시각적으로 안마당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S1	○	도시한옥 또는 안마당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S2	○	스토리텔링에 의한 공간의 구성 및 경험의 확장이 아닌 안마당 내에 조성된 편의 시설에 대한 직접적 체험으로 인한 경험의 확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총점	46	

Table 12. 사례B

사례B		
		
업종	게스트하우스	평면도
개요	해당 도시한옥은 1960년대에 건축되어 주거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2019년 사업주가 본 한옥을 매입하고 게스트하우스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브랜딩과 부분 재생 및 수선을 거쳐 현재의 ㄷ자 형태의 배치와 중정형의 안마당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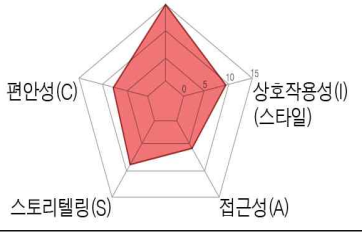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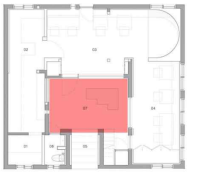
구분	평가	안마당의 제3의 특성 평가 내용
F1	●	안마당을 ㄷ자로 둘러싸며 본채를 받히고 있는 대리석의 초석은 사방이 닳고 벽색이 되어있고 기둥과 상방, 띠살무늬 덧문 등의 나무는 특유의 물성으로 인한 변형을 통해 구조체가 가진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F2	●	안마당에 사용된 가공된 자갈 바닥과 족욕탕에 사용된 타일은 본채의 주춧돌과 톤 앤드 톤(tone and tone)을 유지하고 있어 공간 특유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C1	○	안마당에 자작나무 한 그루를 배치했지만,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자연적 오브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C2	●	안마당에 있는 족욕탕에 발을 담그고 한옥의 정취를 느끼며 피로를 풀 수 있는 경험을 이용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C3	●	안마당을 감싸고 있는 ㄷ자 형태의 툇마루와 함께 본채의 모든 창호가 안마당을 향해 개폐할 수 있어 실내의 어느 곳에서든 앉아서 안마당의 정경을 감상할 수 있어 실내에서도 툇마루의 기능적 확장이 가능하다.
A1	○	가장 인접한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약 213m 에 위치해 있다. 전용 주차공간이 없어 신교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주차장에서 본 게스트하우스까지 943m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 15분이 소요되어 자차 이용 시 접근성이 좋지 않다.
A2	◐	중정 형태의 ㄷ자 안마당은 모든 공간의 중심축으로서 시각적 개방감과 함께 유기적 동선을 사용하고 있다.
A3	○	대문에서 안마당까지 이어지는 경로에 높은 문지방과 자갈 바닥으로 인하여 휠체어나 유모차를 대동한 이용객은 불편함이 예상된다.
I1	●	ㄷ자 형태의 안마당의 끝 중앙에 위치한 족욕탕은 '책'과 '휴식'을 모티브로 하는 해당 게스트한옥의 상징물이다.
I2	●	방문객들은 안마당에서 노천 족욕을 즐기며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전통 다과상과 안마당의 정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고 있다.
S1	●	세종대왕이 공직자에게 사색을 위해 주었던 휴가제도인 사가독서를 모티브로 책과 휴식을 함께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S2	●	독서, 휴식과 연관된 경험 콘텐츠들이 안마당 내에서 족욕, 책, 음악, 다과의 형태로 이용객에게 제공되고 있다.
총점	46	

Table 13. 사례C

사례C		
업종	카페	평면도
개요	ㅁ자 중정 형태의 안마당이 있으며, 부분 재생과 수선 후 2019년 용도 변경하여 개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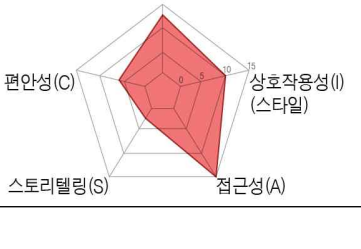
구분	평가	안마당의 제3의 특성 평가 내용
F1	○	재생과 개보수를 거치며 본채와 별채의 처마를 제외한 본래의 형태는 찾아보기 힘들다.
F2	●	안마당의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중정형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벽과 그 안에 조성된 작은 정원, 한옥의 처마 끝, 그리고 실내공간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는 전면 유리창이다. 특히, 유리를 통해 보이는 실내의 기둥, 서까래, 추녀, 조명 등이 처마의 끝과 색상의 톤을 함께 하고 있고 이것은 정원의 자연물들과 이질적이지 않게 서로 융화되고 있다.
C1	●	정원에는 현무암과 함께 이끼 단풍나무, 갈대 등이 정원의 요소를 이루고 있다.
C2	○	정원을 통한 시각적 쾌적함 이외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는 찾기 힘들다.
C3	○	재생과 개보수 과정에서 안마당의 툇마루를 제거해 별도의 앉을 수 있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A1	●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161m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 약 2분 내외로 소요되며, 한옥 밀집 구역 특성상 별도의 전용 주차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의 주차장을 이용해야 했었다. 주차장에서 본 매장까지는 290m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 4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자차 이용 시에도 불편함이 없다.
A2	●	ㅁ자 형태의 중정형 안마당으로서 카페 내의 모든 동선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가능했다. 또한, 시각적 개방성으로 마당의 중심에서 모든 공간의 배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로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A3	●	공간으로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안마당의 곳곳에 한옥에서 보이는 높은 문지방이나 턱 등이 없어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동이 수월했고, 노약자나 유아 등의 이동에 큰 제약이 없다.
I1	●	매장의 입구와 안마당의 벽에 카페의 상호와 간판 역할을 하는 로고가 배치되어 있고, 안마당에서 보이는 본 채의 전면 유리창을 통해 매장 전체의 스타일을 주관하고 있는 작품을 볼 수 있다.
I2	○	안마당에서의 직접적 체험 또는 경험으로 확장되는 콘텐츠 또는 오브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S1	●	본 매장은 북유럽의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공간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고 스토리텔링으로 확장하고 있다.
S2	○	실내에 매장의 모든 정체성을 일임하고 있는 추상적인 전시물이 있었지만 본 작품의 영향력은 실내공간에만 미치고 있었고, 안마당에는 이 작품과 연관된 상징물이나 이용객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콘텐츠의 확장은 없다.
총점	40	

Table 14. 사례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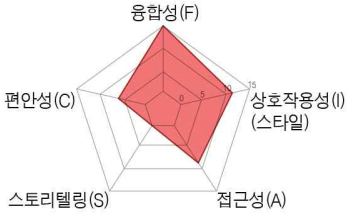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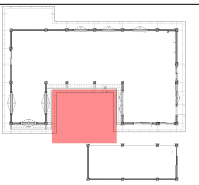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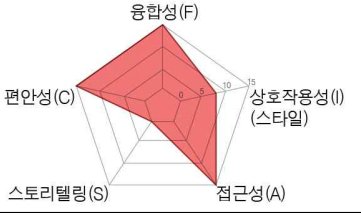
사례D		
업종	카페	평면도
개요	2018년 부분 재생을 통해 안마당의 천장을 제거하여 자연광이 유입되도록 하였고 공간 정리를 통해 ㄱ자 형태의 안마당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구분	평가	안마당의 제3의 특성 평가 내용
F1	●	외관을 해치지 않으며 기존 도시한옥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였다. 특히, 재생과정에서 본채의 기둥과 주춧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F2	●	재생과정에서 ㄴ자 형태의 안마당을 유리와 철골 구조로 내실화하였다. 안마당의 바닥과 정원에 가공된 특수 대리석과 유리 등을 사용하고 있다.
C1	●	재생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C2	○	별도의 정신적 휴식과 재충전의 역할을 하는 오브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C3	◐	재생을 통해 기존 툇마루를 드러내고 정원 주변으로 일부 별도의 좌석과 테이블을 만들어 방문객이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A1	◐	가장 근접한 대중교통 수단은 지하철 5호선으로서 약 185m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도보로는 약 2분이 소요된다. 가장 인접한 종로3가역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카페까지는 약 242m 떨어져 있었으며 도보로는 약 10분이 소요된다.
A2	●	해당 카페의 안마당은 중심축으로서 유기적 형태의 동선을 사용하고 있다.
A3	○	안마당과 연결되는 카페의 입구의 대문은 문지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이용객은 이동에 불편함이 예상된다.
I1	●	안마당과 이어지는 대문에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80, 90년대 서울의 이발소 간판을 활용한 옥외 광고물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공간 전체를 상징(New-tro)하고 있다.
I2	○	안마당 내에 별도의 체험 공간 또는 오브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S1	○	누적된 시간의 상징적인 요소들은 실내의 디자인 역할만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스토리텔링의 요소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S2	○	공간 내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는 기획되어 있지 않았다.
총점	40	

Table 15. 사례E

사례E		
업종	카페	평면도
개요	1934년 ㄷ자 형태의 도시한옥으로 완공되어 한의원, 한정식 식당 등으로 용도변경을 거치며 한동안 방치되다 2018년 재생 작업을 거쳐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구분	평가	안마당의 제3의 특성 평가 내용
F1	●	오랜 기간 용도변경의 과정에서 상실한 도시한옥 원래의 형태를 최대한 복원 시키고자 한 흔적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매끄럽지 않은 불법 증축의 흔적 또한 일부분 남겨두어 해당 도시한옥의 역사로서 보존하고 있다.
F2	●	ㅁ자의 중정형 안마당과 맞닿아 있는 공간들의 분할을 위해 가벽 설치 또는 부분신축을 하는 것이 아닌, 실외에서 실내가 그대로 투영되는 소재로서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C1	◐	5월과 6월에는 계절 이벤트로서 안마당 면적의 약 90%를 차지하는 공간에 민들레 정원을 조성해 놓고 있다.
C2	○	정원 외에 별도의 정신적 휴식과 재충전의 역할을 하는 오브제 또는 시설은 조재하지 않는다.
C3	●	안마당의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툇마루는 ㄷ자 형태의 본채를 따라 조성되어 있다.
A1	◐	안국역 3번 출구에서 약 88m 떨어져 있었으며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1분가량 소요되며, 별도의 주차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했었다. 가장 가까운 주차장은 118m 떨어져 있었으며, 1분가량 소요된다.
A2	●	커피를 마시는 공간인 ㄷ자 형태의 대청과 커피, 베이커리의 주문을 하는 별채로의 이동이 모두 안마당을 통해야만 가능한 동선을 사용하고 있다.
A3	◐	카페의 최초 입구에서 안마당까지 문지방 또는 턱 등을 제거해 노약자, 영유아 또는 휠체어, 유모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지만, 안마당에서 대청의 툇마루로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가 매우 높아 노약자 또는 장애인의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I1	●	안마당에 민들레 정원으로 조성해 카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2	○	체험을 통한 공간의 분위기를 경험할 콘텐츠는 존재하지 않는다.
S1	○	해당 건축물이 가진 역사적 이력에 대한 소개 외에는 특별한 스토리텔링은 존재하지 않는다.
S2	○	안마당 또는 안마당의 특정 요소가 브랜드 또는 공간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사용되거나 체험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S3	○	공간 내에 이용객의 호기심을 자극해 자발적인 참여 또는 체험을 유도하는 콘텐츠는 존재하지 않는다.
총점	39	

3. 분석의 종합

상업공간으로 재생된 도시한옥 안마당의 사례조사를 통해 제3의 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14]와 같다.

Table 16. 제3의 공간 사례분석 결과

분석대상	융합성		편안성			접근성			상호작용성		스토리텔링		총점
	F1	F2	C1	C2	C3	A1	A2	A3	I1	I2	S1	S2	
A	●	●	●	●	●	◐	●	○	●	●	○	○	46
B	●	●	○	●	●	○	◐	○	●	●	●	●	46
C	○	●	●	○	○	●	●	●	●	○	●	○	40
D	●	●	●	○	◐	◐	●	○	●	○	○	○	40
E	●	●	◐	○	●	◐	●	◐	○	○	○	○	39
총점	46		55			49			36		22		

제3의 특성을 통한 도시한옥 안마당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융합성과 편안성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높게 도출되었다. 도시한옥의 사용 목적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의 재생 및 개보수를 통해 도시한옥과 안마당이 보여주는 시간의 누적에 대한 상징적인 형태를 현대적 감성의 경험 콘텐츠와 마감, 실내 디자인 용품 등으로 융화시킴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감성을 자극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의 경우 대부분 사례에서 낮게 평가되었는데 주된 이유로는 한옥 밀집 구역의 지리적 특성상 별도의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없고 도시한옥의 구조적 특성상 안마당으로 이어지는 대문의 높은 문지방과 초석, 주춧돌 등으로 생기는 단차로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대동하는 이용객의 경우 이동에 제약이 생겨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례C와 사례E의 경우 대문의 문지방을 제거하고 높이가 일정한 가공된 석판을 안마당에 깔아 놓거나 시멘트로 시공하여 방해물을 줄이고 있었다. 또한, 안마당의 평면유형이 본채의 구조적 형태에 따라 중정형의 ㅁ자, ㄷ자, ㄱ자로 나타났고 이러한 형태는 안마당이 공간의 중심축으로서 이용객의 모든 동선에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편안성의 경우 게스트하우스인 사례A와 사례B에서 높은 점수로 분석되었다. 두 곳 모두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정원 또는 수 공간 등의 자연 요소를 안마당의 중심 콘텐츠로서 조성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자연소재를 감상하며 시각적 쾌적함으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툇마루와 같은 한옥의 전통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성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사례A와 사례B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안마당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상업의 형태에 따른 이용객의 직접적 체험 또는 분위기의 소비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카페의 경우 상업 형태의 제약으로 안마당의 상징적인 공간 또는 오브제가 대부분 감상의 대상으로 이용되면서 이용객의 직접적인 체험이나 경험으로의 확장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사례 6곳 모두에서 가장 취약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사례B는 해당 특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게스트하우스로 조선시대에 궁궐에서 임금이 관료들의 휴가를 직접 챙기는 풍습을 스토리텔링의 모티브로 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브랜딩과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었다. 스토리텔링은 이용객의 체험요소로 연결되어 이용객에게 특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Ⅵ. 결론

도시한옥의 안마당은 우리나라의 전통한옥과 달리 가옥의 중심축으로서 공간의 첫인상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휴식, 공간의 확장, 취미 공간 등의 다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다. 최근에는 도시한옥이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 시설로 재생 및 개보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도시한옥 안마당 또한, 상업 시설의 용도와 스타일에 맞게 재생되어 도시한옥 본연의 형태는 이어가면서 현대적 감성 요소와 경험적 요소를 더해 상업공간의 측면에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상업공간으로 재생된 도시한옥과 안마당을 '제3의 공간' 특성의 관점에서 사례분석 하였다. '제3의 공간'은 레이 올든버그의 사회학적, 공간적 관점과 크리스티안 미쿤다의 마케팅 관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색, 심리적 휴식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체험형의 공간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경험 또는 브랜드를 경험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최근 많은 서비스 공간들이 '제3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어 도시한옥의 재생과 공간 기획에서 전략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될 수 있으며, 공간의 활성화와 주변 상권 및 도시한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두 유형의 상업공간에서 융합성은 '도시한옥 안마당의 제3의 공간의 특성' 중 사례C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최고 평가점수인 10점을 획득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분석되었다. 융합성은 안마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 요소와 재생 방식 또는 마감 등의 현대적 요소와의 융합과 조화를 의미하는 특성으로서 도시에서는 접하기 힘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감성의 분위를 연출하며 공간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특성이다.

2. 사례분석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스토리텔링은 상업 유형에 따라 해당 특성보다는 융합성에 집중하여 감성적인 공간으로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상

업 유형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카페의 사례에서 안마당이 제공하는 첫인상을 통해 유동적인 고객들에게 공간 고유의 정체성과 차별화를 인식시키고 있었고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공간에 스토리텔링과 여유에서 비롯한 체험형 콘텐츠로 발전시켜 안마당을 더욱 감성적으로 풍부한 공간으로 연출하고 있었다.

3. 상업공간의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성은 편안성이었다. 모든 사례의 안마당에 정원, 수공간 같은 자연요소를 기획하여 툇마루, 대청마루에서 감상을 통한 시각적 쾌적함과 분위기를 전환 시키는 심리적 편안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자연요소는 공간의 아이덴티티와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었다. 이것은 감성 공간 연출 시 자연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제3의 공간의 특성으로서 쾌적하고 성공적인 공간 연출 전략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도시한옥의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안마당을 제3의 공간 특성을 통해 사례조사 하고 분석하였다. 도시한옥 안마당이 가지는 차별성이 상업공간의 매출 촉진의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3의 공간의 특성을 통해 도출된 안마당의 특성들을 공간 기획 시 적용한다면 상업공간의 이미지 형성과 브랜드가 추구하는 정체성에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의 틀을 작성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사례 연구이기는 하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현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도시한옥 안마당에서 느낄 수 있는 제3의 공간의 특성 또는 만족도 등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도시한옥의 재생 및 공간 마케팅의 분야에서 유의미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연환. (2004). 새로 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단행본

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최지혜, 이수진, 서유현. (2017). 트렌드 코리아. 2018. 미래의창. 단행본

김민석. (2015). 크리스티안 미쿤다의 공간 연출 기법에 대한 연구. 한밭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석우. (2010). 증·개축에 의한 개량한옥 주거 공간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마당의 내실화.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운걸. (2015). 제3공간 패러다임 변화에 기반한 스페이스 마케팅 연구. 홍익대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재학. (2018). 코워킹 스페이스의 제 3의 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디자인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홍식. (2011). 전통 문화 마케팅을 도입한 해외여행자의 게스텔 공간 계획.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미선, 김태영. (2009). 전통한옥 중정 영역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대학건축학회지**, **29(1)**, 455-458.

문근이. (2014). '제3의 공간'으로서 카페의 공간 연출 전략. 건국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진희, 유진형 (2015). 게스트하우스에서 활용 가능한 한옥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지**, **10(5)**, 69-78.

박성신. (2007). 공간 디자인마케팅의 전략과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주현. (2017). 서울 사대문안 도심 속의 제3공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혜. (2014).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나타난 한국적 감성표현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옥, 김현아, 백혜선, 이상미. (2006). 도시형 한옥의 안마당 사용실태에 관한 기초적 조사: 서울 북촌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지**, **6(2)**, 39-46.

신광호. (2003). 도시형 한옥 마당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주시 교동·풍남동 도시형 한옥을 중심으로. 우송대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일선, 김은경, 배영희, 이소정, 안효진. (1993). 미취학 아동의 편식지도를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8(2)**, 125-137.

이미향, 강상우, 이나리, 임경구, 한승훈. (2018). 한옥 지속가능성능 요소의 현대적 대응과 평가.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술지**, **2018(11)**, 254-255.

이아로. (2019). 제3공간에서 개인의 안정감 증대를 위한 행태심리 기반의 개인공간 디자인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미. (2012). 제3의 장소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유형별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1(5)**, 65-76.

이진형. (2013). 한옥카페에 나타난 실내디자인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기황. (2015). 서울 도시한옥의 적응태.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다훈. (2018). 삼청동의 컨텍스트를 고려한 게스트하우스 계획.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보선. (2020). 문화소비공간의 공간콘텐츠 마케팅 전략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진. (2003). 도시한옥의 주생활양식 사례조사 연구: 서울 북촌지역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hristian Mikunda, 최기철, 박성신. (2005). 제3의 공간. 미래의창. 단행본.

Pak Natalia. (2018). '제3의 공간' 특성으로 본 대학 내 스터디 공간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생활과학연구
제40권 pp.13-22 (2020)

몽골 전통 씨름 복식의 특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Fashion Design Applied to Mongolian Traditional Wrestling Uniform

어 유 나, 이 연 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Dembee Oyunsuren, Younhee Lee*
Master, Department. of Clothih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h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raditional Mongolian wrestling uniform is made using 3-layer broad stitching techniques that make the wrestling clothing strong and prevent tearing during games and perfect uniform is completed by sewing numerous lines, creating images of elegant shirees. This study developed and worked on fashion designs that utiliz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ongolian wrestling uniform that is perfected using the symbolic hand-crafted sewing techniques of folk culture and it attempted to develop strong, modern, and elegant female clothing designs. Research methods included surveys on literature and web sites and research on the history, characteristics, and symbolism of Mongolian wrestling uniform shirees through direct visits made to Mongolia. Based on this research, four female clothing designs were developed and produced. Conclusions made through piece production were as follows. First, fashion design production results that utilize the characteristics, symbolic meanings, and unique embroidery techniques of layered broad-stitching of Mongolian wrestling uniform using application methods of traditional folk uniform appropriately developed masculine images into modern fashion designs with elegant and strong female clothing images. Second, colors moved past those of traditional Mongolian wrestling uniform and design applications using high-class black and ivory-colored wool material combined well with traditional and symbolic 3-layered broad-stitching embroidery techniques of shirees. Shirees work using 3-layered broad-stitching of traditional folk culture was able to create added value using impressions of hand touches. Third, thought was given to the symbolic meanings of Mongolian wrestling uniform shirees and to finding an understanding of changes that move between happiness and hardships by making 3-layered broad stitches on shirees of 4 outfits and attempts were made to express the symbolism of wrestling uniform while counting the numbers of lines.

Key words : Traditional Mongolian wrestling uniform, 3-layer broad stitching, fashion design.
주제어 : 몽골 전통 씨름복식, 3겹 스티치 자수, 패션디자인

Ⅰ. 서론

몽골에는 'Naadam(나담)'이라는 축제가 열리며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나담에서는 씨름, 양궁, 말 경주 등의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는데 이 중 씨름은 몽골 국가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이다. 몽골 씨름 경기는 힘과 민첩성 뿐 만 아니라, 의식과 예술을 중요시 한다. 씨름의 손과 발을 사용하는 같은 예식 운동, 절차 및 복장에서 의식과 예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Kh. Nyambuu, 2002).

* Corresponding Author ; Youn-hee Lee
Tel : 82-2-2220-1195, E-mail :yiyhee@hanyang.ac.kr

몽골 씨름 복식은 7000-11000년 전에 시작된 민족 문화 유산으로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 문화이다. 몽골 국가 씨름은 인간 개발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몽골 씨름은 고대 암벽화에서 서사시, 축복, 찬송가, 동화 및 전설과 같은 민속에 관한 전설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의 예술가, 연구원 및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몽골 씨름 및 씨름선수 부흐의 복식 문화는 몽골인들 사이에서 연구 중인 새로운 과학 분야이다. 부흐는 몽골의 씨름 선수를 지칭하며 몽골의 문화를 축적한 큰 문화적 대상이다. 몽골 씨름은 스포츠, 축제 및 체육에서 처음으로 연구, 상속 및 개발되었다. 1990년대 몽골 씨름 연맹이 설립되었고 몽골 레슬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많은 책과 문헌이 출판되고 있다(Mongol Undesnii buhkiin barildaanii Durem.

2003).

몽골의 씨름 선수들이 착용하는 전통 씨름복은 특유의 특징을 가지며, 봉제 방법과 문양, 그리고 특유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몽골 씨름복의 튼튼한 봉제 방법은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수공예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씨름 경기를 할 때는 씨름복이 찢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봉제하기 위해 3겹으로 여러번 손바느질을 해주면서 특유의 쉬레스(shirees, Шир ээс)라는 자수 방법을 고안해 냈으며, 3겹으로 줄과 중심을 맞추고 직각의 형태로 만들어 가며 꼼꼼하게 수공예를 완성한다. 이러한 씨름복은 가장 완벽한 복장으로 간주된다(Altan-Ochir. 1986). 이와 같은 씨름복의 수공예 3개의 겹줄 자수법의 직각 문양은 몽골 민족문화의 상징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몽골 전통 씨름 복식은 수년 전부터 역사적 전통 문화가 있고 민속 예술을 완성해 왔다(B. Buyandelger, CH. Sukhbaatar, 2008). 몽골 전통 씨름 복식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씨름 복식에 대해서 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구나 기사도 부족하다. 몽골의 학술연구도 씨름 선수인 부흐의 씨름 기술, 문화 대해서 진행되고 있으나, 씨름 복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몽골 전통 복식의 하나인 몽골 전통 씨름복의 봉제 자수와 쉬레스 기법의 특성과 상징성을 조사하고 몽골 전통 씨름복 특성을 적용, 활용한 패션디자인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몽골 전통 씨름 복식 특유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미를 현대적 방법으로 제안하며, 전통 모티브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과 패션디자인의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역사적인 문헌, 영화들의 내용을 활용하였으며, 대학교의 도서관을 방문하여 몽골 씨름 관련 연구 논문을 수집하였다. 둘째. 몽골 국립 씨름 궁전의 기록 보관소를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 및 연구원들을 만나 몽골 씨름 복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또한 프로 부흐와 일반 부흐를 직접 만나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씨름복을 만드는 수공예 장인과 만나 정보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씨름복을 판매하는 매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구매자들의 의견과 정보를 수집하였다. 셋째, 이러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 씨름선수 부흐 복식의 특성를 활용한 여성복 패션디자인을 전개한다. 부흐의 수공예 자수 이미지를 활용하여 모던하고 우아한 여성복 4벌을 제작한다.

II. 몽골 전통 씨름 복식

1. 몽골 전통 씨름의 기원 및 발전

몽골의 전통 씨름 경기는 몽골의 국기(國技)이다. 한국의 태권도와 같은 위치의 예술 스포츠 경기라고 할 수 있다. 씨름 경기는 매년 7월에 열리는 나담 축제에서 볼 수 있다. 몽골 사람들은 씨름에 대해 큰 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2011년 9월 25일, 몽골 씨름 연맹은 기네스 세계 기록의 주도로 6002 씨름 행사를 조직했다.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는 21개의 골대와 몽골의 325개의 지역에서 온 선수들이 경쟁했다. 처음에는 4,096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하도록 계획되었지만 등록된 선수의 수가 6,000명을 초과하여 6,002명의 선수들이 9일 동안 13개 씨름 회전 스타디움에서 경쟁했다. Champion Ch. Sanjaadamda, S. Munkhbatd은 몽골 씨름의 놀라운 성공을 이끌었다(Mongolian National Wrestling in Gunness Word Record).

몽골에서는 1,222년 대규모 국가 축제를 조직하였으며, 씨름 경기를 포함하여 나담 축제(Naadam Festival)가 형성되었다. 나담 축제 중 씨름은 가장 인기를 끌고 있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나-담은 유목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축들의 성장과 필요를 기원하는 종교적 의미, 힘과 기술을 겨루는 경기를 통해 병사를 모집하고 훈련하는 군사적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몽골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스포츠 경기로 전 국민을 단결시킨다는 정치적 의미가 강조된 행사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몽골의 씨름은 훈족이 말과 낙타를 많이 타는 전통, 관습 및 의례에서 씨름이 유래되었다(G. Sukhbaatar, 2000). 연구에 따르면 몽골 영토에 남은 흔적은 7,000년 전에 씨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몽골 씨름 경기를 묘사한 그림을 Dundgovi aimag의 Ulziit soum Del Khunjil uul에서 발견되었다(그림 1). 이 그림은 청동기 시대와 관련이 있으며 7,000-1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몽골의 씨름 선수는 "부흐(Бөх: bökh)"라 불리는데 이 용어는 어원은 Mofo와 Mohe인 동아시아 몽골 Hamnigan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진다. 학자들은 "Mofo"와 "Mohe"라는 단어가 몽골어 "B"에서 "M"으로 바뀠다고 추측했다. 이름 앞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제목이 있다. 5세기에는 킨단 지방의 사람을 모포 게(Mofo-ge)라고 하고, 6세기에는 킨단 지방에서는 모흐(Moh-fo)라고 하며 몽골 지방에서는 모포(moho)라고도 불렀다(Altan-ochir, 1986).

나-담 축제는 몽골 기마병과 전통 복식을 갖춰 입은 주민들의 행진으로 시작되며, 열띤 스포츠 경기 외에 몽골 전통 음악 공연, 음식과 공예품 판매 등이 함께 이루어져 몽골의 전통과 문화가 집약된 축제인데 기마, 활쏘기 등의 고유 놀이를 하며, 몽골 최대 스포츠 행사로 인기가 많다. 또한 씨름이나 활쏘기나 기마에서 우승하면 후한 상금에 명예를 누리기에 인지도가 높다. 나-담 부흐들 중에서 경기에 우승한 씨름 선수를 아와르가(Аварга)라고 부른다(R. Galindev, 1976).

몽골 국민들은 조상 때부터 씨름 경기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아 왔으며, 몽골 국민들은 씨름 선수들을 존경한다. 이와 같이 몽골의 씨름 부흐는 수세기를 지나 몽골인들의 보물이

되었으며, 몽골 민족의 가장 권위 있고 문화적인 유산이 되었다.

<그림 1> 고대 몽골 씨름 경기
출처: Dundgovi aimag. Ulziit soum, Del Khunjil uul

<그림 2> 기니스북 세계 기록 경기에 모인 몽골 6002 부흐들
출처: Tovchoo.mn

이러한 씨름 선수 복식은 표준에 따라 균일하며. 표준 씨름복을 입지 않으면 경쟁에 나갈 수 없다(그림 2).

2. 몽골 전통 씨름 복식의 특성

몽골 씨름 복식의 역사는 고대인의 복식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몽골 씨름 의상은 고대 사람들이 동물을 사냥하고 그들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의복으로 사용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인들은 몽골에서 모자를 썼으며 그들의 모양에 대한 증거는 암각화로 묘사되어 있다(그림 3).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몽골 모자도 지금의 형태를 변화된 것은 18세기 이후 몽골을 여행 한 외국인의 기록과 역사적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모자의 매듭은 역사적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남성의 상징으로, 가부장제의 초기에는 지적 힘과 힘의 상징으로 묘사한다. 따라서 몽골 모자의 원래 형태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인간 활동 과정에서 진화하여 씨름 복식 중 하나가 되었다. 몽골 씨름 모자의 끝이 가늘어진 것은 몽골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씨름 선수 부흐의 모자를 한국어로 “장군 모자”라고 한다. 1921년에 국민 혁명 때 처음으로 군사 장군이 착용했기 때문에 명명되었다. 몽골 씨름 장군의 모자에는 4개의 조준을 나타내는 4개의 변이 있다. 모자 뒷면에 씨름의 성공을 나타내는 빨간색 리본이 있다(그림 3).

고대 몽골인들은 두꺼운 나무의 껍질을 가슴과 몸에 착용한 씨름 선수의 의상을 두꺼운 가죽 유니폼이라고 불렀다. 고대 씨름 선수들은 씨름을 할 때 특별한 유니폼을 입기를 원했고 이것은 우승를 위한 주요 자극이었다. 당시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서로 경쟁하고 힘을 테스트하기 위해 강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의 힘이 커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Purev. O, 1999).

고대의 씨름 선수는 동물성 가죽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쩌떡(zodog, зодог)의 모양을 관습화하여 착용했다. 당시 씨름 선수 부흐의 경기복 상의인 쩌떡은 가슴이 막혀있고, 끈이 없으며, 겨드랑이 오려낸 조각이 없었기 때문에 손과 팔로 씨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씨름은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나중에 더 인기를 얻었다. 축제가 확장되면서 씨름 선수는 씨름용 경기복을 입고 몸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싸울 때 자유롭게 호흡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씨름 선수의 신체의 건강미와 스포츠의 특징을 반영한 씨름복의 디자인으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사회가 발달하고 점차 개선되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개선되었고 씨름선수들은 더 이상 동물 가죽을 입지 않고 자신만의 씨름용 복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생가죽을 자연적으로 접착하는 혁신적인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그 당시 가죽 가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었다. 몽골 씨름 유니폼의 역사에서 큰 발전 일 뿐 만 아니라 뛰어난 제작 기술이기도 했다. 씨름 선수들은 경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다른 모양의 다른 색깔의 동물 가죽을 등 뒤에 붙이기 시작했다.

가죽으로 만든 가죽 의류보다 가죽 및 스킨의 가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봉제의 개발은 전체 의복 봉제의 가능성을 가져왔다. 1955-1957년에 무덤에서 찾았던 광장 놋쇠 파이에 Xiongnu 씨름의 묘사에서도 씨름복은 가죽 또는 가공된 가죽으로 독특하게 만들어졌다. 씨름 선수는 넓은 바지, 짧은 부츠 등이 있는 긴팔 셔츠를 입고 있다. 허리에 끈이 있다고 보이지만 의복에 장식은 없다. 신발은 씨름을 위한 특수한 신발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는 상태이다(그림 6). 일부 연구에 따르면 몽골 펠트로 만든 쩌떡(zodog, зодог)과 쏘딱(shuudag, шуудаг)을 활용했다고 예측했다. 펠트는 몽골 민속 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대 숭배자들은 동물의 털을 양모로 짜서 옷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추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펠트를 선호했다(Batchuluun, L. 2003). 씨름 유니폼은 펠트로 만들어졌으며 모든 시대에 걸쳐 점점 더 발전해 왔다. 13세기에 Hyatan들은 앞이 막힌 쩌떡을 가지고 있었으며 Xiongnu의 쩌떡과 쏘딱의 직계 유물이었다. 11-12세기에 몽골 부흐의 쩌떡은 가슴 부분은 가리지 않았다. Habul Khan 통치 기간 동안 몽골 씨름은 고도로 발전했으며 이시기에 몽골 씨

<그림 3> 몽골 씨름 선수 부흐
출처 : mongolianstore.com. What is Mongolian Wrestling

<그림 4> Naadam 축제의 씨름선수들, 1945
출처: Mongoliin unen sonin.

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며 다른 전통 의상과 차별화되어 예복이 되었다. 몽골 부흐의 움직임의 동작은 새의 움직임을 형상화하여 만들었다.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에 이러한 동작을 하며 경기장 돌아다닌다(그림 4). 몽골의 부흐는 고대 문화유산을 보존해 왔으며 씨름 경기는 예술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이다.

3. 몽골 전통 씨름 복식의 디자인 특성

몽골의 씨름 복식은 고대부터 선택되었으며 씨름에 적합하며,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몽골의 씨름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좋은 경기 복이며, 씨름 선수(부흐) 신체의 근육과 몸의 라인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씨름 복식은 스포츠의 목적인 인간을 잘 표현해주며 팔, 다리의 근육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준다.

1) 형태 및 아이템

몽골 전통 씨름은 화려함을 반영한 아름답고 이미 있는 스포츠 경기이다. 씨름 복식은 부흐의 건강한 근육질 체격을 보여주는 씨름의 걸작이다. 몽골 전통 씨름은 독특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경기할 때 입는 특유의 전통 복장 때문인데, 상의 쩌덕은 긴팔 의상이나 허리 윗쪽에서 끊겨 짧고, 하의는 거의 팬티와 유사한 쏘닥을 착용하여 경기 시 붙잡을 수 있는 부위가 상당히 제한된다.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위는 소매 깃과 목깃, 팬츠의 벨트라인과 맨 다리가 전부라 유도와 씨름을 미묘하게 섞은 모양새가 나온다(그림 5). 손과 무릎이 땅에 닿으면 패배하고, 한국의 씨름과 유사한 기술 또한 자주 나오는 편이다.

몽골 씨름 복식은 상, 하의 쩌떡과 쏘딱 외에 4면 장군 모자, 자루, 망토 및 끈이 달린 몽골 신발이 포함된다. 쩌떡과 쏘딱은 부드러운 실크로 만들어지며 쩌떡과 쏘딱의 가장자리는 부드러운 실로 봉제한다. 쩌떡의 끈은 힘, 기술 및 용기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씨름 선수들은 주로 파란색과 빨간색의 쩌떡과 쏘딱을 착용한다. 몽골인들은 하늘, 땅, 산, 물을 숭배했으며 쩌떡과 쏘딱에는 빨강, 노랑, 녹색, 파랑, 진한분홍색을 사용한다.

모자는 장군의 모자로 4면은 몽골의 4개 지방을 나타내고, 상단의 매듭이 달린 샴페인은 5명의 제자를 나타낸다. 1995년에 4면 모자는 축제의 성공을 나타내는 노란색 리본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망토는 씨름을 하기 위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높은 등급의 레슬러가 착용한다. 왼쪽에 강한 청색 코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강한 빨간 망토가 있으며, 망토는 테두리가 좁고 둥글고, 앞이 열려 있고, 소매가 없고, 간대가 있는 빨강, 분홍, 파랑, 파랑, 얇고 부드러운 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손가락을 좁히지 않고 khadag 또는 다른 연조직으로 만들어졌다(그림 6). 끈이 달린 몽골 부츠는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몽골 씨름에 매우 적합하며 신발 밑창 사이에 대나무 또는 탄성 나무로 만들어 미끄러짐과 부상을 예방한다. 베이스를 고정하기 위해 볼트를 사용한다(Songino, C. H., 2000). 장식품에는 블록체크(block check)가 자수되어 있다.

<그림 5> 몽골 전통 씨름 경기
출처: mongolianstore.com/travel tourstips.blogsport.com

<그림 6> 몽골 전통 씨름 복식, 4면 장군 모자, 부츠
출처: www.fast.mn

<그림 8> 몽골 씨름선수 부흐와 씨름복식
출처: Tovchoo.mn

2) 몽골 씨름 복식의 색상

몽골 씨름의 역사적 발전을 보면 쩌떡과 쏘딱의 색상은 당시의 종교 이념과 가치에 따라 달랐다. 고대 몽골인들이 백해와 흑해를 숭배하며 쩌떡은 검은색(그림 7), 쏘딱은 흰색이라고 믿었다. 이후 조로아스터교가 몽골에 전파되었을 시기에는 교화한 왕의 부흐 복식에 쩌떡은 빨간색, 쏘딱은 푸른색이었다. 또한 "Zay"의 부흐 복식의 쩌떡은 녹색, 쏘딱은 노랑색으로 착용하였다. 샤머니즘에서는 영원한 하늘을 숭배하기 때문에 쩌떡은 파란색 또는 푸른색이었는데 몽골 부흐가 영원한 하늘 아래 영원히 발전 할 수 있도록 파란색을 선택하고 기원했다. 쏘딱은 주로 빨간색 또는 주황색을 착용했는데 성숙하고 항상 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상징한다. 빨간색은 불이 점화되고 열을 유지하는 것처럼 레슬러의 힘과 지능의 수평을 상징하며 씨름 선수의 에너지를 타는 불처럼 상징한다(그림 8)

역사적 흐름에 따라 씨름복의 색상은 변화해 왔다. 현대 몽골 씨름 선수 부흐는 영원한 푸른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몽골 씨름의 중단 없는 불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착용한다(그림 14). 1921년 몽골이 중국에서 독립하면서 적기와 청색의 사용은 혁명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존중의 행위로 해석되었다(B. Buyandelger, Ch. Sukhbaatar, 2008).

3) 몽골 씨름 복식의 봉제, 자수 기법

몽골 씨름복 쩌떡과 쏘딱은 끝단을 따라 자수형으로 봉제하는 쉬레스(shirees, Ширээс)와 쩌떡의 뒷면과 앞 중앙에 정사각형 마름모형의 직각 쉬레스가 있다(그림 9). 중앙에 있는 정사각형 쉬레스는 무한 우주의 상징으로 하늘의 별과 행성의 움직임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 국민들은 부흐를 지역 마스코트의 일부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부흐는 자신의 복장 지역 정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긴다. 부흐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싸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하늘로 초대하고 마음을 강화한다.

몽골 씨름복에서 쉬레스 자수가 3줄로 나란히 존재하는 것은 3인용 게임 중 하나 일뿐만 아니라 3번의 상징을 표현한다. 몽골 국민들에게 숫자 3을 완벽하고 계속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홀수의 봉제는 행복을 상징하고 불행은 번갈아 가며 항상 행복을 의미한다. 띄엄 띄엄 홈질을 하는데 몽골어로는 "토끼 점프"이라고 말한다. 몽골 민속에서 토끼는 소심하지만 지능적인 동물이므로 위험을 피할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강한 동물을 잡아서 약한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토끼 점프"를 활용한다. 씨름복의 쉬레스 자수 작업은 3겹 홈질 바느질 할 때는 행복, 고생, 행복이라고 차례를 바꾸면서 바느질한다고도 한다(B. Buyandelger, Ch. Sukhbaatar, 2008).

<그림 7> 몽골 부흐의 쩌덕과 쏘닥, 검정색
출처: 저자 작, 2017

<그림 9> 몽골 씨름 복식 쏘닥의 쉬레스
출처: Saran Zodog LLC (2018)

Ⅲ. 작품 제작

1. 작품제작 의도

본 연구는 몽골 전통 씨름 복식의 특성을 현대 패션에 적용하여 여성 패션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몽골 전통 씨름복에는 고유의 쉬레스(shirees, Ширээс) 라는 특유의 겹홈질 자수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그림 16). 본 연구의 작품에는 겹홈질 자수 기법을 활용하여 심플하지만 현대적인 패션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몽골 씨름복의 홈질 자수는 단단함의 요소가 강하여 창의적인 표현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0% 울 소재를 활용하고 울 소재의 겹홈질 용 자수사를 사용하여 여성복 디자인에 남성용 운동 씨름 복식의 자수 장식을 융합하여 현대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작품의 구체적인 제작 의도 전개는 다음과 같다. 작품의 테마는 '부흐와 블록체크'로(그림 11), 씨름복의 쉬레스 홈질 자수 기법이 상징하는 고귀하고 장중한 아름다움을 패션디자인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0.3* 0.3 cm으로 정사각형을 반복해서 체크 블록 무늬를 만들었다. 체크 블록 무늬의 리듬은 이분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었다. 세로선과 가로선을 따라서 스물 한 개의 줄을 수놓아 만들었다. 또는 디자인마다 앞 중심선에 0.3*0.3cm 정사각형으로 구성하는 8*8, 9*9, 10*10, 13*13 비율 게로 만든 정사각형을 보이고자 한다.

디자인에 적용된 색상은 몽골 씨름복의 대표적 색상인 빨간색과 파란색, 연한 녹색 등에서 벗어나 모던하고 우아한 여성 이미지를 위하여 블랙과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하고 몽골 씨름복의 쉬레스를 재현적으로 변형하지 않고 줄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과정을 복식에 도입하면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수공예 기법의 바느질을 응용하였다. 여러 가지 여성복을 입체적인 평평한 패턴의 기법으로 제작하고 몽골 씨름복의 쉬레스를 3겹으로 바느질해서 여러 번 줄로 장식하여 4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서 몽골 씨름복의 쉬레스로 표현 가능성을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아이템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여 원피스 3벌과 상의와 팬츠 1벌의 디자인으로 진행하였다. 슬림한 디자인에 3겹 홈질 쉬레스 자수 기법을 활용하여 모던한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씨름복의 형태 변형을 통해서 개성있고 화려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블록체크(Block check) 모양과 입체적인 모양으로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2. 작품 제작

디자인 1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울 100%의 원단을 활용하여

<그림 11> 이미지 맵: 부흐와 블록체크

디자인 1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울 100%의 원단을 활용하여 심플한 스탠드 칼라 원피스 아이템으로 디자인하였다. 몽골 국가 씨름복의 겹 홈질 자수를 3개의 겹으로 자수 바느질하고, 여러 줄로 장식하여 심플하지만 장중하고 우아한 여성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스탠드칼라의 원피스는 H 실루엣으로 슬림하게 디자인하여 여성의 인체의 곡선미를 강조한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그림 12). 원피스는 프린세스 라인과 래글런 슬리브로 디자인하면서, 씨름복의 끈을 사용해서 착용하며 소매 끝단에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했다. 홈질 기법의 자수는 3겹이면서 3줄으로 프린세스 라인, 18개 줄로 래글런 슬리브, 칼라를 13개 줄로 자수를 놓았다. 또한 앞 중심선에는 8*8의 비율로 4개의 직각 자수로 장식하여 용기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2는 부드러운 고급스러운 울 소재를 활용하여 심플한 드롭 숄더 상의와 팬츠 아이템으로 디자인하였다. 몽골 국가 씨름복의 몽골 국가 씨름복의 겹 홈질 자수를 3개의 겹으로 자수 바느질하고, 심플하면서 장중하고 우아한 여성미와 연결하여 디자인 하였다. 어깨가 드러난 상의는 슬림하고 팬츠는 밑단 쪽으로 박시하게 디자인하여 인체의 곡선미가 드러나도록 하여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그림 13). 오픈 드롭 숄더 상의는 씨름복의 끈을 사용해서 뒤에서 끈으로 묶어서 화려하면서 여성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홈질의 자수 기법을 활용하여 3겹으로 앞 중심선에 10*10 비율로, 암홀의 다트에 따라 3개, 네크라인, 소매 밑, 팬츠 띠에 별도 7개, 소매에 3줄로 자수를 장식하였다. 팬츠의 옆선에도 10개를 별도를 장식하여 요기 있게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팬츠의 옆선에도 씨름복의 끈을 활용하였으며, 강인한 여성미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3은 아이보리 색상의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울 소재를 활용하여 심플한 느낌의 코트형 원피스 아이템으로 디자인하였다. 몽골의 씨름복의 홈질 자수 기법을 활용하여 모던한 이미지에 진취적이고 강인한 여성미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코트형 원피스는 슬림하게 디자인하여 인체의 곡선미를 강조하여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느껴지도록 했다(그림 14). 뒷면에 밴드가 달렸으며, 셔츠 칼라에 패치 포켓을 포인트로 디테일을 추가하였다. 3겹의 실로 홈

<그림 12> 디자인 1, 검정 원피스

<그림 13> 디자인 2, 검정 상의와 팬츠

<그림 14> 디자인 3, 흰색 코트형 원피스

<그림 15> 디자인 4, 흰색 플레어 스커트형 원피스

질의 자수 기법을 활용하여 블록체크 모양의 격자무늬 이미지의 자수를 놓았다. 씨름복의 끈을 사용해서 착용하며 소매 중간에 리본 장식을 하였으며, 앞중심 칼라 중심에도 끈을 달아 장식하였다. 홈질 자수 기법은 중심선에 9*9 크기 마름모 4개를 장식하여 용기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수직선에 10개, 뒤쪽 짧은 띠에 5개, 패치 포켓에 6개, 밑단 위쪽으로 21개, 소매 사이에 5개, 소매 밑단에 19개, 칼라에 19줄을 자수를 놓았다. 안감은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얇은 실크를 사용하였다.

디자인 4는 아이보리 색상의 부드러운 울 소재를 활용하여 심플한 플레어 원피스 아이템으로 디자인했다. 몽골의 씨름복의 홈질 자수 기법을 활용하여 심플한 이미지에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더하였다. 플레어 원피스는 X 라인 실루엣으로 상반신은 인체미를 드러내고 스커트는 180도 플레어스커트로 제작하였다(그림 15). 보트형 네크라인, 래글런 슬리브 디자인으로 네크라인을 자수를 넓게 놓아 강조하였다. 씨름복의 끈을 소매 밑단에 장시하여 화려하고 단순하며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전개하였다. 홈질 자수 기법은 3겹으로 3줄로 중심 앞 중심 선에 자수 하였으며, 마름모 사각형 8*8 비율로, 래글런 소매에 18개, 보트형 네크라인에 16개, 허리띠에 8개, 플레어스커트 윗부분에 3개, 사이에 3개, 밑단에 8개, 수직선으로 3개 줄로 4번 나누어 작업하며 장식하여 용기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민족문화의 상징적 수공예 봉제 기법으로 제작하는 몽골 전통 씨름 복식의 특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을 전개 작업하였다. 몽골 전통 씨름복은 경기 시 씨름복이 찢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 3겹 홈질 기법으로 여러 줄을 손으로 바느질해 주면서 우아한 쉬레스 이미지를 만들며 완벽한 복장을 완성한다. 이러한 기법을 여성복에 적용하여 강인하며 모던하고 우아한 여성복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 및 웹사이트 등의 조사와 몽골 현지 직접 방문 통해 몽골 씨름복의 쉬레스의 역사, 특성, 상징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복 4벌을 디자인을 전개, 제작하였다. 여성복 디자인의 테마는 '부흐와 블록체크'로 쉬레드 기법을 블록체크와 연계하여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몽골 씨름복의 대표적 색상인 빨간색과 파란색, 연한 녹색 등에서 벗어나 모던하고 우아한 여성 이미지를 위하여 검정과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하고 몽골 씨름복의 쉬레스를 줄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과정을 복식에 도입하면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수공예 기법의 바느질을 응용하였다. 여러 가지 여성복을 입체적인 평평한 패턴의 기법으로 제작하고 몽골 씨름복의 쉬레스를 3개 겹으로 바느질해서 여러 번 줄로 장식하여 4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서 몽골 씨름복에 나타난 쉬레스로 표현 가능성을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작품 제작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민족 복식 응용 방안으로, 몽골 씨름 복식의 특성 및 상징적 의미, 겹홈질의 독창적 자수 기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제작의 결과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우아하고 강인한 여성복 이미지의 모던한 패션디자인 전개에 적절하였다. 둘째, 색상은 몽골 전통 씨름복 색상에서 벗어나 검정색과 아이보리 색의 고급스러운 울소재를 사용한 디자인 적용은 전통적이고 상징적인 쉬레스 3겹 겹홈질 자수 기법과 어우러져 창의적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결과물로 창출되었다. 전통적 민족 문화의 3겹 홈질의 쉬레스 작업은 핸드터치의 느낌으로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었다. 셋째, 몽골 씨름복의 쉬레스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며 이에 부합하는 표현을 위해 4벌의 쉬레스에 3겹홈질로 바느질하며 행복, 고생, 행복을 차례를 바꾸게 한다고 이해하면서 줄의 수를 세면서 바느질로 씨름복의 상징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몽골의 씨름은 가장 남성스러운 경기이며 건강한 남성들의 복식인 몽골 씨름 복식의 특성을 활용하여 현대화 방안으로,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나타내기 위한 본 연구의 작품 결과는 새로운 패션디자인으로의 접근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글로벌화 시대의 이와 같은 다양한 민족 문화의 연구는 그 의의가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Altan-Ochir. (1986), Mongolchuudiin ulamjlalt nair naadam. 몽골 전통 축제

Bold, B. (2002), CHono bolon buhchuud, buhiin coyol bolon shinechleltiin talaarkhi coyol,khun zuin sudalgaa 늑대와 레슬러: 씨름 문화와 근대화에 관한 문화 및 인류학적 연구

Buyandelger. B. (2002), Mongol buhiig gun ukhaanii uudnees shinjlekh ni. diplomiin ajil 몽골 씨름의 철학적 연구.

Batchuluun. L. (2003), Esgii urlal,temdgiin togtoltsoo 펠트 공예, 사인 시스템

Bayanmunkh, K. (1994), Mongol buhiin barildaanii ulamjlal, arga mekhiin surgan humuujuulekh zuin zarim asuudal 몽골의 전통 씨름과 교육학 기술 문제.

Galindev, P. (2007), mongol bukhiin undesnii bukhiin barildaan. 몽골 국가 씨름

Mongol tuurgatnii 100 erhem. (2017, 3, 20), bichleg Mongol uisiin darkhan avarga,mongol ulsiin hudulmuriin baatar, batlan hamgaalaiin said, ulsiin ikh hurliin gishuun B.Bat-Erdene. 몽골 툴가탄의 중요한 100명

Munkhbat, J. (2014), Mongol ulsiin dakhan avarga, hudulmuriin baata bichleg 몽골 툴가탄의 중요한 100인.

Nyambuu. Kh. (2002), Mongol huvtsasnii tuukh. 몽골 의류의 역사
Mongol Undesnii Buhiin Holboonii barildaanii durem, (2003), 몽골 전국 씨름 연맹의 규칙
Purev, O. (1999), Mongol buugiin shashin, 몽골 샤머니즘
Songino, C. H. (2000), Mongol chuudiin uil urlaliin uv ulamjlal, 몽골 전통 수공예
TSeveendorj. D. (1998), Mongol ertnii urlagiin tuukh, 몽골 고대 예술의 역사
http//:www.Tovchoo.mn
http//:www.mongolianstore.com. What is Mongolian Wrestling
http//:www.mongolianstore.com/travel tourst tips.blogsport.com

한국생활과학연구
제40권 pp.23-31 (2020)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으로 본 대형마트 실내공간 분석

An Analysis of Interior Space of Large-scale Mart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Design

우 채 영, 문 자 영*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실내건축디자인학과
Woo, Chea-young, Moon, Ja-Young*
Department. of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the population change in Korea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and th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also increasing. These population changes have started to be applied in the environment and universal design has been developed to collect various population changes. Universal design has been mainly studied mainly in public facilities and public spaces, and studies on commercial spaces have been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terior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design for large marts, which are spaces used by anyone in commercial facilities. The research method is to grasp the concept and spatial composition of large marts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to derive the framework of spatial composition, and to set the framework of case study of universal design as the framework of case study, and to draw the conclusion by case analysis. The criteria for universal design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four principles of 'supportability', 'acceptability', 'accessibility', and 'safety'.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current status of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differed according to domestic brands and overseas brand large marts, and the older the year, the lower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All four of the universal design principles were found to lack supportability.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supportive aspects that should be applied in commercial facilities.

Key words : A Large Scale Market, Barrier-Free, Interior Space
주제어 : 대형마트, 유니버설 디자인, 베리어프리, 실내 공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마켓이나 식료품 상점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 중 우리나라 가구에서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대형할인점(37.6%),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29.4%) 순으로 나타났다(이계임, 2018). 대형마트는 식료품 및 일상생활의 재화를 구매하는 곳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하며, 연령이나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공간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15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장애인 등 편의법」 제10조의 2 제3항),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디자인 제안 지표로 발간되었다. 반면 상업공간의 경우 의무대상이 아니며, 제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신체적 약자를 위한 설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신체적 약자를 위한 대형마트의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형마트의 내부시설에서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신체적 약자를 위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실내공간을 분석하여 향후 대형마트의 내부 리모델링 및 설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디자인 요소의 기초자료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 Corresponding Author ; Moon, Ja-young
Tel : 82-10-4589-8385, E-mail : jjjmun@hanyang.ac.kr

대형마트에서 신체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실내공간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마트의 개념과 유니버설디자인 개념과 원리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고, 실제로 대형마트 내에서 야기되었던 장애인들의 민원사항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룬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와 관련 법규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평가를 위한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셋째,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의 틀에 따라 대형마트 실내공간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넷째,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대형마트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점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조사대상은 신체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를 고려한 연구로 진행하였으며, 통계청에서 조사한 서울 내 장애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 중랑구와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4곳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행하였다.

Ⅱ. 대형마트의 이해

1. 대형마트의 개요

일반적으로 마트의 종류는 대형할인점, 창고형 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Super Super Market) 등으로 분류된다(김하룡, 2017). 대형할인점(마트)은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판매/영업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하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해 하나 건물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m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 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 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이 건물 안에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이어야 한다. 매장 운영이 상시 운영되어야 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한다. 대형마트의 브랜드 종류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하나로 마트, 메가마트 등이 있으며, 2020년 5월 브랜드 평판 순위 자료에 따르면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순으로 높았다.

2. 대형마트의 공간구성

대형마트의 평면계획은 구분상 판매 공간, 주차공간, 수직·이동 공간, 후방공간, 설비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판매 공간, 주차공간, 수직·이동 공간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지덕규, 2001). 판매 공간은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으로 나뉜다. 직영매장은 대형마트에서 직접 관리하고 경영하는 매장으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재화로 매출을 올리는 공간을 말한다. 임대매장은 대형마트 내 자리를 임대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과 관련 없이 임대매장 영업장의 매출로 분류된다. 편의공간은 영업적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공간이다(이순길, 2003). 주차공간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실외 및 실내주차장이다. 수직 이동 공간은 카트를 무빙워크와 층간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마트 내부로 진입하는 경사로 등이 있다.

Ⅲ.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능력 및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품을 위한 디자인이다(이연숙, 2005). 처음 시초는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인 장애물 없는 디자인으로 대상을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춘 디자인으로 시작되었다가 2000년대 이후 어린이, 여성,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디자인 형태를 거쳐 현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디자인'이라는 의미로 범위가 넓어졌다(고영준, 2011).

2. 유니버설디자인 원리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구자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최초로 제창한 R.Mace(1985)는 당초 접근하기 쉬운 디자인을 기반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창하였으나(이호창, 2014), 기능적 지원성이 높은 디자인, 수용 가능한 디자인, 접근 가능한 디자인, 안전을 지향하는 디자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확장하였다(최아진, 2015). 이에 Null(1995)은 R.Mace가 제시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공간의 진입조차 어렵다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접근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사람들 쉽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이 있어야 하며 최소의 노력으로 효율적인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사용자 자신에게 적합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사용자 중심의 환경과 제품이 사용자의 오류나 제품 결함들의 위험요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자인으로 구현되어야 한다(이호창, 2014). 이를 바탕으로 기능적 지원성,

수용성, 접근성, 안전성의 4가지 원리를 제시하였고 Null의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사례로 <표 1>과 같이 설명할 수 있으며, 이 원칙은 환경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에 유용하다고 설명하였다(최아진, 2015).

표 1. Null이 제시한 UD 4원리의 사례

4원리	설명
기능적 지원성	인체치수 및 기능적 행위에 따라 변화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 ex) 조명의 밝기 조절
수용성	인간의 다양한 인체치수와 기능적 행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 시력의 범위를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폰드
접근성	휠체어, 자전거, 유모차, 카트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공간의 진입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 장치를 최소화하여 다양한 이동수단의 공간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ex) 문턱의 문지방 제거, 보도블록의 단차제거
안전성	인간의 기능적 요소의 제한으로 다치거나 안전문제에 대비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 대조적인 색채와 패턴으로 단 차이의 구분이 명확하게 표시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유니버설디자인의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 및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0-2024)』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및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심사 기준』, 『건축법』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공건축물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어야 되는 항목은 접근 공간의 출입구, 보행로, 주차장, 진입공간의 주출입구, 로비, 이동 공간의 실내 출입문,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방재 및 피난 시설, 위생 공간인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등이 있다.

4. 대형마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필요성

(1)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신체적 약자의 실제 민원사항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신체적 약자들의 실제 민원사항을 통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필요성을 고찰한다. 장애인 제도개선 솔루션은 대형마트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첫째, 이동 범위가 넓은 대형마트에서 목발 사용자나 노인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하여 휠체어 등의 편의 보장구의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되지만, 대다수가 휠체어를 비치하지 않거나, 비치되어있어도 타이어 펑크 되었거나 청소상태 불결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방치해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둘째, 상당수의 대형마트는 상품진열대, 계산대 등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이 일반 성인 기준에만 맞춰있어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접근이나 사용하기 어렵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홀로 쇼핑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를 지원하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형 판매시설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장애인 시설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안전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물리적인 시설에 비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문의 문턱은 96%가 없어졌지만 시·청각장애인의 안내를 지도해주는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의 설치율은 40%밖에 미치지 않았다. 성별을 구분하여 화장실 진입할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 벽면에 점자 표지판을 설치한 대형 판매시설은 절반도 못 미치는 41.5%밖에 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장애인 안전과 관련된 판례로 마트 내 무빙워크 위에서 전동휠체어가 탑승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대형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된 사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마트의 무빙워크에서는 휠체어 진입을 금지하는 사인이나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2) 상업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대형마트와 관련된 상업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연구방법 및 주안점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아래의 <표 2>는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선행연구로 구성하였다.

표 2. 상업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저자 (년도)	내용
최병숙 (2004)	대형마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평가내용 및 항목을 구성하고 아동 및 아동 보호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UD 관점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도출함.
김정기 (2017)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와 김혜지(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의 매개시설과 위생시설에서의 접근성을 분석함.
이효승 (2007)	문헌고찰 및 관련 법규를 통해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UD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지하상가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및 매뉴얼을 통해 평가세부사항을 구성하고 Null의 UD 4 원리의 적용성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함.
이정은 (2014)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노인에게 필요한 UD개념을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효율성'으로 정의하고, 노인과 관련된 UD 지침을 통해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UD개념 관점으로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함
유여훈 (2015)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고 Null의 4 원리로 항목의 적용성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함.
임종훈 (2015)	장애별, 국적별, 연령별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 적용된 Null의 4 원리 분석하고 전통시장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기능 및 편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고찰 및 개선안을 도출함.

왕람 (2019)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한 복합 상업 시설의 공간별 보행공간을 UD 7 원리로 평가하여 조사대상에서 부족하게 나타난 원리를 설명함.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최병숙(2004), 김정기(2017)가 있다. 최병숙(2004)은 대형마트에서 주로 아동 및 보호자가 이용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UD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김정기(2017)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의 매개시설과 위생시설에서의 접근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두 연구 모두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원리로 제시된 Null의 4원리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간적 범위는 대형마트의 내부공간 전체가 아닌 특정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나 접근공간으로 제한하여 연구되었다.

이효승(2007)은 지하상가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및 매뉴얼을 통해 평가 세부사항을 구성하여 지하상가 내부공간에 대한 Null의 UD 4원리의 적용성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이정은(2014)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노인에게 필요한 UD 개념을 도출하고 노인 기준으로 구성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UD개념 관점으로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유여훈(2015)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고 Null의 4원리로 적용성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임종훈(2015)은 장애별, 국적별, 연령별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 Null의 4원리 분석하고 전통시장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기능 및 편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고찰 및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왕람(2019)은 UD7원리로 복합상업시설 보행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현황을 고찰하였다.

상업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공간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대형공간 관련 선행연구는 특정대상을 위한 일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연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형마트에서의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 신체적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Ⅳ. 사례분석

1. 사례분석 평가기준 구성방법

대형마트의 유니버설디자인 현황분석을 위해 Nul의 기본4원리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세부항목을 통해 내용을 구성 하였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유니버설디자인 법규에 의거한 가이드라인으로, 대형마트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건축물'의 내부공간 및 진입공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내부공간을 판매공간, 편의시설, 수직이동공간, 주차공간으로 나누어 Null의 유니버설디자인 4원리에 따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공공

표 3. 사례분석의 틀

UD 원리	공간 구분	항목 No.	평가 내용
지원성	판매공간	A01	주출입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치안내 음성지원 및 점자안내판을 지원하고 있다.
		A02	시간장애인이 상품을 인지할 수 있는 점자 혹은 음성안내 장치가 설치되어있다.
	편의시설	A03	각 주요 층에 다목적 화장실을 최소 1개 이상 설치
		A04	휠체어보관소 설치되어있다.
	수직이동공간	A05	승강로비, 승강기 내부에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운행정보와 층별 안내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주차공간	A06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일반주차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유도표시가 설치되어 있다.
		A07	장애인 주차구역의 면수 확보가 1면 이상 되어있다.
수용성	판매공간	B01	휠체어 이용자가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조절 가능한 진열대 혹은 손을 뻗어 집을 수 있는 높이의 진열대 설치가 되어있다.
	편의시설	B02	장애인용 화장실의 면적이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 확보되어 있다.
	수직이동공간	B03	승강기에서 휠체어 사용자들이 조작설비 할 수 있도록 측면에 조작버튼 설치한다.
	주차공간	B0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폭 3.0m 길이 5.0m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다.
접근성	판매공간	C01	휠체어 사용자가 계산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1.0m이상의 통행 유효폭 확보되어 있다.
		C02	휠체어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유효 폭 1.5m 이상 확보, 상호 교행할 수 있는 1.8m 이상 확보되었다.
		C03	바닥면에 단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C04	주출입구의 위치는 찾기 쉬운 곳에 위치되었다.
		C05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에서 어떠한 단차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하다.
		C06	주출입구의 유효 폭은 1.2m 이상 확보하고 있다.
		C07	주출입구의 형태는 자동문이다.
		C08	주출입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편의시설	C09	화장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 폭은 1.0m 이상을 확보하고, 자동문이다.
		C10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에 남녀구분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다.
	수직이동공간	C11	승강로비는 건물의 주출입구에 인지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이다.
		C12	전면공간은 1.5m*1.5m 확보되어야 하며 및 내부공간 1.6m*1.4m 이상을 확보해야 함
	주차공간	C13	주차장의 위치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구역은 건물출입구에 가깝도록 설치되어 있다.
안전성	판매공간	D01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바닥 마감한다.
	편의시설	D02	비상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호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D03	물이 묻어도 미끄러지지 않은 바닥 재질, 줄눈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타일 혹은 판석마감의 경우 0.5cm 이하의 줄눈으로 마감
	수직이동공간	D04	휠체어 무빙워크 접근 제한 표시를 한다.
		D05	디딤판의 끝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색상차이를 주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설치하였다.
	주차공간	D06	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위치이다.

건축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여 사례분석의 틀을 도출하였으며, 내용은 <표 3>과 같다.

2. 사례대상의 개요

사례대상은 서울시에서 장애인구 및 고령인구를 통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랑구를 3곳,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송파구를 1곳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대형마트의 기준인 연면적의 3000㎡ 이상이며, 브랜드평판이 상위권에 해당되는 4가지 브랜드인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로 선정하였으며, 사례조사 개요는 개관연도, 규모(층수), 이용시간, 위치, 연면적으로 분류하여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조사대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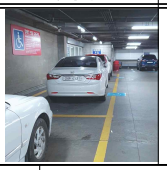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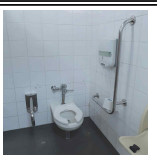
구분	마트명	건물외관 이미지	개관 년도	규모 (층수)	이용 시간	위치	연면적 (㎡)
1	코스트코 상봉점		2001	B1~5F	10:00 ~ 22:00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36	33955.44
2	홈플러스 상봉점		2013	B5~1F	10:00 ~ 24:00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	24,203.5
3	이마트 상봉점		2000	1F~8F	10:00 ~ 23:00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8	39537.67
4	롯데마트 잠실점		1998	B1~6F	10:00 ~ 23:0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33736.01

3. 사례분석

사례분석의 조사도구로 <표 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평가 항목들의 설치유무를 통해 우수(●)1점, 보통(◎)0.5점, 미흡(○)0점으로 평가하였다. 분석내용은 <표 5>~<표8>과 같다.

(1) 사례A 분석내용

표 5. 사례 A 분석결과

사례 A				
지원성	수용성	접근성	안전성	
				

UD 원리	공간 구분	항목 No.	평가	내용
지원성	판매 공간	A01	○	위치를 설명해 주는 음성 및 점자표시판 미설치
		A02	○	진열대에 시간장애인이 상품을 인지할 수 있는 점자 혹은 음성안내장치 미설치
	편의 시설	A03	○	지하 1층과 1층이 판매공간으로 주요 층에 해당되지만 1층에만 다목적 화장실 설치됨.
		A04	○	휠체어 보관소 미설치
	수직 이동 공간	A05	○	승강기의 운행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주차 공간	A06	●	시각장애인들도 감별할 수 있는 색상과 위치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판 설치하고, 유도표시를 통하여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설계됨
		A07	●	장애인 주차구역의 면수 확보가 3면 확보됨
수용성	판매 공간	B01	○	휠체어 이용자가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조절 가능한 진열대 혹은 손을 뻗어 집을 수 있는 높이의 진열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
	편의 시설	B02	●	장애인용 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수직 이동 공간	B03	●	승강기 내에 휠체어 사용자들이 조작설비 할 수 있도록 측면에 조작버튼 설치
	주차 공간	B04	○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폭 3.0m의 기준에 미달됨
접근성	판매 공간	C01	●	1.0m이상의 통행 유효 폭 확보굄
		C02	●	유효 폭 1.5m 이상과, 1.8m 이상 확보됨
		C03	●	판매공간 내에 단차 없음
		C04	●	인지하기 쉬운 곳에 주출입구가 위치됨
		C05	●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와 연결부분에는 작은 단차는 물론 계단이나 경사로가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
		C06	●	주출입구의 유효 폭은 1.2m 이상 확보됨
		C07	●	자동문 형태의 주출입구
		C08	●	주출입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 시설	C09	○	화장실의 출입문은 여닫이문이며, 1.0m이상의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음
		C10	○	남녀구분 표지판에 점자표식이 없음
	수직 이동 공간	C11	●	승강로비는 건물의 주출입구에서 근접한 위치에 있어 접근이 용이함.
		C12	●	전면공간은 1.5m*1.5m 확보되어야 하며 및 내부공간 1.6m*1.4m 이상을 확보해야 함
	주차 공간	C13	●	옥상주차장인 장애인 및 교통약자구역은 승강설비 바로 옆에 위치되어 있음
안전성	판매 공간	D01	●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한 마감
	편의 시설	D02	○	화장실 내에 비상벨 미설치
		D03	●	물이 묻어도 미끄러지지 않은 바닥 재질, 0.5cm 이하의 줄눈의 타일 마감
	수직 이동 공간	D04	○	휠체어 무빙워크 접근 제한 표시 미설치
		D05	◎	디딤판의 끝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반 바닥과 다른 재질로 되어있으나 색상 표시가 되어있지 않음
	주차 공간	D06	○	주차장 보행안전통로가 따로 확보되지 않음.

(2) 사례 B 분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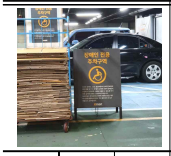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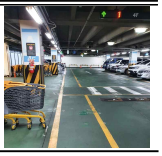
표 6. 사례 B 분석결과

사례 B				
지원성	수용성	접근성	안전성	

UD 원리	공간 구분	항목 No.	평가	내용
지원성	판매공간	A01	○	위치를 설명해 주는 음성 및 점자표시판 미설치
		A02	○	진열대에 시간장애인이 상품을 인지할 수 있는 점자 혹은 음성안내장치 미설치
	편의시설	A03	●	계산이 가능한 곳인 1층과 4층에 다목적 화장실이 1개씩 설치됨
		A04	○	휠체어 보관소 미설치
	수직이동공간	A05	●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버튼의 높이 및 점자표시가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운행안내도 적절히 되어있음
	주차공간	A0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표지판은 있으나 주차구역의 명확한 유도표시가 드러나지 않음
		A07	●	장애인 주차구역의 면수 확보가 6면 확보됨
수용성	판매공간	B01	○	휠체어 이용자가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조절 가능한 진열대 혹은 손을 뻗어 집을 수 있는 높이의 진열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
	편의시설	B02	●	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 확보됨
	수직이동공간	B03	●	승강기 내에 휠체어 사용자들이 조작설비 할 수 있도록 측면에 조작버튼 설치됨
	주차공간	B04	●	폭 3.0m 길이 5.0m 이상의 주차구역 확보
접근성	판매공간	C01	○	휠체어 사용자가 계산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1.0m이상의 통행 유효 폭 미확보
		C02	●	휠체어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유효 폭 1.5m 이상과, 상호 교행할 수 있는 1.8m 이상 확보됨
		C03	●	판매공간 내에 단차 없음
		C04	●	인지하기 쉬운 곳에 주출입구가 위치됨
		C05	●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와 연결부분에는 작은 단차는 물론 계단이나 경사로가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
		C06	●	주출입구의 유효 폭은 1.2m 이상 확보됨
		C07	●	자동문 형태의 주출입구
		C08	●	주출입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시설	C09	●	화장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이며 유효폭 1.0m 이상 확보됨
		C10	●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에 남녀구분 점자 표지판 설치됨
	수직이동공간	C11	○	승강로비는 건물의 주출입구에서 바로 보이지 않고 복도를 통과해서 접근하도록 되어있음
		C12	●	전면공간은 1.5m*1.5m 이상 확보 및 내부공간 1.6m*1.4m 이상을 확보
	주차공간	C13	●	지하주차장인 장애인 및 교통약자구역은 승강설비 바로 옆에 위치되어 있음
안전성	판매공간	D01	●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한 마감
	편의시설	D02	●	대변기 옆에 비상시 호출할 수 있는 벨 설치됨
		D03	●	물이 묻어도 미끄러지지 않은 바닥 재질, 0.5cm 이하의 줄눈의 타일 마감
	수직이동공간	D04	●	휠체어 무빙워크 접근 제한 표시 설치
		D05	◎	디딤판의 끝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반 바닥과 다른 재질로 되어있으나 색상 표시가 되어있지 않음
	주차공간	D06	●	주차장 보행안전통로 확보됨

(3) 사례 C 분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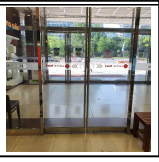
표 7. 사례 C 분석결과

사례 C				
지원성	수용성	접근성	안전성	
				

UD 원리	공간 구분	항목 No.	평가	내용
지원성	판매공간	A01	○	위치를 설명해 주는 음성 및 점자표시판 미설치
		A02	○	진열대에 시간장애인이 상품을 인지할 수 있는 점자 혹은 음성안내장치 미설치
	편의시설	A03	●	각 주요 층에 다목적 화장실을 최소 1개 이상 설치됨
		A04	○	휠체어 보관소 미설치
	수직이동공간	A05	●	승강기 내의 조작버튼의 높이, 운행정보, 점자표시 등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음
	주차공간	A06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간판 및 포스터를 여러 면에 부착하여 적절한 유도 및 안내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A07	●	장애인 주차구역의 면수 확보가 4면 확보됨
수용성	판매공간	B01	○	휠체어 이용자가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조절 가능한 진열대 혹은 손을 뻗어 집을 수 있는 높이의 진열대 설치가 되어있지 않음
	편의시설	B02	●	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 확보됨
	수직이동공간	B03	●	승강기 내에 휠체어 사용자들이 조작설비 할 수 있도록 측면에 조작버튼 설치됨
	주차공간	B04	●	폭 3.0m 길이 5.0m 이상의 주차구역 확보
접근성	판매공간	C01	○	1.0m이상의 통행 유효 폭 미확보
		C02	●	유효 폭 1.5m 이상과, 1.8m 이상 확보됨
		C03	●	판매공간 내에 단차 없음
		C04	●	인지하기 쉬운 곳에 주출입구가 위치됨
		C05	●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와 연결부분에는 작은 단차는 물론 계단이나 경사로가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
		C06	●	주출입구의 유효 폭은 1.2m 이상 확보됨
		C07	●	자동문 형태의 주출입구
		C08	●	주출입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시설	C09	●	화장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이며 유효 폭 1.0m 이상확보됨
		C10	●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에 남녀구분 점자 표지판 설치됨
	수직이동공간	C11	○	승강로비는 건물의 주출입구에서 바로 보이지 않고 복도를 통과 후 내부 안쪽에 위치되어 있음
		C12	●	전면공간은 1.5m*1.5m 이상 확보 및 내부공간 1.6m*1.4m 이상을 확보
	주차공간	C13	●	옥상주차장인 장애인 및 교통약자구역은 승강설비 바로 옆에 위치되어 있음
안전성	판매공간	D01	●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한 마감
	편의시설	D02	●	대변기 옆에 비상시 호출할 수 있는 벨 설치됨
		D03	●	물이 묻어도 미끄러지지 않은 바닥 재질, 0.5cm 이하의 줄눈의 타일 마감
	수직이동공간	D04	●	휠체어 무빙워크 접근 제한 표시 설치되어 있으며, 벨을 설치하여 무빙워크 이용시 직원을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음
		D05	◎	디딤판의 끝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반 바닥과 다른 재질로 되어있으나 색상 표시가 되어있지 않음
	주차공간	D06	●	주차장 보행안전통로 확보됨

(4) 사례 D 분석내용

표 8. 사례 D 분석결과

사례 D				
지원성	수용성	접근성	안전성	
				

UD 원리	공간 구분	항목 No.	평가	내용
지원성	판매 공간	A01	○	위치를 설명해 주는 음성 및 점자표시판 미설치
		A02	○	진열대에 시간장애인이 상품을 인지할 수 있는 점자 혹은 음성안내장치 미설치
	편의 시설	A03	○	장애인 화장실이 각층마다 존재하지 않음
		A04	○	휠체어 보관소 미설치
	수직 이동 공간	A05	●	승강기 내부에 조작버튼의 높이, 운행정보 안내, 점자 표시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음
	주차 공간	A06	●	주차장 내에 팻말과 표지판을 사용하여 안내 및 유도 표시를 적절히 배치함
		A07	●	장애인 주차구역의 면수 확보가 5면 이상 확보됨
수용성	판매 공간	B01	○	휠체어 이용자가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조절가능한 진열대 혹은 손을 뻗어 집을 수 있는 높이의 진열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
	편의 시설	B02	○	장애인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음
	수직 이동 공간	B03	●	승강기 내에 휠체어 사용자들이 조작설비 할 수 있도록 측면에 조작버튼 설치됨
	주차 공간	B04	●	폭 3.0m 길이 5.0m 이상의 주차구역 확보
접근성	판매 공간	C01	○	1.0m이상의 통행 유효 폭 미확보
		C02	●	유효 폭 1.5m 이상과, 1.8m 이상 확보됨
		C03	●	판매공간 내에 단차 없음
		C04	●	인지하기 쉬운 곳에 주출입구가 위치됨
		C05	●	단차가 없어 수평접근의 용이함
		C06	●	주출입구의 유효 폭은 1.2m 이상 확보됨
		C07	●	자동문 형태의 주출입구
		C08	●	주출입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 시설	C09	○	화장실의 출입문은 없으나, 1.0m이상의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음
		C10	○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녀구분 표지판은 되어있으나 점자표지판이 설치 되지 않음
	수직 이동 공간	C11	○	승강로비는 건물의 주출입구에서 바로 보이지 않고 복도를 통과 후 내부 안쪽에 위치되어 있음
		C12	●	전면공간은 1.5m*1.5m 이상 확보 및 내부공간 1.6m*1.4m 이상을 확보
	주차 공간	C13	○	지하주차장인 장애인 및 교통약자구역은 지하 1층인 마트와 동일한 층이긴 하나 마트 내로 진입하는 출입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위치해 있음
안전성	판매 공간	D01	●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한 마감
	편의 시설	D02	○	화장실 내에 비상시 호출할 수 있는 벨 미설치
		D03	●	물이 묻어도 미끄러지지 않은 바닥 재질, 0.5cm 이하의 줄눈의 타일 마감
	수직 이동 공간	D04	○	휠체어 무빙워크 접근 제한 표시 미설치
		D05	◎	디딤판의 끝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반 바닥과 다른 재질로 되어있으나 색상 표시가 되어있지 않음
	주차 공간	D06	●	주차장 보행안전통로 확보됨

4. 소결

사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사례분석 결과

UD 원리	항목 No.	사례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평균
지원성	A01	○	○	○	○	1.7
	A02	○	○	○	○	
	A03	○	●	●	○	
	A04	○	○	○	○	
	A05	○	●	●	●	
	A06	●	○	●	●	
	A07	●	●	●	●	
수용성	B01	○	○	○	○	2.5
	B02	●	●	●	○	
	B03	●	●	●	●	
	B04	○	●	●	●	
접근성	C01	●	○	○	○	3.2
	C02	●	●	●	●	
	C03	●	●	●	●	
	C04	●	●	●	●	
	C05	●	●	●	●	
	C06	●	●	●	●	
	C07	●	●	●	●	
	C08	●	●	●	●	
	C09	○	●	●	○	
	C10	○	●	●	○	
	C11	●	○	○	○	
	C12	●	●	●	●	
	C13	●	●	●	○	
안전성	D01	●	●	●	●	2.8
	D02	○	●	●	○	
	D03	●	●	●	●	
	D04	○	●	●	○	
	D05	◎	◎	◎	◎	
	D06	○	●	●	●	
계		17.5	22.5	23.5	16.5	80

사례분석결과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의 평균치를 계산한 결과, 접근성 3.2점, 안전성 2.8점, 수용성 2.5점, 지원성 1.7점 순으로 나타났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 가장 잘 나타난 '접근성'의 경우 13가지 항목 중 'C02', 'C03', 'C04', 'C05', 'C06', 'C07', 'C08' 7가지 항목이 4곳에서 적합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02' ~ 'C08' 항목은 모두 판매 공간 및 주출입구와 관련된 항목들로 4사례 모두 판매 공간 및 주출입구의 접근성은 UD적용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중에서 나타난 미흡한 항목은 'C01'과 'C11'이었다. 두 항목 모두 사례A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에서 계산대의 유효 폭이 좁아 휠체어 사용자들이 통과하기에 다소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강설비의 위치가 주출입구에서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였다.

두 번째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잘 나타났던 '안전성'의 경우 'D03'에서 사례 4곳 모두 화장실 바닥을 미끄럽지 않은 타일 재질로 마감하여 위험요소를 저하 시켰으며, 'D05'의 경우 4곳 모두 무빙워크 끝 부분을 일반바닥과 재질을 달리하여, 카트를 이용하며 무빙워크에서 하차 시 마찰이 일어나 미끄러지지 않

게 제지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색상표시가 부족하여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세 번째 평균점수인 '수용성'에서는 'B03'의 경우 4곳 모두 승강기 내에 조작버튼 설비를 측면에 설치하여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등을 위한 디자인이 고려되었으나, 'B01'에서 높이 조절이 가능하거나 휠체어 사용자들이 손을 뻗어 집을 수 있는 높이의 진열대는 4곳 모두에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UD원리에 따라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난 원리는 '지원성'으로 6개의 항목 중 'A01', 'A02', 'A04' 3개의 항목이 모든 사례에서 미흡하게 나타났다. 'A01', 'A02'의 항목을 볼 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설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A06'의 경우 4곳 모두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휠체어 대여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다.

사례별로 '적합'이 가장 많은 순서로 정리하면 사례C>사례B>사례A>사례D로 나타났다. '적합'의 평가가 우수하게 나타난 사례C는 국내브랜드이자 매장형 대형마트로 항목 30개 중 23개가 '적합' 평가를 받았다. 사례C는 앞서 UD원리별로 정리한 내용 중 미흡한 평가를 받은 항목에서만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은 모두 '적합'으로 평가되었다. 사례B는 사례C와 마찬가지로 국내브랜드이자 매장형 대형마트로 항목 30개 중 22개가 '적합' 평가를 받았다. 미흡한 점으로는 사례C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A06' 항목인 장애인 주차구역의 적절한 안내표시와 유도표시의 식별성이 높지 않은 점이 미흡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사례A는 해외브랜드이자 창고형 대형마트로 항목 30개 중 17개가 '적합' 평가를 받았다. 일반 매장형 대형마트와 대조적으로 판매공간 내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C10'의 계산대 유효 폭에 관련된 항목은 사례 3곳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사례A에서 유일하게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지원성', 과 '안전성'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사례이기도 하다.

사례D는 국내 브랜드이자 매장형 대형마트이며 사례 4곳 중 가장 연식이 오래된 사례이다. 항목 30개 중 16개를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구비되어있지 않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화장실과 관련된 'A03', 'B02', 'C09', 'C10', 'D02', 'D03' 항목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반 매장형 대형마트인 사례B, 사례C와 차이점으로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주출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무빙워크에 진입제한 표시를 해두지 않은 점으로 나타났다. UD 4원리 중 '접근성'이 다른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를 배려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원리인 Null 4원리의 관점에서 마트 내의 실내공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마트에서는 UD원리 중 지원성이 가장 부족하며,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성에서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신체적 약자의 실제 민원사항에서 도출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과 휠체어 지원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볼 때,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은 따르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들의 민원내용은 잘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접근성에서는 승강기의 위치가 주출입구와 근접하지 않은 점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항목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2000년대 이후에 완공된 국내 브랜드의 매장형 대형마트의 경우 UD의 적용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형마트의 형태 및 연식에 따라 UD적용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장 UD의 적용이 부족하게 나타난 사례는 화장실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었으며, 문의 형태나 통행 유효 폭이 일반규격에만 맞추어 있으며, 남녀구분의 점자안내판 역시 지원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점들이 많았다.

셋째, 실제 민원사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항목은 휠체어보관소 설치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지원안내지원이었다. 넓은 대형마트는 보행이 불편한 목발 사용자나 지체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를 위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대여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이 찾고자 하는 물건의 위치나 가고자 하는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쇼핑을 좀 더 편리하게 하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들이 판매공간을 이용하면서 신체적인 한계나 장애로 인하여 대형마트 이용에 제약이 생기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수용적인 장치들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휠체어 사용자들이 계산대를 통과하거나 진열대에서 물건을 혼자 집을 수 있는 높이나 지원하는 시설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판매공간 내에서 혼자서 쇼핑할 수 있도록 계산대의 통과폭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넓히며, 쇼핑 시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품의 카테고리마다 점자지원이 되는 진열대 및 안내판 제품이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UD원리에 따라 대형마트의 실내공간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신체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린이, 외국인, 일반성인 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원리적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준. (2011).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방법과 사례. 이담북스.

국가법령정보센터판결. 손해배상(기), 광주지법2017. 6. 21.,선고. 2016나54250. 판결:확정

김정기, 김한수, 박수정. (2017). 대형마트의 지체 장애인 접근성: 대구광역시중심.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9.(1)**, 9-18.

김하룡. (2017). 대형마트의 브랜드 자산이 고객가치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정욱. (2007). 유니버설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을 대상으로.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

서울장애인개발원 BF인증.

아키데이터. 대형마트 건축법규.

왕람, 정원준. (2019). 복합상업시설(U.E.C)의 보행공간에 관한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 **조형미디어학, 22(2)**, 19-29.

왕람. (2020). 복합 상업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평가지표 제안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여훈. (2015).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본 커피전문점 공간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계임.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순길. (2003). 유통판매 시설의 건축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할인점의 설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연숙. (2005). 유니버설디자인.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옥진. (2010). 대형할인점 활성화를 위한Category Killer공간계획 비식품(Non-food)매장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이정은, 최희원, 이현수. (2014).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실버타운 내 식음공간 사례분석. **디자인융복합연구, 13(2)**, 165-180.

이호창, 여민우. (2014).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일진사.

이효창, 하미경. (2007).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위한 지하상업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11)**, 151-159.

임종훈, 임진이. (2015). 전통시장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0(6)**, 111-119.

지덕규. (2001). 할인점 건축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병숙. (2004). 아동을 고려한 대전시 대형할인마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1(3)**, 206-217.

최아진. (2015).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도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광주광역시 구청사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서울시 장애인구, 고령인구.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평판] 대형마트 브랜드 2020년 5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 이슈 브리핑.

https://news.v.daum.net/v/20161129104442285

한국생활과학연구
제40권 pp.32-41 (2020)

공유홈오피스의 사례분석을 통한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Characteristics of Shared-Home Office through Case Analysis

문 승 현, 노 이 경*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실내건축디자인학과
Moon Sung hyun, Noh Yi kyung*
Department. of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number of combinations of co-housing and co-working spaces has increased and emerged as a new residential trend in recent day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space named "Shared-Home office" and analyze preceding studies to deriv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hared-Home office, to provide basic data when planning a Shared-Home office in the future. The research method defines the concept of a Shared-Home office and analyzes the spatial composition through preceding research considerati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each Co-housing and Co-working space are extracted through preceding research analysis, and based on thi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Shared-Home office and a checklist are derived. Based on the checklist, six selected cas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on the spot. In conclusion, the analysis of the case by extract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shared home office: interaction, accessibility, openness, and flexibility showed that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shared home office were analyzed in order of accessibility, openness, interaction, and flexibility. In the case of the highest accessibility, it is easy to access the desired space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residents, but in the case of outsiders, the security system was also used to enhance safety. In the case of the lowest flexibility, there were many cases where space compartments were omitted, but it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due to restrictions on changes or movements of furniture layout as space could not be used flexibly or extensively depending on the user.

Key words : Shared-Home Office, Co-housing, Cc-working Space, Space Characteristics
주제어 : 공유홈오피스,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공간특성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한국 사회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및 결혼연령 상승 등의 원인으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2018년「인구주택총조사」기준 전체가구의 29.3%를 차지하여 전형적인 가구 유형으로 부상하였다. 그 중 20, 30대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전체 가구의 9.98%에 달하며 2030년에는 약 1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인구주택총조사, 2019).

이러한 2030 밀레니얼세대의 '소유' 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공유형 라이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공유형 라이프는 경제적임과 동시에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류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 공유형 라이프 트렌드의 대표적인 예시로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가 있는데, 공유주거는 개인이나 가구들이 하나의 단위주택에서 거실과 같은 공동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주택 유형이며(모조설, 2019), 공유 오피스는 코워킹스페이스의 일종으로 커뮤니티공간을 보유하여 사용자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업무공간이다(이혜수, 2018).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재택근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은 공유형 라이프를 추구하는 가구 유형에 맞추어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에서 더 나아가 두 공간을 복합시킨 공유홈오피스의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서로 간 공간을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살고 교류하며 일의 효율을 높이고자하여 이러한 공유홈오피스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계획되어질 것으로 보이는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가 결합된 공간에 대한 명칭은 코리빙&코워킹 스페이스, 코워킹 쉐어하우스, 주거·업무 결합형 오피스

* Corresponding Author ; Noh Yi kyung
Tel : 82-10-2286-1846, E-mail : noh2k@hanyang.ac.kr

등 지칭하는 명칭이 다양하며 대표적인 공간 명칭이 없다. 또한, 기존의 공유주거에서 소극적으로 개인의 목적에 따라 반영되었던 업무라는 공유오피스의 기능이 이제는 공간 자체에 공유오피스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현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공간 계획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거주자 및 이용자들에게 새롭고 효율적인 경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가 결합한 공간을 정의하고 이를 '공유홈오피스'를 명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공유홈오피스 공간특성을 도출하고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공유홈오피스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후 계획 되어지는 공유홈오피스 공간계획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진행체계는 크게 '공유홈오피스의 공간구성 조사분석'과 '공간특성 추출 및 분석'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연구 범위 및 방법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2013년 이후 설립된 한국의 공유홈오피스 중 서울시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공유홈오피스 중 최근 3년(2018년 이후) 이내 개관하고 적극적인 형태로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가 결합되어 설립되어 나타났으며 공유공간 중 공유오피스의 면적이 가장 큰 단일건물의 사례로 한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로컬스티치연남장, 셀렉티드, 로컬하이브, 역삼트리하우스, 어반크리에이터스유닛, 드림하우스이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유주거 및 공유오피스의 공간의 개념과 구성을 정리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공유홈오피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간구성을 분석한다. 셋째,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 각각의 공간특성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추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유홈오피스의 공간특성을 도출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넷째,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선정한 사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관리자인터뷰를 실시한다. 다섯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종합하여 공유홈오피스의 공간특성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린다.

Ⅱ. 이론적고찰

1.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

1) 공유주거의 개념 및 공간구성

공유주거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현재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주거유형의 기본 개념이다. 공유주거는 거주자의 개인적인 자치권이 확보된 단위주거와 공동생활의 이익을 위한 공동공간이 함께·계획된 주택으로서 주거에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협동생활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실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주형태라고 할 수 있다(최준환 외, 2016).

공유주거의 공간 구성은 최준환(2016)에 따르면 개인공간을 개인침실로 분류하고, 공유공간의 경우 화장실, 부엌 등의 생활지원공간과 복도 계단 등의 연결공유공간, 그리고 라운지, 거실,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 공유공간으로 나누었다. 지예진(2017)은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으로 분류한 뒤 기본생활지원공간, 커뮤니티공간, 서비스·편의시설공간, 기타공간으로 나누었으며 모조설(2019) 역시 비슷하게 사적공간과 공유공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유공간을 커뮤니티공유공간과 기본생활 지원 공유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공유주거의 공간구성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적공간과 공유공간의 유형으로 나눈 뒤 기능에 따라 분석 및 종합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공유주거의 공간구성

유형	분류		기능
사적공간	침실, 개인 화장실 및 샤워실		개인 활동 및 사생활 보호
공유공간	생활지원	공용 화장실 및 샤워실, 주방, 세탁실	가사 생활 지원
	커뮤니티	라운지, 로비, 거실, 다용도실, 작업실,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연결통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	공간의 연결

2) 공유오피스의 개념 및 공간구성

공유오피스란 서로 다른 소속의 전문가 혹은 프리랜서들이 하나의 업무공간을 공유하며 서로 아이디어, 재능, 경험을 나누는 협업공간이다(김은아, 2017).

최근 업무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1인 창업이 활발해지는 등 창업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유오피스 시장은 더욱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유오피스의 공간 구성은 김은아(2017)는 크게 업무공간과 공용공간으로 구분하여 업무공간은 사적업무공간과 공적업무공간으로 나누었고, 공용공간은 리셉션과 로비 등의 업무지원 공간과 휴게공간으로 나누었다. 김원준(2017)은 고유업무공간, 업무지원공간, 사업확장지원공간으로 분류하였고, 배철희(2018)는 통로 및 코어를 추가하여 총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에 따라 유형을 크게 사적공간과 공용공간으로 나눈 뒤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공유오피스의 공간구성

유형	분류	기능
사적공간	개인오피스	개인 업무 공간
공유공간	오픈오피스	공동 업무 및 개방적 업무 공간
	회의실	직접적인 업무 교류와 협업, 심층 회의 공간
	업무지원공간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간의 연결

2. 공유홈오피스

1) 공유홈오피스의 정의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가 결합한 형태로써 각 공간의 주 기능들을 반영한 공간이다. 거주자들은 기존의 주거공간에서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절약하여 경제적임과 동시에 유연한 근무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내며 특히 재택근무자들에게 최적화 된 공유형 라이프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수진(2019)은 1인위주의 소규모 이용자들이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가 결합한 공간을 임대 형태로 공유한다고 말했고, 안효진(2017)은 코워킹 스페이스, 즉 공유오피스가 지닌 물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주거시설과 결합한 형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송(2017)은 1인 창조기업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코워킹 공간과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추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 공간에서 업무, 주거, 취미생활 등이 가능한 원스톱 비즈니스 공간의 계획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기존에는 공유주거의 형태에서 소극적인 부가 기능으로써 자유로운 공용시설 활용에 따라 업무기능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공유오피스 기능을 결합하여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의 공간기능의 비중을 비슷하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공간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가 결합한 공간을 칭하는 단어가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가 결합한 공간을 공유홈오피스라고 명명하고, 집과 업무공간을 공유하며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의 특성이 결합한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2) 공유홈오피스의 현황

공간을 통한 공유 경제가 공유오피스와 공유주택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패스트파이브, 위워크와 같은 공유오피스 전문기업들은 점차 공유오피스에 공유주거의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코오롱과 같은 건설사들 역시 공유주거에 공유오피스의 기능을 부여한 주택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밀레니얼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는 수요 환경과 맞물려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홈오피스를 개발하였다.

기존 셰어하우스가 청년들의 불안한 주거 환경의 대안으로 등장했다면 건설사들의 공유 주택은 보다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2030세대 전문직이나 프리랜서, 스타트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설사는 일회적인 수익 구조를 보이는 분양 사업과 달리 공유 주택 사업은 임대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분양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동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공유홈오피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작은 스타트업들도 다양한 주택형태를 선보이고 있는데, 대표적 예시로 최초의 국내 공유홈오피스인 로컬스티치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거와 공유오피스를 결합한 '코워킹&코리빙 로컬스티치'로 영역을 확장하며 도심에서 직주가 결합된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11개 지점, 100개의 독립실에 500명이상 거주하고 있다.

3) 공유홈오피스의 공간구성

국내외의 대표적 공유홈오피스 사례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종합 분석하였다. 사적공간과 공유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적공간과 공유공간 모두 주거의 기능과 오피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적공간의 경우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개인 업무공간이 있다. 공유공간의 경우 기존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의 경우 합치되어 나타나며 그 외 세탁공간이나 회의실 등 각각의 특성이 있는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분류되어 각 기능을 한다.

Table 3. 공유홈오피스의 공간구성

유형	분류	기능
사적공간	개인주거공간	개인 활동 및 사생활 보호
	개인업무공간	개인 업무 및 집중 공간
공유공간	공용업무공간	공동 업무 및 개방적 업무 공간
	공유주방	음료 및 식사
	다용도실	세탁 및 가사 생활 지원
	로비	휴식 및 만남
	라운지	휴식 및 대화,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회의실	직접적인 업무 교류와 협업, 심층 회의 공간
	공유서재	자료 열람 및 독서
	테라스	휴식 및 외부감상
	복도	공간의 연결

Ⅲ. 공유홈오피스의 공간특성 및 체크리스트 도출

1.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의 공간특성 분석

앞선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의 공간구성을 보면 공유홈오피스는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의 공간 구성을 대부분 포함하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의 공간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여도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 하에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 각각의 공간 특성 관련한 선행연구논문을

통해 빈도수가 높은 과반수의 특성을 도출하여 공유홈오피스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간 특성중 매우 흡사한 성격이나 포함되는 경우 한 가지 특성으로 표현하였는데, 상호작용성의 경우 교류성의 기능과 성격에서 매우 흡사하여 선행연구에서 더 많은 어휘로 표현된 상호작용성으로 합치하여 표현하였다.

빈도 별 분석결과 공유주거의 경우 아래의 <Table 4>와 같이 과반수 5회 이상 나타나는 상호작용성, 접근성, 개방성의 특성이 추출되었고, 공유오피스의 경우 아래의 <Table 5>와 같이 과반수 5회 이상 나타나는 접근성, 관계성, 유연성이 추출되었다.

Table 4.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공유주거의 공간특성

연구자(연도)	상호작용성	확장성	다목적성	접근성	개방성	독립성	연계성	영역성	유기체성	휴머니티	쾌적성	안전성
최희원(2020)	■	■	■									
모조설(2019)	■	■		■	■	■						
임해원(2018)				■	■		■	■				
박정은(2018)	■			■	■		■					
박경준(2018)	■							■	■			
신은별(2017)	■			■	■			■		■		
송기원(2017)	■			■	■							
이하연(2016)				■			■				■	■
이동호(2014)	■			■	■							
계	7	2	1	7	6	1	3	3	1	1	1	1

Table 5.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공유오피스의 공간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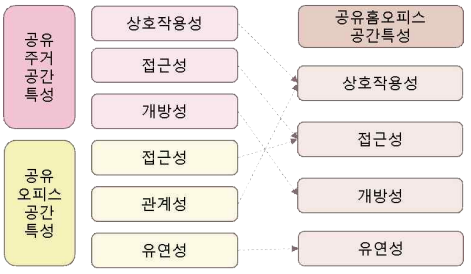
연구자(연도)	접근성	관계성	유연성	창조성	다목적성	자율성	유희성	가변성	이동성	형평성	편리성	일시성	유동성	공유성	휴식
전진배(2020)	■	■	■	■											
최비범(2019)		■	■	■	■										
김재학(2018	■	■	■		■	■	■	■	■	■					
이한재(2017)		■	■								■				
김희재(2017)	■	■				■	■								
김원준(2017)	■	■						■				■	■		
김은아(2017)	■	■	■	■							■				
노동완(2017)	■		■											■	■
백수연(2016)		■	■	■							■				
계	6	8	7	4	2	2	2	2	1	1	3	1	1	1	1

2. 분석의 틀

공유홈오피스의 공간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의 공간특성을 나열한 후 유사 의미를 정리하였다. 대체적으로 선행연구의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의 공간특성은 주로 공유공간에 해당되는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공간특성 분석결과 상호작용성과 관계성은 상호작용성으로 통합하였는데, 관계성의 주된 특성은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었고, 공유홈오피스는 공유주거를 기반으로 공유오피스의 기능이 더해진 사례가 많이 나타났기에 본 논문에서는 관계성을 상호작용성으로 정리하였다.

공유홈오피스의 공간특성을 아래 <Figure 1>과 같이 최종 상호작용성, 접근성, 개방성, 유연성으로 도출하였다.



<Figure 1> 공유홈오피스 공간 특성

1)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은 공간을 매개로 하여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심리적, 물리적인 사회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교류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백소현, 2018). 동선의 교차 지점에서 사용자 간 교류 시 나타나는 특성으로 물리적인 상호작용과 심리적인 상호작용이 동시에 나타난다.

공간측면에서 정보교류나 회의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와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동선계획이나 가구배치를 활용하여 상호간 교류가 가능한 환경이 제공되어야한다. 공유공간 중 교류의 기능이 있는 라운지나 회의실 등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만, 복도, 계단 등의 통로에서도 교류가 빈번히 일어나므로 이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가구나 디자인도 필요하다. 특히 오픈 스페이스와 연속적인 동선을 활용하여 사람들 사이의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2) 접근성

접근성은 물리적 환경이나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공간에 장애물이나 경계가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박정은, 2010). 주변과의 연계와 같은 외부와 내부의 공간과 공간 사이 이동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다.

공간 출입 시 자연스러운 동선으로 연결되는지, 출입구의 개수나 위치가 적당한지, 공간의 배치 방식이나 개구부 계획, 조명과 가구의 위치 등이 접근의 용이함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공간적 측면에서의 접근성은 공간의 이용자가 제약 없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이어야 한다.

3) 개방성

개방성은 열려있는 상태를 말하며 공간을 이루는 구획의 일부가 생략 또는 시각적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축 공간의 영역이 확대되는 정도(박정은, 2010)에 관한 특성이다. 송기원(2017)은 개방성이 시각적인 투영성과 가장 관련이 가장 관련이 깊은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시각적인 투명성은 공간의 개방감 가질 뿐만이 아닌 공간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성을 부여하기에 공간 계획에 이로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공간 이용 시 공간에서의 개방감은 기본 면적이 넓고 구획이 많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도드라지며 주로 개구부에서 나타나며 외부와 연결되는 창문이나 유리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의 구획을 했을 경우 크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공간 이용 시 시간의 제약이 없거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 할 때에도 개방성을 느낄 수 있다.

4) 유연성

유연성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자유로운 형태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구분이 약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간의 배치와 가구는 유연해지며 공간의 구조는 사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절하는데 용이하도록 가구 배치의 변형이나 유연한 공간의 구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가변성이나 확장성과도 관련이 깊으며 파티션이나 폴딩도어와 같은 가변적이고 확장적인 요소를 활용하면 공간구성과 면적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백수연(2016)은 유연성을 유연한 업무를 위해 공간을 확장, 변화, 기능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이를 위한 공간은 이동성 가구로 경계를 구획해야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업무 및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유공간은 구획분리가 되지 않거나 구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체크리스트 도출

앞서 분석한 공유홈오피스의 네 가지 공간특성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체크리스트 내용을 작성하였다. 다음 <표 6>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사례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홈오피스의 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높음: ●(5점), 보통: ◐(3점), 낮음: ○(1점), 없음:×(0점)>으로 평가하였다.

Table 6. 공유홈오피스의 공간특성 체크리스트 세부 내용

특성		세부 내용
상호작용성	I-1	공유공간이 거주자 수에 적절한 크기와 가구배치로 상호간 교류가 가능한 환경이 제공되는가?
	I-2	동선의 교차 지점에 공유공간이 계획되어 있는가?
	I-3	교류의 기능이 있는 공유공간 외에서도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되어있는가?
접근성	C-1	내부로 들어오면서 장애물이나 경계가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고 있는가?
	C-2	공간의 배치 방식이나 개구부 계획, 조명과 가구의 위치 등이 접근의 용이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C-3	사적공간과 공유공간간의 원활한 동선 배치를 통해 실내 보행이 용이한가?
개방성	O-1	공간의 구획이 시각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재료나 생략되어 시각적으로 열려있는 구조인가?
	O-2	개구부나 가구 등의 요소에서 공간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가?
	O-3	공간 이용 시 시간의 제약이 없거나 공간의 기능을 변경하여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유연성	F-1	가변적이고 확장적인 가구나 벽체 등의 요소가 있어 공간구성과 면적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가?
	F-2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공간 기능을 변경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구배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가?
	F-3	공유공간에서 다양한 업무 및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획분리가 되지 않은 공간이거나 이동성 가구로 경계가 구획되어 있는가?

III.사례분석 및 결과

1. 사례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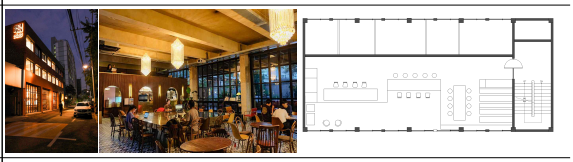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적극적인 형태로 공유주거와 공유오피스가 결합되어 설립되어 나타난 2013년 이후의 한국의 공유홈오피스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최근 3년 이내 개관한 지점들로 공유오피스 공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이상인 단일건물의 사례로 한정하였다. 또한 위치의 경우 서울시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최종 선정된 대상지는 로컬스티치 연남장, 셀렉티드, 로컬하이브, 역삼트리하우스, 어반크리에이터스유닛, 드림하우스이다. 대상지 개요는 아래 <Table 7>과 같다.

Table 7. 사례 분석대상 개요

구분	사례명	개관연도	규모	연면적	세대수	위치
A	로컬스티치 연남장	2018	3층	1091㎡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5길 22
B	셀렉티드	2019	5층	639㎡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 31길
C	로컬하이브	2019	6층	729㎡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길 11-5
D	역삼 트리하우스	2019	8층	4793㎡	7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3길 33
E	어반 크리에이터스유닛	2018	18층	5,005㎡	1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1길 33
F	드림하우스	2019	4층	862m²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1길 18

2. 사례분석

Table 8. 사례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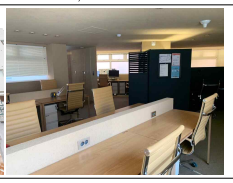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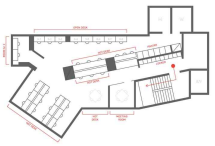
로컬스티치 연남장	
개요	연남장(場)은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로 지역별 창작자의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여 상생의 가치를 담아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동네와 소통하는 연결의 '장'을 지향한다. 코워킹 공간은 멤버십으로 운영되며 60여 명의 창작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독립 공간과 오픈 공간(고정석, 자유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레스토랑&카페로 로컬 식음료 큐레이션이 일어나는 라운지며 다양한 창작 활동이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지하 1층의 경우 로컬 창작자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문화공간으로 전시 및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 및 평면도	
층별 구성	B1-Exhibition & Event(전시 및 문화공간) 1F-RESTAURANT & CAFE (라운지) 2F-코워킹스페이스(공유오피스) 3F-CO-WORKING&CO-LIVING(독립스튜디오)

공간구성 및 면적비율

사적공간		공유공간								
개인 주거 공간	개인 업무 공간	공용 업무 공간	회의실	다용도실	로비	라운지	회의실	공유 서재	테라스	복도
○	○	○	○	X	X	○	○	X	X	○
20%		25%		-	-	20	2%	-	-	5%

공간특성 분석			
상호 작용성	I-1	●	공유공간의 면적이 전체의 1/2 이상 차지하여 거주 인원 모두를 수용 가능하며 오픈 스페이스 계획에 공용의 오픈데스크 및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이 제공 되어 상호간 교류가 가능하다.
	I-2	◐	계단을 기점으로 개인주거공간에 접근 시 공유공간을 지나치지 않아도 되나 공유공간의 개구부가 계단으로 향해 있어 접근이 쉽다.
	I-3	●	교류의 기능이 있는 코워킹스페이스나 RESTAURANT & CAFE의 라운지 외에도 개인업무공간과 개인주거공간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여유있는 공간과 가구를 제공하여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
접근성	C-1	●	외부에서 1층 라운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으며 장애물 없이 계단으로 진입할 수 있으나 2층과 3층은 허용된 사람 외에는 드나들 수 없게 안전장치가 되어있다.
	C-2	●	개구부가 유리로 되어있고 이동이 편리하도록 가구가 배치되어 있어 접근이 편리하다.
	C-3	●	개인주거공간에서도 작업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공유오피스 공간은 층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접근이 어렵지 않다.
개방성	O-1	●	공간의 구획이 되어있는 회의실이 유리로 되어있어 시각적인 개방감을 띈다.
	O-2	●	공간 접근 시 장애물이 없으며 공유오피스 공간의 경우 큰 창문으로 시야가 확보되며 분리되지 않은 개방적 구조이다.
	O-3	◐	1층의 라운지는 이용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지하 공간의 경우 사전 대여가 필요하다. 2층과 3층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유연성	F-1	×	가변적인 가구나 벽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F-2	×	가구배치를 변경하기는 어렵다
	F-3	●	회의실을 제외하고는 구획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공유공간에서 유연하게 활동 가능하다.
높음: ●(5점), 보통: ◐(3점), 낮음: ○(1점), 없음:×(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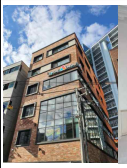
Table 9. 사례 B

셀렉티드	
개요	1인 가구 주거 플랫폼 셀렉티드바이클리(셀렉티드)는 연남동에 1호점을 두고 있는 1인 가구 20세대가 거주 가능한 코하우징을 제공하고 있다. 총 5층의 주택으로 1층과 2층은 공유공간으로, 3-5층은 기본생활공간이다. 기본생활공간의 경우 수납을 극대화한 붙박이장과 화장실, 에어컨, 블라인드, 디지털도어록, 세대별 화장실과 큰 창을 갖추었으며 공유주방, 공유라운지, 공유오피스, 전용테라스 등도 기본 구성으로 갖추고 있다.
사진 및 평면도	 
층별 구성	1F-Bottle SELECTED(공유라운지,공유주방) 2F-Desk SELECTED(공유오피스) 3F-5F-Home SELECTED(1인실+화장실,펜트리,창고,전용테라스) RF-루프탑 테라스

공간구성 및 면적비율										
사적공간		공유공간								
개인 주거 공간	개인 업무 공간	공용 업무 공간	회의 실	다용 도실	로비	라운 지	공유 주방	공유 서재	테라 스	복도
○	○	○	○	X	○	○	○	X	○	○
40%		25%		-	5%	5%	5%	-	10%	5%

공간특성 분석			
상호 작용성	I-1	◐	로비나 라운지의 경우 거주자 인원을 모두 수용하긴 어렵지만 공유오피스는 여유가 있고 외부인도 접근 가능하다.
	I-2	○	출입구와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있어 내외부로 통하는 동선의 교차지점에 공유공간이 계획되어있지는 않다.
	I-3	●	전용테라스나 루프탑테라스에서도 교류할 수 있도록 가구배치가 되어있다.
접근성	C-1	●	외부에서 라운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으며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모든 층에 접근 가능하다. 특히 외부에서 공유오피스로 바로 접근 가능한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C-2	●	비교적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개구부계획이 잘 되어 있어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접근 가능한 공간이 다양하다.
	C-3	●	공유공간과 사적공간이 층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통로와 계단, 엘레베이터 이용이 가능하여 실내 보행이 원활하다.
개방성	O-1	●	로비와 라운지의 경계가 없고 공간 구획 시 유리 문 및 벽으로 분리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O-2	●	출입구가 투명한 유리로 되어있어 공간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가구 역시 큰 테이블 등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공간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O-3	●	공간 이용의 시간의 제약이나 작업 및 업무의 형태가 자유롭다.
유연성	F-1	×	가변적이거나 확장적 요소가 있는 가구나 벽체는 없다..
	F-2	×	대형 가구들이 많아 가구배치 변경은 어렵다.
	F-3	●	공유오피스의 회의실을 제외하고는 구획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다양한 업무 및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높음: ●(5점), 보통: ◐(3점), 낮음: ○(1점), 없음:×(0점)			

Table 10. 사례 C

로컬하이브	
개요	로컬하이브는 성수동에 위치한 코워킹(Co-Working), 코리빙(Co-Living) 스페이스로 프리랜서, 1인기업, 소규모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공유사무실과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여 일하는 공간과 거주하고 쉬는 공간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입주자는 프라이버시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이용하면서 서로 협업하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입주가능나이는 20세 ~ 39세, 여성전용이다,
사진 및 평면도	
층별 구성	B1-상가 / 1F-상가(카페),주차장 / 2F-상가 3F, 4F-공유오피스(라운지,회의실,공유주방,테라스) 5F-주거공간(공유주방,욕실,다용도실) / 6F-주거공간(욕실,다용도실) RF-루프탑테라스

공간구성 및 면적비율										
사적공간		공유공간								
개인 주거 공간	개인 업무 공간	공용 업무 공간	회의 실	다용 도실	로비	라운 지	공유 주방	공유 서재	테라 스	복도
○	○	○	○	○	X	○	○	X	○	○
25%		30%		3%	-	10%	3%	-	20%	5%

공간특성 분석			
상호 작용성	I-1	◐	공유오피스의 경우 사용자 수에 적절한 크기와 가구배치로 이루어져 있고 루프탑도 규모가 커서 상호 교류가 가능하나 주방의 규모가 작아 사용자간 교류가 어렵다.
	I-2	○	외부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동선 상 공유공간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며 공유오피스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있다,
	I-3	●	루프탑테라스의 규모가 크고 사용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구들과 목적에 따라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접근성	C-1	●	내외부 출입시 계단 및 엘리베이터와 출입구가 맞닿아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C-2	●	엘리베이터 및 계단과 가까이 주출입구를 계획하여 접근이 용이하다.
	C-3	●	사적공간과 공유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 실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개방성	O-1	○	공간 구획시 불투명 유리로 되어있어 시각적으로 닫혀있는 구조이다.
	O-2	◐	창이 많고 루프탑이 넓으며 공유오피스의 구획분리가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있어 약간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O-3	●	공간 이용 시 시간의 제약이 없으며 다양한 업무 및 작업이 가능하다.
유연성	F-1	×	가변적이거나 확장적인 가구나 벽체는 없다.
	F-2	○	공간이 한정되어있어서 가구배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없으나 공유오피스 공간 내에서만 일부 가능하다,
	F-3	○	공유공간 대부분이 구획분리가 되어 있고 이동성 가구는 없다.
높음: ●(5점), 보통: ◐(3점), 낮음: ○(1점), 없음:×(0점)			

Table 11. 사례 D

역삼트리하우스	
개요	역삼트리하우스는 입주자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한국형 코리빙 하우스이다. 역삼 트리하우스는 6가지 커스텀 디자인된 프라이빗 스튜디오 유닛 총 72개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공간을 최소화 하고 공용공간은 최대화하였다. 약100평의 1-2층 공용공간에는 코워킹,미팅룸 등 업무수행공간과 공용주방 공용세탁실 등 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들이 있으며 애완동물 샤워장, 루프탑 테라스 등이 조성돼 있다.
사진 및 투시도	
층별 구성	B2-B1 주차공간 1F-공용공간(다용도실,로비,라운지,카페,공유주방) 2F-공용공간(코워킹공간,서재) / 3F-8F 개인공간(6F-테라스)

공간구성 및 면적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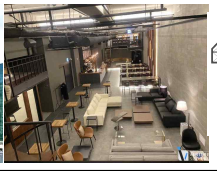
사적공간		공유공간								
개인 주거 공간	개인 업무 공간	공용 업무 공간	회의 실	다용 도실	로비	라운 지	공유 주방	공유 서재	테라 스	복도
○	○	○	○	○	○	○	○	○	○	○
50%		22%		2%	2%	10%	2%	2%	2%	5%

공간특성 분석

상호 작용성	I-1	●	라운지의 종류가 다양하고 공유주방,코워킹공간,미팅룸,서재 등 공유공간의 성격이 다양하여 상호 교류하기 용이하다
	I-2	○	출입구와 사적공간 간 이동시 교차지점인 1츠에 공유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나 각 층별 공유공간은 없다.
	I-3	○	교류의 기능이 있는 공간 외에서 교류가 크게 일어나게 계획되어 있지는 않다.
접근성	C-1	●	내부 진입시 장애물이나 경계가 없어 쉽게 접근 가능하다.
	C-2	◐	공유공간과 사적공간이 분리되어 배치되어있어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가까이 있으나 공유공간 및 라운지 규모가 매우 큰 반면 통로가 좁은 편이다.
	C-3	●	사적공간과 공유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실내 보행 시 장애물이 없다,
개방성	O-1	●	공간의 구획이 생략된 곳이 많고 구획되더라도 투명한 유리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열려있는 구조이다.
	O-2	●	큰 창들이 많아 채광이 좋고 대형 테이블 등 공용 가구들이 많아 공간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O-3	●	공간 이용시 시간의 제약이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유연성	F-1	×	가변적인 요소가 없어 공간구성이나 면적의 변화를 꾀할 수는 없다,
	F-2	×	큰 가구들이 많고 용도가 정해져있어 가구배치를 변경할 수는 없다,
	F-3	●	구획분리가 되지 않고 가구로만 되어 있어 다양한 업무 및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높음: ●(5점), 보통: ◐(3점), 낮음: ○(1점), 없음:×(0점)

Table 12. 사례 D

어반크리에이터스유닛	
개요	스타트업 창업가와 창작자가 주거와 업무까지 해결할 수 있는 콘셉트의 신개념 창업 공간이자 작업실이다. 업무 피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하에는 140평 규모의 라운지를 갖췄고 1층에는 카페 겸 레스토랑 브랜드를 론칭했다. 각 층별로 주거, 업무, 식사, 라운지를 구현하였으며 오피스는 1인 고정 좌석에서부터 팀 단위(최대 15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가 구비되어 있다. 라운지는 학생이나 직장인도 멤버십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 및 평면도	
층별 구성	B1-멤버십라운지 1F-카페 및 레스토랑,테라스 2F-사무공간 3F-18F 주거공간

공간구성 및 면적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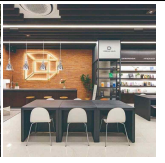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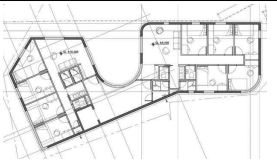
사적공간		공유공간								
개인 주거 공간	개인 업무 공간	공용 업무 공간	회의 실	다용 도실	로비	라운 지	공유 주방	공유 서재	테라 스	복도
○	○	○	○	X	X	○	X	○	○	○
75%		5%		-	-	5%	-	1%	1%	5%

공간특성 분석

상호 작용성	I-1	●	모든 공유공간이 사용자 수에 적절한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 가구가 다양하게 배치 되어있어 상호 교류하기 원활하다.
	I-2	◐	출입구와 사적공간 간 동선 교차지점이 1층에 카페 및 레스토랑이 위치하고는 있으나 사무공간이나 멤버십라운지는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I-3	○	교류의 기능이 있는 공유공간 외에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된 요소는 없다.
접근성	C-1	●	내외부 출입시 장애물이나 경계가 없이 쉽게 출입이 가능하다.
	C-2	◐	주 공유공간인 멤버십라운지에 외부로부터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 계획이 되어있으나 다른 요소들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C-3	●	사적공간과 공유공간이 분리가 되어있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개방성	O-1	●	1층의 레스토랑은 전면 유리를 사용하였고 멤버십라운지의 경우 공간의 구획을 생략하였으며 사무공간은 일부 벽과 투명한 유리와 불투명한 유리를 동시에 사용하여 구획되어 있어 시각적인 개방감을 주도록 계획했다.
	O-2	●	전면창을 사용한 공간이나 오픈 스페이스 구조의 멤버십라운지 등에서 공간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O-3	○	1층의 레스토랑이나 멤버십라운지는 사용시간이 정해져있고 휴무일도 있어 자유롭게 이용하긴 어렵다.
유연성	F-1	×	가변적이고 확장적인 가구나 벽체 등의 요소는 없다.
	F-2	×	가구배치를 임의로 조정하긴 어렵다.
	F-3	○	공유공간 중 멤버십라운지만 구획분리가 크게 되어있지 않으며 가구나 출입구가 뚫려있는 벽을 활용하여 .구분하였다. 그 외의 공유공간은 경계가 구획되어있다.

높음: ●(5점), 보통: ◐(3점), 낮음: ○(1점), 없음:×(0점)

Table 13. 사례 F

드림하우스	
개요	드림하우스는 디자이너,크리에이터,개발자 등을 지원하기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지하1층에서 지상5층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층마다 특색있는 공간으로 궁성하여 입주자들이 단순히 먹고 자는 곳 뿐만 아니라 창작, 업무공간이 구비되어 있다. 지하1층은 입주자를 위한 작업공간,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카페가 들어와있고. 2층은 입주자들이 공유하는 부엌과 라운지,3-5층은 공용주방과라운지가 딸린 1인실 주거공간으로 구성했다. 남성 10명,여성12명의 입주자를 위해 성별에 따른 공간의 효과적인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5개층을 'skip floor'로 구성을 하였다.
사진 및 평면도	 
층별 구성	B1F - LOFT(코워킹스페이스-스튜디오, 서재) 1F-라운지 및 카페 / 2F - 라운지 3F-거주공간,공용주방, 공용거실, 다용도실 4F-5F 거주공간,다용도실 / RF-루프탑테라스

공간구성 및 면적비율

사적공간		공유공간								
개인 주거 공간	개인 업무 공간	공용 업무 공간	회의 실	다용 도실	로비	라운 지	공유 주방	공유 서재	테라 스	복도
○	○	○	○	○	○	○	○	○	○	○
30%		15%		3%	5%	13%	5%	2%	13%	5%

공간특성 분석			
상호 작용성	I-1	●	모든 거주자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이며 공유공간의 종류가 다양하고 공간 기능 별 가구도 다양하여 상호 교류하기 용이하다.
	I-2	×	출입구와 사적공간 간 이동 시 동선의 교차지점에 공유공간이 계획되어 있지는 않는다.
	I-3	○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공유공간과 멀며 교류의 기능이 있는 공유공간 외에서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다.
접근성	C-1	●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카페가 들어와 있지만 드림하우스의 중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동선을 가지고 있어 외부와 내부를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게 했다.
	C-2	●	스킵플로어 구조를 활용하여 여러 공간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C-3	●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이 분리가 잘 되어있어 이동 시 장애물 없이 원활하게 접근 가능하다.
개방성	O-1	●	B1층의 공간 구획 시 유리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공유공간은 구획을 생략하여 시각적으로 열려있는 구조이다,
	O-2	●	노출 콘크리트천장을 활용하였으며 대부분 통유리창을 사용하여 채광이 좋으며 공간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O-3	●	공간 사용시간에 제약이 없고 사용자가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유연성	F-1	×	가변적이거나 확장적인 가구나 파티션과 같은 벽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F-2	○	일부 공유공간에서 가구배치를 변화시킬 수는 있으나 한정적이다.
	F-3	●	스튜디오를 제외하고는 공간 구획이 없어 다양한 업무 및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높음: ●(5점), 보통: ◐(3점), 낮음: ○(1점), 없음:×(0점)			

3. 종합분석

1) 공유홈오피스 공간구성 분석

공유홈오피스의 공간구성은 전체 사례 모두 사적공간의 개인주거공간이나 개인업무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공유공간의 공용업무공간과 라운지, 회의실, 복도가 조성되어 있었다. 테라스와 공유주방의 경우 5사례에서 나타났으며 로비, 공유서재와 다용도실의 경우 각 3사례에서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14>와 같다.

Table 14. 공유홈오피스 공간구성

구분	사적공간		공유공간								
	개인 주거 공간	개인 업무 공간	공용 업무 공간	회의실	다용 도실	로비	라운지	공유 주방	공유 서재	테라스	복도
A	○	○	○	○	X	X	○	○	X	X	○
B	○	○	○	○	X	○	○	○	X	○	○
C	○	○	○	○	○	X	○	○	X	○	○
D	○	○	○	○	○	○	○	○	○	○	○
E	○	○	○	○	X	X	○	X	○	○	○
F	○	○	○	○	○	○	○	○	○	○	○

2) 공유홈오피스의 공간특성 분석

사례분석 시 <높음: ●(5점), 보통: ◐(3점), 낮음: ○(1점), 없음:×(0점)>으로 아래 <Table 15>와 같이 평가하였다.

공유홈오피스의 공간특성을 분석한 결과 접근성 > 개방성 > 상호작용성 > 유연성 순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높게 나타났다. 내·외부 출입 시 장애물이나 경계가 없이 출입가능하게 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개구부계획을 눈에 띄게 하거나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분리를 통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개방성의 경우 세 사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시각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큰 창과 출입구, 혹은 투명한 통창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구획을 생략하거나 대형 가구들을 배치하여 공간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있었다. 대부분의 공용공간이 시간 및 이용 형태의 제약이 없었다. 상호작용성의 경우 모든 거주자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공용공간이나 다양한 종류의 공간을 마련하여 상호 교류 시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교류의 기능이 없는 공용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테라스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선 상 출입구와 사적공간으로 이동 시 교차지점에 공유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우연한 만남에 의한 상호작용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유연성의 경우 가변적이거나 확장적인 요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구배치의 변화나 이동에 제약이 있어 미흡하게 나타났다. 다만 공간 구획이 없는 오픈스페이스 계획이 많이 되어있어 다양한 업무 및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Table 15. 공유홈오피스의 공간 특성별 종합 분석 결과표

구분	상호작용성			접근성			개방성			유연성		
	C-1	C-2	C-3	O-1	O-2	O-3	I-1	I-2	I-3	F-1	F-2	F-3
A	●	◐	●	●	●	●	●	●	◐	×	×	●
B	◐	○	●	●	●	●	●	●	●	×	×	●
C	◐	○	●	●	●	●	○	◐	●	×	○	○
D	●	○	○	●	◐	●	●	●	●	×	×	●
E	●	◐	○	●	◐	●	●	●	○	×	×	○
F	●	×	○	●	●	●	●	●	●	×	○	●
합계	26	9	18	30	26	30	26	28	18	0	2	22
총계	53			86			72			24		

Ⅳ. 결론

현재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라이프스타일에 변화가 일어났다. 공유주거를 하며 업무를 위해 회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재택근무 및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디지털 노마드족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공유홈피스의 필요성이 증대 되었다. 창업이나 공동작업 등 같은 공유홈오피스를 통하여 새로운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합적인 공간들이 다양하게 창출됨과 동시에 공유홈오피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홈오피스의 공간 구성과 특성을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공유홈오피스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공유홈오피스의 공간구성과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특성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공유홈오피스의 공간구성은 사적공간과 공유공간으로 나

뉘어 사적공간에는 개인주거공간과 개인 업무공간으로 구분되고 공유공간은 공용업무공간, 공유주방, 다용도실, 로비, 라운지, 회의실, 공유서재, 테라스, 복도로 구분되고 있었다. 사례별 공간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사적공간과 공유공간의 공용 업무공간, 라운지, 회의실, 복도는 모든 사례에서 나타났으며 테라스와 공유주방은 총 5사례, 로비, 공유서재와 다용도실은 각각 3사례에서만 나타났다.

2. 공유홈오피스의 공간 구성 별 면적의 경우 공용업무공간과 회의실을 합친 공유오피스의 기능을 가진 공간 다른 공유공간보다 면적이 큼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례가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라운지, 테라스 등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유홈오피스의 공간특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성, 접근성, 개방성, 유연성의 4가지 특성으로 구분되었다. 사례분석을 통해 공유홈오피스의 공간특성을 살펴 본 결과 접근성 > 개방성 > 상호작용성 > 유연성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접근성과 개방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연성은 낮게 나타났다.

4. 접근성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 특성으로 개구부를 통한 공간에 출입 시 장애물이나 경계가 없어 접근성을 높였으며 개구부계획을 눈에 띄게 하거나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분리를 통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특히 상하부 이동 시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설치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거주자의 경우 접근성이 높지만 외부인의 경우에는 보안장치가 있어 안전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5. 개방성의 경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적 개방감과 공간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구부나 가구, 천장 등을 활용하여 계획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공용공간이 시간 및 이용형태의 제약이 없었다. 특히 구획이 생략되거나 열려있는 구조는 유연성에도 영향을 미쳐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상호작용성의 경우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거주자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공용공간이 마련되어있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공간으로 다양한 목적에 따라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달라지게 하여 상호 교류 시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교류의 기능이 없는 공용공간인 테라스에 가구를 배치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동선 상 출입구와 사적공간으로 이동 시 교차지점에 공유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우연한 만남에 의한 상호작용을 기대하긴 어려움이 있었다. 보다 이용자의 요구와 목적에 따라 공간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가변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유연성의 경우 다른 특성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간의 구획변경이나 가구 배치의 변화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공간의 구획이 생략된 사례는 많았으나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공간을 가변적이거나 확장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 가구배치의 변화나 이동에 제약이 있어 미흡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용자의 요구와 목적에 따라 공간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가변적 요소들을 추가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공유홈오피스의 공간구성과 공간특성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향후 실질적으로 공간 이용자의 만족도나 의견에 대해 수렴하는 질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를 보완하여 공유홈오피스 계획 시 기초자료를 제공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이수진,(2019), 공유개념을 적용한 업무 및 주거 복합건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39(2)**,105-108.

이혜수, (2018), 공유오피스의 커뮤니티 중심 공간 구성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7(1)**, 3-11.

최준환, (2016),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공유 공간 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7(5)**, 1-10

최준환, (2016),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공유 공간 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27(5)**, 1-10.

이송, (2017),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계획안.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7(12)**, 169-169

안효진,김승인, (2017), 공유경제 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한 협력적 라이프스타일 연구-코워킹과 코리빙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405-410.

박정은,이현수, (2018), 청년 쉐어하우스의 공유공간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 57-59.

박정은, 이효원, (2010), 사회통합형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공유공간의 디자인요소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6)**, 11-21

김재학, (2018), 코워킹 스페이스의 제 3의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3(2)**, 79-92.

강수경, (2016), 공유주거의 공간경계에 따른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조민정, (2011), 수직적 도시 공동주거 커뮤니티에 적용된 공유공간의 계획특성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11(5)**, 55-67.

이혜수, (2019), 코리빙(Co-Living) 활성화 구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특성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최민혜, (2017), 코워킹 오피스 근무환경 특성이 개인의 정보보안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전진배, (2020),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대학원**

최희원, (2020),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셰어하우스 공유공간 디자인 특성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8(2)** 337-347.
모조설, (2019), 청년층 특성에 따른 공유 주거 디자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임해원, (2018), 사회통합을 위한 도시 집합주택의 주거동 내 공유공간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7(3)**, 100-107.
박경준, (2018), 소규모 집합주거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공유공간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8(2)**, 185-186.
신은별,(2016), 공유공간 '셰어링 스페이스'의 공간 유형 분석 - 공유 경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4(4)**, 199-218.
송기원, (2017), 1인 가구를 위한 공동 주택,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이하연, (2016),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컬렉티브하우스 공간특성 사례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1)**, 3-12.
이동호, (2014), 공유공간 특화를 통한 도시형 1인가구 생활주택 계획,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최비범, (2019), 코워킹 스페이스에 나타난 공간의 컨텍스트적 표현 특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3)**, 407-420.
이한재, (2017), 노마디즘을 적용한 코워킹 스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김희재, (2017), 프리 에이전트를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디자인 특성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김원준, (2017), 공유오피스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김은아, (2017), 공유 오피스의 서비스스케이프 디자인 전략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노동완, (2017), 현대사회의 유목적 사고로 인한 코워킹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백수연, (2016), 코워킹 스페이스에 나타난 어메니티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https://localstitch.kr/home
https://www.selectedbyqli.com/
https://www.thecomenstay.com/house/sharehouse-localhive-seongsu
https://www.commontown.co/ko/house-page/treehouse
http://urbancreatorsunit.com/
https://dreamin.career/dreamhaus

한국생활과학연구
제40권 pp.42-53 (2020)

노인특성에 따른 시니어 셰어하우스의 공간특성 연구

: 일본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enior Share House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 Focusing on Japan and Korean Cases

이 수 복, 문 자 영*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실내건축디자인학과
Lee Su-Bok, Moon Ja-Young*
Department. of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has entered an aged society beyond aging.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9 percent of the population or aged 65 older is expected to enter an ultra-aged society by 2026. Single-person households are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perception of values by generation, low birth rates, and frequent migration, especially the number of elderly living alone is increasing significantly. Alternatives are needed to accommodate the diverse needs and lifestyl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every year, and senior share houses are needed for loneliness, a healthy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 new community space. The analysis framework was prepared by substituting the eldery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preceding study into the space elements of the share house and comparing the case of senior share house in Japan and the case of 'Borindure house' in Korea. Korea had many options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private space, and Japan had fewer options due to modularity. In the case of public space, Korea was provided with 125.21㎡ and Japan with 237.7㎡, and since it was provided with 52.6% of Japan's average value, space planning should be centered around public space that can further highlight the advantages of 'Sharing'. Among the five previously derived characteristics, 'Safety' emerged in the Korean case as the need for safety devices when moving. 'Territoriality needed a design that reflected privacy aspects in the Japanese case, and 'Sociality' needed a design to prevent the absence of the community in the Korean case. 'Accessibility' means that South Korea needs to access the connection space internally, not separating from outside. Finally, 'Independence' should be considered to provide separate storage space by increasing the area ratio of public spaces.

Key words : Single elderly households, Share house, Elderly characteristic, Spatial characteristic
주제어 : 노인 1인가구, 셰어하우스, 노인특성, 공간특성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대한민국은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2018년 65세 이상 인구는 14.3%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65세 이상 인구는 20.9%로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9). 또한 세대별 노인의 비율은 25.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9) 이에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1인 노인 가구의 욕구 기반과 더불어 노인 1인가구를 위한 대안의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다.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지원은 2017년 정부의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소득수준, 생애단계별 맞춤 주거지원을 공표하였고, 커뮤니티가 특화된 사회통합 공동체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니어 1인 가구의 요구와 라이프 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1인 주거 대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니어 1인 가구의 심리적 문제인 고독함을 줄이고, 건강한 주거환경 및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위한 새로운 시니어 셰어하우스의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 국가이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이 먼저 이루어진 일본의 시니어 셰어하우스 사례와 한국의

* Corresponding Author ; Moon, Ja-young
Tel :82-10-4589-8385, E-mail: jjjmun@hanyang.ac.kr

시니어 셰어하우스의 현황 및 공간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추후 시니어 셰어하우스 공간을 위한 개선점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노인 1인가구의 주거대안으로 시니어 셰어하우스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제시를 위해 문헌 및 사례조사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특성 및 시니어 셰어하우스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 특성 및 공간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도출빈도에 따라 시니어 셰어하우스 공간특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각 평가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셋째, 일본과 한국의 유사한 규모의 도시권에 속하는 시니어 셰어하우스 사례를 선정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 사례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일본과 한국의 시니어 셰어하우스를 비교 분석하여 현황과 차이점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시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노인 1인 가구와 노인주거

1인 가구란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계청 표준 정의에 따르면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하며(심애리,2017), 2019년 2,011만 가구 중 1인가구는 598만 가구로 이는 29.8%에 이른다. 이중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50만 가구로 25.1%를 차지하며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녀의 분가로 인한 핵가족화와 배우자의 사망 등 비 자발적 요인에 의한 독거가 주류를 이루고 이로 인하여 소외감, 고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다(정경화,2013). 노인인구 증가속도를 보면,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일본 24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8년이 소요되어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하는 기간 역시 프랑스 39년, 미국 21년, 일본 12년이 소요되었지만 우리나라는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노인 인구 증가는 1인 노인가구의 증가를 야기시키며, 이에 따른 노인 1인가구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개편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시키고 24시간 케어, 치매검진 등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양로시설을 관할 시·군·구 조건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위해 입소를 하도록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가구 지원을 위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요보호 독거노인의 급증, 고독사의 발생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 1인가구의 자가 미거주율이 53.2%(보건복지부, 2018)로 현저히 낮아 독거노인의 주거안정과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2. 셰어하우스의 개념

셰어하우스는 다수의 사람이 한집에서 개인공간 외에 거실, 주방, 화장실의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형태이다. 이유연(2020)은 “하나의 집에서 다수의 사람이 자신만의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있으며, 주방, 화장실 같은 공동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주택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유지원(2019)은 “비 혈연관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한 건물에 거주하며 개인 공간은 혼자서 사용하지만,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공유하며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된 서울 도심 소형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셰어하우스의 각국의 유래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야마카타에 있는 빈 여관호텔을 개조해서 공동 아파트로 만드는데서, 유럽에서는 1979년 덴마크에서 시작한 코하우징 주거형태로 1인 가구가 모여서 옥상 정원 텃밭 등을 같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셰어하우스라는 것이 시작되었다(최서아,2018). 선진국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일상화됨으로써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셰어하우스는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해 공유경제가 나타났으며, 전통적 가정의 해체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비용적 측면의 절약과 1인가구의 심리적 단점인 고독 및 외로움을 해결하는 공동생활공간의 필요에 의해 생겨나게 되었다.

3. 국내와 일본의 시니어 셰어하우스 현황

시니어 셰어하우스는 공동체주택, 공유주택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한 집을 공유하며 개인공간 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로 이해된다.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이유로 독거노인 가구의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맞춤형 공동체 주택’으로 연령 및 가구 구성원 등 주거수요에 맞춰 2013년 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보린두레주택’ 사

업을 시작하였다. 보린두레주택 사업은 독거노인들이 모여 사는 공간으로 한 주택 내에서 개인공간을 갖으면서 공동공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독립성과 공동체성이 함께 제공되는 노인용 셰어하우스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노인을 위한 보린두레주택 6개소, 연극인을 위한 두레주택 6개소, 여대생을 위한 두레주택 1개소, 1인가구를 위한 두레주택 2개소로 총 15개소의 보린두레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입주자 선정은 보린두레주택이 위치한 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및 의료급여수급을 받는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기본 2년을 임대기간으로 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의 안부확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으며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입주자 간 소통 및 교류를 통해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형태의 주택이며 공동주택 안에 독립된 공유공간을 갖춰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주택이다.

일본은 기존의 타 국가사례를 참조하여 1996년 후생성에서 고령자 재택개호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고령자 그룹리빙 지원모델사업'을 통해 알려졌으며(소갑수,2007), 이후 개인과 기업, NPO법인 기관에 의해 시니어 셰어하우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노인의 인구 상승, 출산율 감소 등 일본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며 일본은 먼저 고령사회에 앞서 진입해 노인의 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미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주거문제에 대하여 앞서 살펴 볼 수 있으며, 노인의 주거대안으로 떠오르는 셰어하우스를 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차이점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4. 노인의 특성

고령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반 대상과는 달리 여러 단계의 노화현상을 겪게 되면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김성혜,2018). 따라서 고령자의 욕구를 수용하고 자립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화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각 특성에 대해 고찰 후 노인주거에 반영되어 져야 하는 공간특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신체적 특성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노화로 인한 신체의 다양한 부위의 축소 및 쇠퇴로 감각기관의 적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 저항력 등이 낮아져 질병에 쉽게 노출되며 이는 활동에 있어 보행능력의 저하, 유연성이 떨어져 동작을 행하는데 어려워지며 행동에 따른 반응하는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노인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는 일반인과의 소통에 영향을 주며 소외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2) 심리적 특성

노화로 인해 정신적인 인지능력의 감퇴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성격 특성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 과거 지향적, 태도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나타난다. 이는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립감, 소외감을 발생시킨다(박희진,2004).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증, 내성적으로 변하고 수동적이게 되며 이는 무기력증, 체중감소, 식욕감퇴 등의 증상으로 발현된다.

(3) 사회적 특성

노인은 은퇴이후 사회로부터 소속감이 사라지고 활동범위 또한 축소되어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가장으로서 역할 상실은 무력감과 소외감을 갖게 된다. 또한 자녀의 취업과 결혼으로 인한 독립으로 인한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사회적 역할의 결여는 여가생활과 다시금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높은 욕구로 이어진다. 노인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노인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

구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금학송 (2004)	신체변화 도구의 도움	고독감, 사회 부적응	사회적 교류
박희진 (2004)	몸의 쇠약, 만성적 질환	노인문화 정서적 혼란소외감	노인공동체, 사교활동 사회적 소외감
박홍철 (2010)	건강악화, 장애현상 수면단축, 성격변화 운동력 저하, 감각감퇴	적응력상실, 성격변화 지각 감퇴	긴 여가시간, 역할 축소, 수입절감, 고독감, 문화적 차이
김대진 (2011)	불면증, 감각쇠퇴	지각감퇴, 인격변화 사회활동축소, 무력감	사회활동욕구, 고독감 소외감
오찬옥 (2015)	재생능력 감퇴, 신체적 퇴화, 시·청력 퇴화, 자극 둔화	학습저하, 기억력 저하, 사고력 저하, 치매	행동위축, 소외감 상실감, 허무감 고독감
안상녕 (2019)	골격변화, 감각쇠퇴 시력감퇴, 난청 치유저하	의욕감퇴, 본능감퇴 보수성, 소외감, 고독감, 의존성증가, 내향성	대인관계축소, 상실감, 고독감, 사회적 손실

Ⅲ. 체크리스트 도출

1. 노인 주거 공간 선행연구 분석

우리나라에서 시니어 셰어하우스란 용어는 유사한 개념의 공동사용주택, 공유주택, 공동주거시설 등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셰어하우스의 연구는 대부분 해외의 셰어하우스 사례의 공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청년층에 집중되어 노인을 위한 셰어하우스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공간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의 특성이 반영된 공간특성을 도출하여, 빈도를 파악한 후 많이 언급되고 있는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아래는 선행연구와 각 연구에서 다룬 노인을 위한 공간특성 요소이다 <Table 2>.

Table 2.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구분	연도	연구자	연구제목	공간특성
A	2004	금학송	노인특성을 고려한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 연구	안전성,영역성,사회성,접근성,지원성,독립성
B	2004	박희진 외 1명	노인의 특성에 따른 환경친화적 노인주거단지 계획요소	쾌적성,안전성,영역성,사회성,효율성,접근성 독립성
C	2010	박홍철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택규모 및 주택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안전성,영역성,사회성,적응성,접근성,독립성
D	2011	김대진 외 5명	노인특성을 고려한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계획요소에 관한연구	쾌적성,안전성,영역성,거주성,사회성,접근성,지원성,독립성
E	2015	오찬옥	노인의 특성과 인지연령에 따른 주거공간의 인테리어 스타일에 대한 선호 차이	안전성,영역성,사회성
F	2019	안상녕	도시주거단지에서 노인특성을 고려한 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안전성,영역성,사회성,접근성,독립성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고, 공간 특성을 도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특성은 '안전성', '영역성', '사회성', '접근성', '독립성'의 5가지 요소이며, 다섯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셰어하우스의 공간요소로 분석 및 대입하여 분석틀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각 특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3, 선행연구 공간특성요소 도출

	A	B	C	D	E	F	개수
쾌적성		O		O			2
안전성	O	O	O	O	O	O	6
영역성	O	O	O	O	O	O	6
거주성				O			1
사회성	O	O	O	O	O	O	6
적응성			O	O			2
효율성		O					1
접근성	O	O	O	O		O	5
지원성	O						1
독립성	O	O	O	O		O	5

(1) 안전성

안전성이란 노인이 신체적 한계를 경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간이 노인에게 있어 안전에 미리 예방하는지에 대한 요소이다. 공간의 이동시 안전장치의 유무와 낙상방지를 위한 바닥의 마감재의 사용 유무를 보고자 한다.

(2) 영역성

셰어하우스 내 다수의 이용자가 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개개인에 따른 사적인 공간(Personal Space)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적 요소이다. 다양한 주거평면의 선택폭,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이 혼재하는 건물 내 프라이버시를 위한 영역에 대해 보고자 한다.

(3) 사회성

사회성이란 노인 간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교류로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된 노인들의 고립감 등 심리적 특성에 긍적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입주자들이 공유공간에서 커뮤니티 활동뿐만 아닌 연결공간 등 다양한 곳에서 교류의 기회에 대해 보고자 한다.

(4) 접근성

공간의 내부에서 노인이 이동할 시 장애물 등 방해가 되는 환경이 없이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셰어하우스에서 노인이 길을 찾을시 원활하게 접근하거나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낸다. 이동 간 장애물의 유무,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의 접근에 있어 용이한지에 대해 본다.

(5) 독립성

공간의 내부에서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와 일상 활동에 대한 요소로 의·식·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인 주거환경과 달리 시니어 셰어하우스의 개인공간에서 의·식·주생활을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침실, 주방, 화장실의 유무에 대해 살펴보고,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영역이 줄어든 만큼 개인의 짐과 물품들을 수납할 수납공간이 충분히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보고자 한다.

2. 체크리스트 및 평가방법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 앞서 도출된 다섯 가지 공간특성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으며, 각 세부 내용은 <Table 4>와 같다. 공간특성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 사례에 대한 공간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 모두 만족할 경우 ●(2점), 부분적으로 만족할 경우: ◐(1점), 만족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평가하였다.

Table 4. 공간특성 체크리스트

요소	구분	체크리스트
안전성	S1	공간을 이동할 시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S2	바닥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영역성	T1	다양한 형태의 개인공간의 평면을 개발하여 선택폭을 넓히고 있는가
	T2	현관 또는 복도에서 주거지 내부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가
사회성	O1	이동 간 상호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 하는가
	O2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은 소규모 그룹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접근성	A1	공간 혹은 공간과 공간을 이동시 단차를 제거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가
	A2	개인공간에 근접한 위치의 공용공간을 계획하고 있는가
독립성	I1	개인공간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수납공간을 제공 하는가
	I2	개인공간에서 의식주 행위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침실, 화장실, 주방이 계획되어 있는가

Ⅲ. 사례분석

1. 사례대상 개요

일본NPO 산하에 도시권에서 운영 중인 사례와 한국의 도시권에 속하며 비슷한 연면적을 가지는 10~16세대 사이의 소규모 사례 시니어 셰어하우스를 각 4곳씩 8곳을 선정하였으며, 사례대상의 구체적인 개요는 <Table 5>와 같다. 일본 사례의 경우 위치는 오사카와 카나가와현으로 도시권에 속하고 있으며 2015년 이전 지어진 건물이다. 세대수는 10~15세대 사이이며 2~3층 규모이다. 연면적은 평균 475.7㎡, 개인실은 평균 19.9㎡이다. 보증금은 평균 28,029,900원이며, 월세는 평균 1,536,000원이다. 한국사례의 경우 위치는 서울시 금천구, 은평구로 도시권에 속하며 2015년 이후 지어진 건물이다. 세대수는 10~16세대 사이이며 규모는 4~5층 규모이다. 연면적은 평균 486㎡, 개인실은 평균 22.2㎡이다. 보증금은 평균 11,922,500원이며, 월세는 평균 112,300원이다.

Table 5, 일본과 한국의 사례분석개요

일본				
구분	A	B	C	D
이미지				
위치	카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오사카 이바라키시	카나가와현 에비나시	카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년도	1999	2015	2003	2006
세대수	10	15	10	10
규모	2F	3F	2F	2F
연면적	484.2㎡	424.35㎡	496.72㎡	497.4㎡
개인실	25.06㎡	10.13㎡, 14.15㎡	25.06㎡	25.06㎡
보증금	37,000,000원	1,119,700원	38,000,000원	37,000,000원
월세	1,589,000원	951,700원~ 1,802,700원	1,589,000원	1,589,000원
한국				
구분	E	F	G	H
이미지				
위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47가길 38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24길 50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56길 18-10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5 20-9
년도	2015	2015	2016	2017
세대수	16	10	14	11
규모	5F	4F	5F	5F
연면적	431.8㎡	623.55㎡	499㎡	389.62㎡
개인실	14.44㎡~18.48㎡	15.07㎡~16.26㎡	24.84㎡~38.97㎡	18.91㎡~30.84㎡
보증금	9,410,000원~ 22,740,000원	10,980,000원~ 11,510,000원	8,300,000원~ 12,030,000원	7,480,000원~ 12,930,000원
월세	52,600원~ 127,000원	92,000원~ 96,000원	108,200원~ 156,700원	97,500원~ 168,400원

2. 일본과 한국 시니어 셰어하우스 공간특성 분석

일본 사례의 경우 각 사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도면 및 사진을 토대로 공간배치와 공간특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한국 사례의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사진촬영에 제약이 있어 인터넷 및 홈페이지의 사진을 참고하였다. 앞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성, 영역성, 사회성, 접근성, 독립성의 다섯 가지 공간특성에 대해 평가·분석하였으며, 내용은 <Table 6>~<Table 13>과 같다.

Table 6. 일본 사례분석

A

■ : 개인실

도면

1F

2F

공간 구성

개인공간				공용공간													
				공유공간					위생공간			다용도공간			연결공간		
침실	화장실	수납장	주방	거실	식당	주방	손님방	기타	화장실	욕실	세면대	세탁실	창고	수납장	EV	복도	테라스
●	●	●	●	●	●	●	●		●	●		●		●	●	●	●

공간배치 특성			1층과 2층에 각각 5개의 개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의 코어 중심으로 개인공간은 우측에 공용공간은 좌측에 배치되어 있다. 주 출입구외에 테라스를 이용해 출입이 가능하다.
안전성	S1	●	미닫이 도어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 공간이동시 연결공간에 손잡이가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공간 내에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 개인의 안전을 신경쓰고 있다.
	S2	●	바닥의 마감은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마루를 사용하였다.
영역성	T1	●	개인실의 면적은 모두 25.06㎡로 일정하지만 2가지 타입으로 존재한다.
	T2	◐	테라스와 연결된 완창으로 누구나 쉽게 이동을 하고 볼 수 있어 선택적으로 커텐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타입의 개인공간의 베란다는 홀로 사용이 가능하여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
사회성	O1	●	개인공간이 밀집되어 있어 이동 간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형성이 된다.
	O2	●	거실 외에 가구의 배치 및 일본식 타다미를 이용해 그룹화하며 사회적 참여를 유도한다.
접근성	A1	●	모든 공간 내 단차가 없으며 EV가 있어 신체적으로 불편한 노인도 이동에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A2	●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이 평면상 좌우 분리로 노인들이 해매지 않으며 층별 공용공간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독립성	I1	●	모든 개인실 마다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I2	●	침실, 화장실, 주방 모두 구성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의식주를 해결 할 수 있다.
이미지			개인공간 공용공간 이미지, 도면 출처 : http://www.coco-shonan.jp/shiyounandaiplan.htm

Table 7. 일본 사례분석

B

■ : 개인실

도면

1F

2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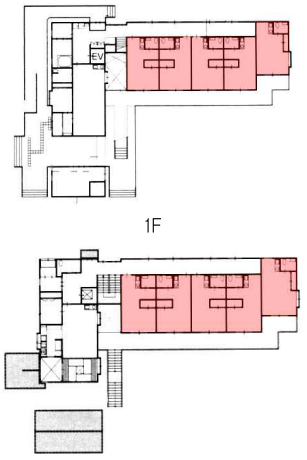
3F

공간 구성

개인공간				공용공간													
				공유공간					위생공간			다용도공간			연결공간		
침실	화장실	수납장	주방	거실	식당	주방	손님방	기타	화장실	욕실	세면대	세탁실	창고	수납장	EV	복도	테라스
●	●	●		●	●	●			●	●	●	●	●	●	●	●	

공간배치 특성			1층의 3개의 개인실과 2, 3층의 각 6개의 개인실로 구성되어 있고, 복도를 따라 가로로 배치되어 있으며, 1층의 개인실로 가기 위해서 공용 거실을 거치도록 설계되어있다.
안전성	S1	●	화장실 및 세면대, 출입문에는 모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도어는 미닫이로 노인들도 쉽게 여닫을 수 있다. 위생공간에는 손잡이 및 비상 호출 등 위험한 상황에 대비되어 있다.
	S2	●	바닥의 마감은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마루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영역성	T1	●	2가지 타입으로 1,2층의 14.15㎡와 3층 10.13㎡로 개인공간이 계획되어 있고 구성은 모두 동일하다.
	T2	●	복도에서 개인공간을 볼 수 없도록 되어있어 프라이버시가 강하다.
사회성	O1	●	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모든 인원의 동선은 동일하여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을 도모한다. 또한 개인실로 가기 위해선 공용공간을 거쳐야하므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
	O2	●	거실과 주방,등 모든 공유공간과 출입문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두어 사회적 교류가 상시 일어나도록 계획하고 있다.
접근성	A1	●	모든 공간 내 단차가 없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A2	◐	1층을 제외한 2, 3층에서 공용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하며,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
독립성	I1	●	각 개인공간에 수납공간이 있으며 2, 3층 복도에 별도의 수납공간이 있다.
	I2	○	개인공간에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이 없으며 모든 식사는 공용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미지			개인공간 공용공간 이미지, 도면 출처 : http://www.helper-house.co.jp/

Table 8. 일본 사례분석

C	
■ : 개인실	
도면	

공간 구성

개인공간				공용공간													
				공유공간					위생공간			다용도공간			연결공간		
침실	화장실	수납장	주방	거실	식당	주방	손님방	기타	화장실	욕실	세면대	세탁실	창고	수납장	EV	복도	테라스
●	●	●	●	●	●	●	●	●	●	●	●	●		●	●	●	●

공간배치 특성			‘ㄱ’형태로 코어와 복도를 따라 우측에 개인공간이 직렬해 있으며 좌측에 공용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1,2층 각각 5개의 개인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도 외에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이 테라스로도 연결되어 있다. 남쪽의 별채(교류 플라자)가 있으며 신규입주자 및 소규모 행사시 이용된다. 점심과 저녁은 관리비로 납부하는 외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대면하도록 한다.
안전성	S1	●	복도와 계단과 같은 모든 연결공간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개인실과 공용화장실 또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도어는 미닫이로 노인들도 쉽게 여닫을 수 있다.
	S2	●	개인 및 공유공간의 마루와 안전이 중요한 위생공간은 타일, 휠체어용 화장실은 마루를 사용하여 낙상을 예방하고 있다.
영역성	T1	○	모든 층의 개인공간의 면적 25.06㎡ 및 구성이 모두 동일하다.
	T2	●	복도와 테라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커텐 설치와 우드도어로 내부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회성	O1	●	‘—’자형 복도로 개인실이 밀집되어 있어 이동시에도 상호 교류가 일어난다.
	O2	●	거실 외에 타다미 설치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접근성	A1	●	모든 공간에 단차를 없애 장애물이 없어 접근이 용이하다.
	A2	●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의 좌우 분리로 인해 동선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노인들이 쉽게 인지하여 접근할 수 있다
독립성	I1	●	모든 개인공간에 수납공간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I2	●	침실, 화장실, 주방 등 의식주를 독립적으로 행동 할 수 있다.
이미지			 개인공간 공용공간 도면 출처 : http://www.coco-shonan.jp/arimaplan.htm 이미지 출처 : http://cocoarima.blog.fc2.com/blog-entry-10.html

Table 9. 일본 사례분석

D	
■ : 개인실	
도면	

공간 구성

개인공간				공용공간													
				공유공간					위생공간			다용도공간			연결공간		
침실	화장실	수납장	주방	거실	식당	주방	손님방	기타	화장실	욕실	세면대	세탁실	창고	수납장	EV	복도	테라스
●	●	●	●	●	●	●	●		●	●	●	●			●	●	●

공간배치 특성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개인공간이 배치되어있다. 각 실로 이동하기 위해선 공유거실을 통과해야하며 1층과 2층 각각 5개의 개인공간이 있다. 커뮤니티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실을 제외한 기능적 공용공간들은 모두 코어와 함께 건물의 한쪽으로 몰아 두었다.
안전성	S1	●	모든 도어는 미닫이로 노인들도 쉽게 여닫을 수 있다. 또한 손잡이의 설치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공용공간의 위생공간 내부에도 손잡이가 설치되어 어느 공간을 가더라도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S2	●	개인 및 공유공간의 마루와 안전이 중요한 위생공간은 타일, 휠체어용 화장실은 마루를 사용하여 낙상을 예방하고 있다.
영역성	T1	○	개인공간의 면적은 25.06㎡, 구성은 모두 동일하다.
	T2	●	테라스와 인접한 개인공간은 내부 커텐 설치 혹은 반투명유리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회성	O1	●	공유공간 거실을 중심으로 개인공간이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여 커뮤니티의 부재를 없앴다.
	O2	●	층별 거실이 존재하여 커뮤니티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
접근성	A1	●	개인 및 공용공간 모두 단차가 존재하지 않아 접근성이 용이하다.
	A2	●	공용공간이 개인공간과 붙어 있어 항상 공용공간을 지나치도록 하여 접근성이 높다.
독립성	I1	●	모든 개인실마다 충분한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I2	●	침실, 화장실, 주방 모두 구성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의식주를 해결 할 수 있다.
이미지			 개인공간 공용공간 도면 출처 : http://www.coco-shonan.jp/takakuraplan.htm 이미지 출처 : http://www.coco-shonan.jp/web_nairankai.htm

Table. 10 한국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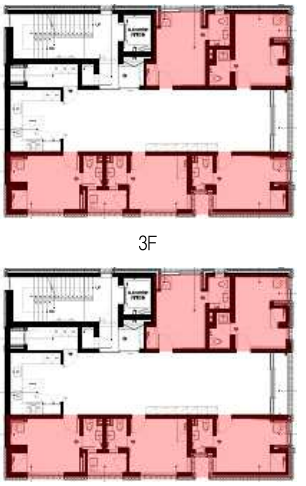
E	
■ : 개인실	
도면	2F 3F 4F 5F

공간 구성

개인공간				공용공간													
				공유공간					위생공간			다용도공간			연결공간		
침실	화장실	수납장	주방	거실	식당	주방	손님방	기타	화장실	욕실	세면대	세탁실	창고	수납장	EV	복도	테라스
●	●	●	●	●	●	●			●			●			●	●	

공간배치 특성			1층의 주차장을 통해 계단으로 진입 후 복도를 통해 각 실별 이동. 코어와 복도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개인공간이 배치되어있다. 1층 주차장 및 공용공간(경로당)으로 운영하며 2~5층 개인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5층의 경우 2인실로 분양하고 있다. 옥탑층은 텃밭 등으로 이용하여 공유하고 있다.
안전성	S1	○	모든 공간에 별도의 안전장치는 없다.
	S2	◐	개인공간 내부의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은 마루를 사용하지만 연결공간의 마감재는 미끄러운 마감재를 사용하여 낙상의 위험이 있다.
영역성	T1	●	개인공간은 총 16개중 면적에 따른 9개의 타입이 다양하게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T2	●	각 개인공간은 외부에서 볼 수 없어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이루고 있다.
사회성	O1	○	개인공간에서 나가게 되면 바로 연결공간인 'EV'와 계단실뿐이 제공되지 않아 이동 간 상호 교류가 어렵다.
	O2	●	1층의 경로당과 옥탑의 텃밭을 제공하여 커뮤니티 그룹을 활성화 하고 있다.
접근성	A1	●	모든 공간에 단차가 존재하지 않아 접근성이 용이하다.
	A2	○	층수가 높아 EV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용공간까지 접근이 어렵다.
독립성	I1	●	모든 개인공간에 충분한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I2	●	모든 개인공간은 독립적으로 의식주를 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어 독립성이 유지된다.
이미지			개인공간 공용공간 이미지, 도면 출처 : https://soco.seoul.go.kr/unitHousing/unitHousingMain.do;jsessionid=E162C4614CD1BEDBA00F33BC82ED8436?homeType=&homeCode=10001281

Table. 11 한국 사례분석

F	
■ : 개인실	
도면	 3F 4F

공간 구성

개인공간				공용공간													
				공유공간					위생공간			다용도공간			연결공간		
침실	화장실	수납장	주방	거실	식당	주방	손님방	기타	화장실	욕실	세면대	세탁실	창고	수납장	EV	복도	테라스
●	●	●	●	●		●		●				●		●	●	●	

공간배치 특성			1~2층은 경로당으로 이용, 3~4층에 셰어하우스로 이용하고 있으며 층별 5개실로 구성되어 있다. 옥탑층은 텃밭으로 이용하여 공유하고 있다. 코어와 연결공간은 좌상단 구석에 위치하며 건물 중앙 공유거실을 중심으로 위아래 개인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안전성	S1	○	모든 공간에 별도의 안전장치는 없다.
	S2	◐	일반적 주거에 사용하는 우드플로링 바닥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연결공간의 마감재는 미끄럽고 충격흡수가 되지 않는 마감으로 되어 있다.
영역성	T1	●	개인공간의 면적은 15.07~16.26㎡ 사이로 유사하며 2가지 타입으로 제공되고 있다.
	T2	●	각 개인공간이 공유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회성	O1	●	공유공간 거실과 1~2층의 공용공간 경로당, 옥탑의 텃밭으로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O2	●	한 층당 5명이 공유공간 거실을 중심으로 개인공간이 배치되어 자연스럽게 소규모 그룹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교류를 이어간다.
접근성	A1	●	모든 공간에 단차는 없으며 개인공간에서 공유공간이 붙어있어 접근성이 높다.
	A2	●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거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이 수월하다.
독립성	I1	●	각 개인공간에 수납공간이 있으며 별도로 공용공간에 수납공간이 있다.
	I2	●	개인공간에 침실, 화장실, 주방이 있어 독립적으로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다.
이미지			개인공간 공용공간 이미지, 도면 출처 : http://soco.seoul.go.kr/unitHousing/unitHousingMain.do?homeType=C&homeCode=10001282

Table 12. 한국 사례분석

G	
: 개인실	
도면	2F 3F 4F 5F

공간 구성																			
개인공간				공용공간															
				공유공간					위생공간			다용도공간			연결공간			
침실	화장실	수납장	주방	거실	식당	주방	손님방	기타	화장실	욕실	세면대	세탁실	창고	수납장	EV	복도	테라스		
●	●	●	●	●	●	●			●			●			●	●			

공간배치 특성			1층 공용공간, 2~5층 개인공간, 공용옥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과 옥상만 공유가 가능한 구조이다. 2~3층 4개의 개인실, 4~5층 3개의 개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어중심 방사형태로 개인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안전성	S1	○	별도의 안전을 위한 장치가 없다.
	S2	◐	개인공간은 미끄럽지 않은 마루를 사용하고 있지만 연결공간의 마감재가 미끄럽고 충격흡수가 되지 않는 마감으로 되어 있다.
영역성	T1	●	다양한 주거평면으로 다양하게 선택가능하다.
	T2	●	공유공간이 개인공간이 밀집된 층에 없어 사생활보호가 매우 용이하다.
사회성	O1	○	각층은 개인공간과 연결공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커뮤니티의 부재가 생기고 있었다.
	O2	○	옥탑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는 텃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출입을 막아두어 1층에 있는 공유공간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소규모 그룹의 커뮤니티 활동은 어렵다.
접근성	A1	●	개인공간 내부에 단차가 없어 접근이 용이하다.
	A2	○	개인공간에서 공유공간으로 가기위해 EV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용공간까지 이동이 어려워 접근성이 부족하다.
독립성	I1	●	각 개인공간에 충분한 수납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I2	●	기본적인 침실, 화장실, 주방 외 다양한 요소가 많아 독립적으로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며, 독립성이 유지된다.
이미지			개인공간 공용공간 이미지, 도면 출처 : http://soco.seoul.go.kr/unitHousing/unitHousingMain.do?homeType=C&homeCode=10001283

Table 13. 한국 사례분석

H	
: 개인실	
도면	2F 3F 4F 5F

공간 구성																			
개인공간				공용공간															
				공유공간					위생공간			다용도공간			연결공간			
침실	화장실	수납장	주방	거실	식당	주방	손님방	기타	화장실	욕실	세면대	세탁실	창고	수납장	EV	복도	테라스		
●	●	●	●	●	●	●		●	●					●	●	●	●		

공간배치 특성			1층 계단실, 2~5층 개인공간, 4층 공용공간 및 개인공간, 옥탑층은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4층과 옥상만 공유가 가능하다. 2~3층 4개의 개인실, 4층 1개의 개인실 및 공유공간, 5층 2개의 개인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복도를 중심으로 우측 방사 형태로 공간이 배치되어있다.
안전성	S1	○	모든 공간에 별도 안전예방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S2	◐	개인공간은 미끄럽지 않은 마루를 사용하고 있지만 연결공간의 마감재가 미끄럽고 충격흡수가 되지 않는 마감으로 되어 있다.
영역성	T1	●	개인공간은 총 11개 중 면적에 따른 7개의 타입이 다양하게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T2	●	각 개인공간은 내부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다.
사회성	O1	◐	공유거실과 텃밭을 연결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유도하고 있지만 4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연결공간 외에 상호 교류의 기회가 없다.
	O2	●	거실과 텃밭을 연결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접근성	A1	●	개인공간 내부에 단차는 없다.
	A2	◐	개인공간이 밀집된 2~5층 사이 4층에 공용공간이 존재하여 비교적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독립성	I1	●	각 개인공간에 충분한 수납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I2	●	기본적인 침실, 화장실, 주방이 있어 독립적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여 독립성이 유지된다.
이미지			개인공간 공용공간 이미지, 도면 출처 : https://soco.seoul.go.kr/unitHousing/unitHousingMain.do?homeCode=20000320&homeType=

3. 소결

시니어 셰어하우스를 일본과 한국 사례로 구분하고, 평면도 및 공간현황과 개인 및 공용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내용을 종합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Table 14. 일본과 한국의 공간 특성 분석 종합

공간 특성											
		안전성		영역성		사회성		접근성		독립성	
		S1	S2	T1	T2	O1	O2	A1	A2	I1	I2
일본	A	●	●	●	◐	●	●	●	●	●	●
	B	●	●	●	●	●	●	●	◐	●	○
	C	●	●	○	●	●	●	●	●	●	●
	D	●	●	○	●	●	●	●	●	●	●
합계		8	8	4	7	8	8	8	7	8	6
평균		8		5.5		8		7.5		7	
한국	E	○	◐	●	●	○	●	●	○	●	●
	F	○	◐	●	●	●	●	●	●	●	●
	G	○	◐	●	●	○	○	●	○	●	●
	H	○	◐	●	●	◐	●	●	◐	●	●
합계		0	4	8	8	3	6	8	3	8	8
평균		2		8		4.5		5.5		8	
평균합		10		13.5		12.5		13		15	

●:적용(2) ◐:부분적용(1) ○:미적용(0)

시니어 셰어하우스의 한국과 일본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적용된 공간특성 순은 독립성(15)>영역성(13.5)>접근성(13)>사회성(12.5)>안전성(10) 순 이였다.

먼저 '독립성'의 경우 일본과 한국 사례 모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수납공간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I1' 독립성 부분에 대해 모두 적용되었다. 일본사례의 경우 공용공간의 면적이 한국보다 넓어 별도의 수납공간이 있었다. 한국 사례는 F사례에서 개인공간 외 공용공간에서 별도의 수납공간이 있으며, H의 4층에서 공용공간의 별도 수납공간을 확인 할 수 있다. G, E 사례는 각 개인공간 내 수납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I2' 독립성 요소 부분에서 모든 사례의 개인공간 내 침실과 주방, 화장실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독립성이 높았다. 그러나 일본의 B사례의 개인공간에만 별도의 주방이 없어 식사를 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공용공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영역성'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공간의 평면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T1'의 경우 일본의 A사례는 면적은 동일하지만 2가지 타입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B사례의 경우 면적은 다르지만 2가지 타입을 제공하여 입주자의 선택지를 늘렸다. 하지만 C, D사례는 모든 개인공간이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어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었다. 한국의 모든 사례는 한 건물에 여러 가지 형태와 다양한 면적의 개인공간을 제공하여 선택권이 다양하였다. 'T2'의 경우 일본은 A사례에서는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을 연결하는 복도 외에 테라스를 두어 접근성 및 개인마다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였지만 모두가 접근 가능한 테라스이므로 개인공간 내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부가적으로 불투명유리 혹은 커텐을 설치하여 차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타입의 개인공간의 경우 홀로 테라스를 이용이 가능하여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었다. B사례는 개인공간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 프라이버시가 강하였으며 C, D사례는 A사례와 유사하게 개인공간이 테라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부를 볼 수 없게 되어있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었다. 한국사례의 경우 코어를 중심으로 개인공간이 외벽을 마주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볼 수 없게 되어 프라이버시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접근성'의 경우 공간 혹은 공간과 공간을 이동시 단차의 제거 유무인 'A1' 항목에서 일본과 한국 사례 모두 단차를 제거하여 노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공용공간의 근접한 위치의 유무인 'A2' 접근성은 일본 사례의 경우 A, C, D사례의 경우 개인실과 공용공간이 매우 근접하여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B사례는 각층의 공용공간중 화장실과 연결공간밖에 없어 공유공간으로 가기위해선 계단 및 EV를 이용해야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이 부족하다. 한국 사례의 경우 모든 사례에서 단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공용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EV와 계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동이 대체적으로 어렵지만 F사례의 경우 각 층에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이 붙어 있어 접근성이 좋았으며 H사례의 경우 1층과 옥탑 외에 4층에 공유공간이 있어 많은 이동을 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공용공간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성'의 'O1'의 경우 일본의 공간 배치 중 개인실은 코어를 중심으로 복도가 주로 'ㅡ'자형으로 이루어져 동선이 한쪽으로 유도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입주자들은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으며, 공용공간뿐만 아닌 연결공간에서도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관에서 진입을 한 후 개인공간을 가기 위해 공용공간을 필히 거쳐야 해 상호 교류를 유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E, G 사례의 경우 공용공간은 1층과 옥탑에 이루어져있으며, 1층 또한 계단실과 공용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따로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실로 이동이 가능해 커뮤니티의 부재가 생긴다. F사례는 층별 공유공간 거실이 있어 자연스러운 커뮤니티를 형성시키고 있었다. H사례는 4층에 공유공간 거실과 테라스가 있어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지만 나머지 층은 별도의 공유공간이 없어 커뮤니티의 부재가 생겼다. 'O2'의 경우 일본의 모든 사례에서 거실 외에 일본식 타다미 등 소규

모의 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E사례는 1층과 옥탑, F사례는 1층과 옥탑, 각층의 공유공간 거실, H사례는 공유공간 거실과, 옥탑을 연결하여 소규모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고 있었지만 G사례의 경우 옥탑의 폐쇄와 각층의 공유공간의 부재로 인해 모든 입주자가 1층의 공유공간을 사용하여 소규모의 그룹활동을 어렵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가 사회성 요소가 모두 적용되어 있음을 파악하였고, 한국 사례의 경우 부분적으로 적용된 곳과 부족한 사례가 함께 나타났다.

'안전성'은 'A1'요소의 경우 일본사례는 모든 연결공간과 일부 사례에서 개인공간에도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한국 사례의 경우 모든 사례에서 안전을 위한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점이 파악되었다. 'A2'요소의 바닥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는 가에 대한 안전성의 여부에서 일본사례는 개인공간, 공유공간, 다용도공간은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마루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안전성이 중요한 위생공간 중 욕실과 화장실은 타일, 장애인용 화장실은 다른 공간과 같이 마루를 사용하여 용도에 따라 낙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었다. 한국 사례의 경우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은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마루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화장실은 타일을 사용하였다. 연결공간은 낙상의 위험이 있는 화강석 및 테라조를 사용하고 있어 부족한 점이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시니어 셰어하우스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로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부족한 점과 개선점을 찾기 위해 수행하였다. 노인의 특성으로 공간 요소를 도출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구성 중 개인공간의 경우 한국은 면적이 14.44~38.92㎡로 다양하여 침실, 화장실, 수납장, 주방 4가지 구성 외에 다양한 가구를 배치할 수 있어 입주자가 다양한 선택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0.13~25.06㎡로 모듈화 된 개인공간으로 4가지 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일본의 B사례는 주방이 없었다. 일본은 입주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면적의 개인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용공간의 경우 일본사례의 면적은 224.2~246.8㎡, 평균 237.7㎡로 제공되어 있으며 한국의 면적은 95.52~154.9㎡, 평균 125.21㎡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 평균값의 52.6%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개인공간을 모듈화 하여 선택범위가 좁지만 공용공간의 필수적 공간인 거실과 식당, 주방을 제외한 다양한 용도의 공유공간, 화장실, 욕실, 세면대, 목욕실, 창고, 수납장 등을 배치하여 개인공간보다 공용공간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개인공간의 면적 및 구성이 다양하게 있어 선택의 폭이 넓으며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이 내부와 외부로 한정되어 있어 사생활보호 부분은 높지만 개인 간 교류가 부족할 수 있으며, 공용공간 또한 주요 기능을 제외한 공용공간으로 텃밭을 제외하면 전무하므로 공용공간보다 개인공간 중심으로 개개인의 생활이 더욱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셰어하우스의 특징인 '공유'라는 장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공용공간 중심으로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서 도출된 5가지 특성으로 분석한 결과 '독립성'의 경우 한국은 일본에 비해 공용공간의 면적이 협소하므로 공용공간의 면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면적이 협소할 경우에는 별도로 수납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붙박이 수납장 혹은 이동식 수납공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영역성'에서 일본은 개인공간은 연결공간 외 테라스로 접근이 가능하여 사생활 보호가 용이하지 않지만 한국은 연결공간 외 접근이 가능한 입구가 없어 사생활 보호가 나타났다. 일본은 테라스가 전체적 연결이 아닌 개인공간별 테라스를 두며 사생활 보호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설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접근성'은 일본 사례에서 공간이동 시 동선에 장애물이 없으며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이 근접하여 접근이 쉽게 나타났지만 한국은 원룸과 같이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을 층별로 나누어 공간이 뚜렷하게 내부와 외부로 나뉘어져 접근이 일본과 반대로 어려웠다. 한국은 연결공간을 외부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개인공간과 함께 내부 공간으로 속하도록 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성'은 일본의 경우 공용공간을 거치는 설계로 커뮤니티 형성이 유리하지만 한국은 공용공간을 거치지 않아도 개인공간에 갈 수 있어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일본과 같이 공용공간을 거치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사회성이 결여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안전성'은 일본의 시니어 셰어하우스 내 모든 연결 공간 및 일부 개인공간과 공용공간 중 위생공간에 안전손잡이와 점자표지 등이 설치되어 이동시 안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국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후 한국에 개설될 시니어 셰어하우스 내 연결공간과 필요 공간에는 필히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 손잡이 등

무장애설계(Barrier-free)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특성에 따른 시니어 셰어하우스의 공간특성에 대한 분석과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시니어 셰어하우스의 바람직한 공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금학송, (2004), 노인특성을 고려한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성혜, (2018), 고령자 주거환경 실내디자인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논문집24(3), 68

박희진, 전창미, (2004), 노인의 특성에 따른 환경친화적 노인주거단지 계획요소, **한국노인복지학회 겨울호**

정선희, (2006), 노인특성을 고려한 노인전문병원의 실내디자인을 위한 색채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효주, 최상헌, (2009), 노인특성을 고려한 노인요양시설 치유환경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4-209

박홍철, (2010),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택규모 및 주택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진, 신혜경, 김미연, 강지연, 류호식, 김형근 (2011), 노인특성을 고려한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1(1)**, 33-34

권은정, (2011), 독거노인을 위한 실내생활공간 디자인 계획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찬옥, (2015), 노인의 인지연령과 주거공간의 인테리어 스타일과의 관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4(3)**, 95-103

심애리, (2017), 커뮤니티센터 중심 'Aging in Place'구현 방향,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혁, (2018), 국내 및 일본 셰어하우스의 공간구성과 공용공간 계획특성에 대한 연구, 대진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안상녕, (2019), 도시주거단지에서 노인특성을 고려한 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1(1)**, 308-311

손진하, (2015),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공간디자인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시 공동체주택플랫폼, http://soco.seoul.go.kr/

비영리 활동 법인 NPO COCO 그룹리빙 http://www.coco-shonan.jp/index.html

통계청, (2019), 고령자 통계

정경화, (2013), 고령화 시대의 노년기 준비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